

온라인

2020년 전통문화연구회 국제학술대회

## 동아시아 東洋古典 翻譯 현황과 미래 전망 - 十三經注疏의 번역을 중심으로

일시 : 2020년 11월 19일 (목) 15시~18시  
온라인 SNS 생중계

주최 :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 모시는 글

오곡이 익어가는 청명한 가을, 본회에서는 ‘동아시아 東洋古典 翻譯현황과 미래 전망 - 十三經注疏의 번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2020년 동양고전 학술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수천 년간 누적되어온 방대한 양의 漢文古典을 現代 自國語로 번역하여 學問의 發展과 大衆의 敎養 涵養을 도모하는 일은 韓中日 3국의 공동된 과제입니다. 본회는 인류문화의 소중한 자산인 동양고전을 번역하고 있으며, 특히 十三經注疏 譯註 사업을 착수하여 국내 최초의 완역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十三經注疏의 번역과 관련하여 한중일 3국의 동양고전 번역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를 전망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동아시아 3국의 古典翻譯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학술발표회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하여 온라인 실시간 중계 형식의 발표회로 개최하여 SNS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社團 法人 傳統文化硏究會

상임고문 李 漢 東  
이 사 장 李 啓 晁  
회 장 朴 洪 植



## <2020년 국제학술대회 일정표>

동아시아 東洋古典 翻譯 현황과 미래 전망 - 『十三經注疏』의 번역을 중심으로

사회 및 통역 : 高在錫(성균관대 교수)

### ■ 1부 : 개회선언 및 개회사 ..... 15:00~15:15

- 개회선언 安炳周 (본회 초대회장)
- 개회사 朴洪植 (본회 회장)

### ■ 2부 : 주제발표 ..... 15:15~17:50

#### ■ 기조강연

- | 강 연 : 成百曉(한학자. 《周易正義》 책임역자)
- | 강 연 : 李光虎(연세대 명예교수. 《禮記正義》 <大學·中庸> 책임역자)

#### 1. 최근 40년간 중국 ‘十三經注疏’ 口語번역 및 校點정리 현황에 대한 회고와 미래전망

- | 발 표 : 沙志利(北京大學 儒藏編纂與研究中心 研究員)

#### 2. 日本의 漢文訓讀의 전통과 번역 현황 - 十三經注疏와 관련하여

- | 발 표 : 嚴錫仁(筑波大學 人文社會系 准教授)

#### 3. 韓國에서의 十三經注疏 影響과 譯註事業

- | 발 표 : 崔錫起(경상대 한문학과 명예교수)

### ■ 폐회 ..... 17:50~18:00

## <목 차>

### ■ 기조강연

|                    |   |
|--------------------|---|
| 《周易正義》完譯에 부쳐 ..... | 7 |
|--------------------|---|

| 강연 : 成百曉(한학자, 《周易正義》 책임역자)

|                                                   |    |
|---------------------------------------------------|----|
| ‘古注’와 ‘新注’의 조화와 균형으로<br>儒學의 道를 이 시대에 다시 밝혀야 ..... | 11 |
|---------------------------------------------------|----|

| 강연 : 李光虎(연세대 명예교수, 《禮記正義》 <大學·中庸> 책임역자)

### ■ 주제발표

|                                                |    |
|------------------------------------------------|----|
| 近四十年中國大陸關於“十三經注疏”的白話翻譯・<br>校點整理狀況回顧暨未來展望 ..... | 17 |
|------------------------------------------------|----|

|                                                              |    |
|--------------------------------------------------------------|----|
| 최근 40년간 중국 ‘十三經注疏’ 口語번역 및<br>校點정리 현황에 대한 회고와 미래전망(번역문) ..... | 33 |
|--------------------------------------------------------------|----|

| 발표 : 沙志利(北京大學 儒藏編纂與研究中心 研究員)

|                                     |    |
|-------------------------------------|----|
| 日本の漢文訓讀の傳統と翻譯現況 - 十三經注疏と關連して- ..... | 51 |
|-------------------------------------|----|

|                                               |    |
|-----------------------------------------------|----|
| 일본의 漢文訓讀의 전통과 번역 현황 - 十三經注疏와 관련하여-(번역문) ..... | 73 |
|-----------------------------------------------|----|

| 발표 : 嚴錫仁(筑波大學 人文社會系 准教授)

|                            |    |
|----------------------------|----|
| 韓國에서의 十三經注疏 影響과 譯註事業 ..... | 97 |
|----------------------------|----|

| 발표 : 崔錫起(경상대 한문학과 명예교수)

[기조강연]

## 《周易正義》 完譯에 부쳐

成 百 曉

(한학자, 《周易正義》 책임역자)

1. 十三經注疏의 학술적 가치
2. 《周易正義》 번역을 마치고
  - 1) 《周易正義》의 특징
  - 2) 古注와 新注의 차이

### 1. 十三經注疏의 학술적 가치

十三經注疏의 학술적 가치는, 우선 동아시아 사상사에서 十三經이라는 경서가 누렸던 독보적 지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十三經이라는 명칭은 宋代에 처음 사용되었고, 十三經注疏가 한 질의 책으로 合刊된 것도 南宋 昭熙 연간입니다. 十三經에 포함된 각 경서들의 가치가 역사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十三經이라는 합칭이 성립하기까지, 적어도 漢代 이후의 사람들은 五經·七經·九經·十二經 등의 합칭을 사용하며, 그 안에 속한 경서들을 특별히 존송해왔습니다. ‘經’이라는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아시아인들은 이 경서가 불변의 진리를 담고 있으며 모든 문헌의 토대가 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사상과 철학을 논할 때, 십삼경을 빼고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서는 주석 없이 읽기가 매우 힘듭니다. 문리가 난잡해서 해석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혹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경서를 읽을 적에는 주석서의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십삼경에 속하는 경서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이에게 존송을 받은 책이므로 수많은 주석서가 있습니다. 십삼경주소는 여러 종의 주석 중에 대표적 주석을 뽑아 묶은 것입니다. 물론 주석의 선정에 있어 당시에 異見이 있기도 했고, 하나의 주석을 대표 주석으로 선정함으로써 생긴 폐해도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번역한 《周易正義》는 孔穎達이 王弼의 주석을 注로 선정하고 철저하게 王弼의 說만을 따랐는데,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이것이 疏家の 通例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때문에 鄭玄 등 諸家の 여러 학설이 모두 폐지되었다.’고 논하고, “文句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대부분 공허한 말을 사용하여, 다른 여러 經의 《正義》가 典籍을 근거하여 本末이 찬란한 것만 못하니, 그렇다면 王輔嗣(王弼)의 注만을 따르고 옛글을 쓸어버려서 인용할 만한 옛 뜻이 없어진 것이니, 또한 고증한 疏가 아니다.[至於詮釋文句 多用空言 不能如諸經正義根據典籍 源委粲然 則由王注 掃棄舊文 無古義之可引 亦非考證之疏矣]”라고 평하였습니다. 이러한 폐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십삼경주소가 오랜 시간 많은 학자들에게 십삼경의 대표 주석으로 수용되고 중시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십삼경주소를 곁에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2. 《周易正義》 번역을 마치고

### 1) 《周易正義》의 특징

秦나라의 焚書 때, 《周易》은 占筮하는 책이라 하여 불태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전수하는 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구의 역사가 단절 없이 이어져온 것입니다. 孔穎達은 <周易正義序>에서 《주역》을 전한 자를 나열하며, “西漢에는 丁寬·孟喜·京房·田王孫이 있었고, 東漢에는 荀爽·劉表·馬融·鄭玄이 있었는데, 대체로 서로 祖述한 것이고 뛰어난 자가 있지 않았다.”고 평하고는, “오직 魏나라 王輔嗣(王弼)의 注는 유독 古今에 으뜸이다.”라고 단정하였습니다. 또 “이제 勅命을 받들어 刪定하면서, 일을 고찰함은 반드시 仲尼로써 宗主를 삼고 義理를 밝힘은 먼저 王輔嗣로 근본을 삼았으니, 이는 화려함을 제거하고 실재를 취해서 진실하여 증거가 있고자 해서이다. 문장이 간략하고 이치가 요약되니, 적으면서도 많은 것을 制裁하고 변하여 능히 통할 수 있을 것이다.[今既奉勅刪定 考察其事 必以仲尼爲宗 義理可詮 先以輔嗣爲本 去其華而取其實 欲使信而有徵 其文簡 其理約 寡而制衆 變而能通]”라고 하였습니다.

공영달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周易正義》는 철저하게 왕필이 사용한 의리를 가지고 경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왕필이 사용한 의리는 무엇인가?’ 혹은 ‘의리를 가지고 《주역》을 해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하는 것입니다.

《주역》의 해석과 연구의 경향은 크게 象數易과 義理易으로 나뉩니다. 《주역》을 占書로 보면서, 그 占辭를 해석함에 象과 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열이 象數易 계통이라면, 《주역》을 만사만물의 이치를 담고 있는 義理書로 보면서, 經文을 해석함에 주로 의리를 사용하는 계열은 義理易 계통입니다. 특히 義理易學에서는 《주역》의 경문,

즉 卦辭와 爻辭를 해석할 적에 <彖傳>과 <象傳> 등의 十翼을 적극 활용합니다. 이를 위해 의리역학자들은 경문 아래에 <단전>과 <상전>을 잘라 붙인 편집체제를 선호하는데, 이러한 편집체제를 ‘今易’이라 합니다. 애초에 《주역》은 경과 십익이 각각의 책으로 통용되었으므로, 경문 아래에 십익을 잘라 붙인, 이 새로운 체제에 ‘今’ 자를 가한 것입니다. 반면 경과 십익이 분리되어 있는, 본래의 편집체제를 ‘古易’이라고 합니다.

왕필은 今易의 편집방식을 취하여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의리를 사용하여 경문을 해석하고, 象數易學을 배척하였습니다. 왕필이 상수역학을 배척한 이유는 그의 저작 《周易略例》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수이론은 고정된 상과 수를 제시하기 때문에 변화를 위주로 하는 易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낼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 상수역학자들의 이론 적용이 자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왕필은 의리역학자의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영달은 ‘소는 주를 깨뜨리지 않는다.[疏不破注]’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왕필의 말을 一字一句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역정의》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왕필의 의리에 의거하여 《주역》을 해석하였음’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 2) 古注와 新注의 차이

저는 《周易》의 新注라고 할 수 있는, 《周易傳義》를 20여 년 전 完譯한 바 있습니다. 《주역전의》는 程伊川의 《易傳》과 朱子の 《本義》를 合本한 책입니다. 이번에 《周易正義》를 번역하면서, 특별히 《주역정의》의 해석이 《주역전의》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를 譯註에서 밝혀 주었고, 이로써 古注와 新注를 비교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우선 ‘後出者明’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온 설이 더 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 동아시아의 학술 전통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의 학자들은 선배 학자들의 학술 성과를 존중해서 이를 깊이 연구하고 수용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온 학설은 대체로 앞에 나온 학설을 충분히 수용하고 거기에 더 세세한 분석을 더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후출자가 더 분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필과 공영달의 해석보다 정이천과 주자의 해석이 더 분명한 부분이 발견되는 것은 아마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던 《주역》 연구의 두 계열을 가지고 논해보면, 정이천은 의리역에 속하고 주자는 의리와 상수를 절충한 절충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집체제에 있

어서도 정이전은 금역의 체제를 따르고 주자는 고역의 체제를 따랐습니다. 주자는 정이전을 평소 존중했으며, 《역전》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주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맨 첫부분인 乾卦의 卦辭부터 크게 다릅니다. 정이전은 왕필의 今易을 따라 元亨利貞을 ‘元하고 亨하고 利하고 貞함’, 즉 四德으로 풀이하였으나, 주자는 “元亨하고 利貞하니라”로 풀이하였습니다. 왕필과 정이전은 孔子의 십익인 <彖傳>에, 주자는 文王이 지었다는 繫辭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자도 “독자들은 두 가지 모두 각기 뜻에 따라 보는 것이 옳다.” 하였습니다.

주자와 달리, 왕필과 정이전은 모두 今易 체제를 따랐고 의리를 가지고 《주역》을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왕필의 《주역》 해석과 정이전의 《주역》 해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상사·철학사에서 왕필의 학문은 도가철학·玄學으로 분류되고, 정이전의 학문은 유가철학·性理學으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왕필이 《주역》을 해석하면서 사용한 의리는 도가적 의리일 것이고, 정이전이 사용한 의리는 유가적 의리일 것이며, 이 두 의리의 차이로 인해 두 사람의 경문 해석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번역을 진행하면서 검토해본 결과, 물론 경문 해석에 있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꽤 많았지만, 서로 다른 의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라고 꼽을 만한 것은 10건 미만이었습니다. 또 그 사례들 역시, 復卦의 “復에서 천지의 마음을 볼 수 있다.[復 其見天地之心乎]”는 말에 대한 해석을 제외하고는, 의리의 차이가 대체로 미묘한 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필의 의리와 정이전의 의리가 완전히 부합한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주자는 “역은 본래 점을 치는 책이므로 후인들은 다만 점치기 위한 책이라고 여겼었는데 왕필에 이르러 노장을 가지고 해석해서 후인들은 다만 도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고 복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 또한 잘못이다.[易本卜筮之書 後人以爲止於卜筮 至王弼 用老莊解 後人便只以爲理而不以爲卜筮 亦非]”라고 하여, 왕필이 老莊을 가지고 《주역》을 해석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왕필의 주석과 정이전의 주석을 비교해보면, 왕필의 의리와 정이전의 의리 사이의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현학과 성리학이 공유하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을지도 모릅니다. 《사고전서총목제요》에서도 “왕필이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 대부분 공허한 말을 사용하였다.”고 비판하고, 주자 역시 왕필이 老莊思想으로 易을 해석하였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살펴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탐구하는 것은 철학·사상을 연구하는 분들의 몫입니다. 이 탐구에 《周易正義》 번역서가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조강연]

## ‘古注’와 ‘新注’의 조화와 균형으로 儒學의 道를 이 시대에 다시 밝혀야

李 光 虎  
(연세대 명예교수)

1. 유교문화에서 ‘經’이란 무엇인가?
2. 유교경전의 기본은 6경이다
3. 5경에서 13경으로 되다
4. 성리학의 발흥과 ‘新注’의 탄생
5. 유학에서의 사실인식과 가치인식의 균형과 조화의 문제

### 1. 유교문화에서 ‘經’이란 무엇인가?

서구에서는 학문과 철학과 종교가 분리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교에서는 학문과 철학과 종교가 분리되지 않는다. 유교문화의 총 유산을 집대성한 《四庫全書》에서는 經史子集의 체계로 모든 典籍을 분류한다. 모든 학문은 경을 정점으로 삼아 통일을 이룬다. 무엇을 經이라고 하는가? 班固의 《白虎通》은 경을 ‘常’ 즉 常道라 해석하였으니 변화를 넘어 바뀔 수 없는 常道を 경이라 한 것을 알 수 있다. 유교문화 전통에서 經은 모든 학문의 으뜸이며 축이었다. 서구의 과학과 서구문화가 밀려들며 유교문화권의 이러한 정신과 학문 체계가 거의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객관적 물질세계를 대상화하여 연구하는 과학이 발전하여 인간의 주체인 정신문화가 부정되며, 인류는 삶의 방향을 상실하여 지구촌의 문화가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듯한 현대의 상황에서는 유교문화의 ‘經’ 즉 ‘변화를 넘어 바뀔 수 없는 常道’를 담고 있는 유교경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재인식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 2. 유교경전의 기본은 6경이다

공자는 “敍書傳禮記, 刪詩正樂, 序易彖繫象說卦文言, …作春秋”함을 통하여 《書》, 《禮》, 《詩》, 《樂》, 《易》, 《春秋》라는 유교의 육경을 통일하였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통하여 공자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한 유가학파는 孟子和 荀子를 거치며 학파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진시황제의 焚書坑儒로 유학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학자는 죽임을 당하거나 은둔하고 경전은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漢의 武帝가 유교를 숭상하며 경전의 발굴과 훈고학적 연구를 통하여 유학은 다시 흥기하였다. 漢代의 경학은 그때의 문자로 기록된 今文을 숭상하는 今文經學과 공자의 벽에서 나온 古文을 숭상하는 古文經學으로 나누어졌다. 고문경학자들은 6경이 공자가 조술한 책이라고 보았는데, 금문경학자들은 육경이 모두 공자가 창작한 저술이라고 보며 공자를 초월적 성인으로 숭배하였다. 《春秋三傳異同說》을 짓고, 여러 경전을 주석하여 訓詁學의 祖上으로 알려진 馬融(79~166)을 師事한 後漢 末의 鄭玄(127~200)은 금문과 고문에 다 밝아 《儀禮》, 《周禮》, 《禮記》 등의 禮 三書를 주석하고 그 밖에도 《周易》, 《尚書》, 《毛詩》, 《論語》, 《孝經》 등을 주석하여 經學의 시조로 존경받았다. 육경 가운데 다른 경전은 찾아서 거의 복원하였으나 樂은 사라져 이후 유학의 경전은 오경이 되었다. 위진남북조와 수당대에는 불교와 도교가 중국의 사상계를 지배하였다.

## 3. 5경에서 13경으로 되다

동한 시대에는 《孝經》과 《論語》를 더하여 7경이 되었다. 당나라 때는 《禮》가 나뉘어 《儀禮》, 《周禮》, 《禮記》가 되었고, 《春秋》가 나뉘어 《左傳》, 《公羊》, 《穀梁》이 되었고, 거기에 《易》, 《書》, 《詩》가 더해져 9경이 되었다. 송나라에 와서는 또 《論語》, 《孟子》, 《爾雅》, 《孝經》이 더해져 모두 13경이 되었다. 위진시대에 玄學이 성행하자 한대의 금문경학은 몰락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특히 ‘永嘉(307~312)의 난’ 이후 금문경은 모두 없어져 고문경만 남게 되었다.

唐의 太宗이 과거제를 실시하고 관료제를 시행하며 유교 경전은 다시 중시되기 시작하였다. 경전이 여러 파로 나뉘어져서는 선비를 선발하기 힘들므로 당태종은 孔穎達(574~648)에게 《五經正義》를 짓게 하였다. 공영달은 태종의 명을 받아 王弼의 《周易注》에 소를 하여 《주역정의》를 짓고, 孔安國의 《尚書傳》에 소하여 《상서정의》를 짓고, 毛亨의

《傳》과 정현의 《箋》에 소하여 《모시정의》를 짓고, 정현의 《주》에 소하여 《예기정의》를 짓고, 杜預의 《집해》에 소하여 《春秋左氏傳正義》를 지었다. 이후 당의 賈公彥(?)은 정현의 《주》에 소하여 《주례정의》를 짓고, 정현의 《주》에 소하여 《의례정의》를 짓고, 당의 徐彥(?)은 漢 何休의 《解詁》에 소하여 《春秋公羊傳正義》를 짓고, 당의 楊士勛은 范甯의 《집해》에 소하여 《春秋穀梁傳正義》를 지었다. 송의 邢昺(932~1010)은 당 현종의 《御注》에 소하여 《孝經正義》를 짓고, 何晏의 《集解》에 소하여 《논어정의》를 짓고, 郭璞의 《注》에 소하여 《爾雅正義》를 짓고, 송의 孫奭(962~1033)은 趙岐의 《注》에 소하여 《맹자정의》를 지었다. 《13경정의》는 이처럼 주에 소를 다는 형식을 동일하게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심삼경주소》라고도 불린다. 《심삼경주소》는 宋代 초기에 완성되었으나 전질로 간행한 것은 송말에 시작되어 명·청대로 이어졌다. 《심삼경주소》는 공영달이 천명한 “疏는 注를 넘지 못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경학을 통일하여 텍스트로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었다. 《심삼경정의》 또는 《심삼경주소》는 가장 우수한 주석서를 선택하여 거기에 소를 붙여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경전 연구의 기본 텍스트이다. 《심삼경주소》의 주해는 송대의 성리학 이후에 나오는 ‘新注’와 구별하여 ‘古注’라고 부른다.

#### 4. 성리학의 발흥과 ‘新注’의 탄생

위진 시대와 수당 시대에는 불교와 도교가 성행하였다. 과거제와 《오경정의》의 유포로 유학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차츰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唐 末 韓愈는 「原道」와 「原性」을 짓고 제자인 李翱는 「復性書」를 지어 불교를 비판하고 유학을 철학적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하였다. 五代 十國의 혼란기를 거쳐 중원을 통일한 송 태조 趙匡胤은 공자 존숭을 표방하고 國子監을 세워 유학을 장려하자 孫復, 石介, 胡瑗 등이 이에 응답하여 유학을 발전시켰다. 송학은 당시에 성행하던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으며 한편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철학을 매우 중시하였다. 周敦頤는 《주역》에 기초하여 「太極圖」와 「太極圖說」, 그리고 《通書》를 저술하고 그의 제자인 程顥와 程頤는 道學을 제창하고 張載는 太虛인 氣를 강조하였다. 南宋의 朱熹는 이를 집대성하여 성리학의 체계를 완성하였다. 이들은 《주역》을 기초로 이기론의 철학체계를 갖추고, 《대학》과 《중용》을 《예기》로부터 독립시켜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이라는 사서의 체제를 만들었다. 이들은 도통을 중시하여 공자로부터 증자와 자사와 맹자로 이어지는 도통론에 기초하여

사서를 오경보다 중시하였다. 주희는 이를 위하여 《대학장구》, 《중용장구》, 《논어집주》, 《맹자집주》라는 새로운 주석서를 저술하였다. 이들이 새롭게 구축한 성리학은 원과 명으로 이어져 명대에는 胡廣 등이 永樂帝의 명을 받아 《四書大全》, 《五經大全》과 《性理大全》을 편찬하며 古注로 된 《십삼경주소》에 대한 관심이 차츰 사라지며 경전 연구의 균형을 잃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청대에 고증학이 일어나 고주로 된 《십삼경주소》가 다시 중시되었으나 조선의 경우에는 성리학이 국가의 이념이 되어 《십삼경》에 대한 연구는 18세기 이후 茶山 丁若鏞과 李圭景 등의 실학자들에 의하여 다시 시작되었다.

## 5. 유학에서의 사실인식과 가치인식의 균형과 조화의 문제

유학은 현실적 삶을 중시한다.

현실적 삶을 중시하되 현실에 빠지지 않는다는.

현실에 바탕을 둔 이상의 실현, 현실과 이상의 조화는 유학의 이상이다.

현실 세계는 사실의 세계이며 이상적 세계는 가치의 세계이다.

현실과 이상, 사실과 가치의 조화와 균형은 유학의 이상이다.

中和 中和와 中庸은 유학의 이상을 대표하는 유학의 상도이다.

그래서 堯舜 이래 중과 중화와 중용은 항상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다.

“君子素其位而行，不願乎其外.(《중용》 14장)”라는 말만 보면 유학은 현실적 삶에 만족하는 것 같지만 “君子無入而不自得焉”을 보면 유학은 현실에 안주하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서 지선을 인식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이상주의 사상이다.

유학의 이상이 이 둘의 균형과 조화라고 하지만 유학이 처한 시대적 상황, 또는 유학자 개인적 취향에 따라 선택되는 경우도 흔히 있었다. 분서갱유라는 미증유의 환란을 당하여 유학자는 물론 유학의 경전들마저 불타 없어진 상황에서는 없어진 경전을 찾아 경전을 복원하고 경전의 정확한 사실적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이었다. 漢代의 훈고학은 분서갱유가 낳은 역사적 필연이었다. 實事求是는 이 시대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유학의 구호였다.

삼국시대와 위진남북조를 거치며 오랜 전쟁으로 삶과 정신이 피폐하게 되어 각종 종교

가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었다. 중원을 다시 통일한 당나라는 관료제를 이용하여 나라의 번영을 구가하였다. 능력있는 관료를 선발하기 위하여 과거제가 확립되고 과거제가 확립되자 과거시험의 텍스트로 삼을 경전을 정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었다. 훈고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석서 가운데 가장 우수한 주석을 뽑아 소를 달아 《오경정의》를 저술하기에 이르렀다. 《오경정의》의 정신을 이어받아 《십삼경주소》는 송대 초기에 완성된 유학 경전에 대한 훈고를 중시하는 실사구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당나라 때는 불교가 가장 성한 시기였으며 불교의 흥성에 따라 도교의 세력도 확장되었다.

불교와 도교가 성대한 세력을 형성한 가운데 전통사상에 기초하여 이를 극복하려는 신유학 사상이 탄생하였다. 신유학은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으며 탄생하여 이 두 사상을 넘어서야 하는 역사적 필요성에서 유학의 가치인 의리를 무엇보다도 중시하였다. 이들은 한대의 유학을 字句에 얽매이는 文字學이라 비판하고 당대의 유학은 文章學 詞章學이라고 비판하며 성리학을 일으켰다.

《십삼경주소》의 고주는 유학에서 사실에 대한 고찰을 중시하며 《사서대전》과 《오경대전》의 신주는 의리 곧 가치에 대한 성찰을 중시한다. 고주와 신주는 유학이 중시하는 사실과 가치라는 유학의 한쪽 날개를 맡고 있다. 유학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쪽 날개가 모두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유학은 고려말 이후 성리학을 도입하며 흥성하기 시작하여 조선 왕조는 성리학을 국학으로 중시하였다. 훈고학의 경험과 전통이 축적되지 않은 가운데 성리학만의 중시로는 유학이 관념적 학문에 흐를 위험성이 적지 않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이다. 과학은 사실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4차산업시대란 우주가 가진 사실적 법칙에 대한 연구를 극한으로 발전시켜 자연을 인간이 기술로 조작하는 시대를 의미한다. 과학을 이해하려면 사실과 사실인식이 무엇인지 더욱 철저하게 이해해야 한다. 사실중시의 훈고학 정신은 과학 중시의 정신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한편 유학은 사실 세계에 안주하지 않는다. 과학은 인류가 지향할 인간 삶의 가치를 제시할 수 없다. 유학의 가치지향의 정신은 과학이 접근하지 못하는 인간의 가치문제를 밝혀 미래 인류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사실과 가치의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유학은 한학과 성리학의 조화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과학과 유학의 조화로 인류의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상으로 거듭나야 한다. 《십삼경주소》의 실사구시의 정신과 《사서오경대전》의 도학적 정신은 유학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찾아 현대 과학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사상의 창출로 나아가야 한다. 이 시대에 유학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과 책임은 막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제발표 1]

## 近四十年中國大陸關於“十三經注疏”的白話翻譯· 校點整理狀況回顧暨未來展望

沙 志 利

(北京大學《儒藏》編纂與研究中心 副研究員)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引言</li> <li>2. 《十三經》的白話翻譯</li> <li>3. “十三經注疏”的校點整理</li> <li>4. 結語</li> </ol> |
|------------------------------------------------------------------------------------------------------------------------|

### <論文摘要>

从1980年以来，中国大陆对于儒家经典的整理与研究慢慢走出低谷，回顾40年中“十三经注疏”的白话翻译、校点整理，都取得了不菲的成就。本文第一部分略举“十三经”白话翻译类中代表性的作品，对它们的成就进行概述，对其不足进行分析，并在此基础上提出两种可以尝试的工作方向。第二部分则历数近40年中影响和规模较大的几套对于“十三经”清人注疏、白文本、经注疏本、经注本四种文本形态进行校点整理的丛书，也涉及一些零散的品种，总结已有的成绩，尤其是对在研的九个项目进行了简略介绍，从中可以看出“十三经注疏”校点整理的发展趋势。

<关键词>：十三经注疏 白话翻译 校点整理

## 1. 引言

这次会议的主题是东洋经典的翻译问题。狭义的“翻译”当然是指不同语言之间的等义转换，但我们平时也把将文言文翻译成现代的书面语言——白话文的工作称作“翻译”，或“白话翻译”，我这里讲的“翻译”就是第二种含义。如果顺着这个思路推广，古代经典每经过几个世代，口头语言就会发生改变，经典的传、注、疏等注释作品，尤其是“疏”中串讲文意的部分，也承担了将古典作品翻译为时人能懂的书面语言的任务，这与今天的“白话翻译”类似。需要声明的是，本文“白话翻译”的外延不包括这一部分。本文所谓

“校点整理”，是指校勘众本、撰写校记并施以现代标点以形成新的读本，过去只加句读的整理方式也不在论述范围内。会议组织者还想让我重点介绍《儒藏》的情况，我想把《儒藏》放在儒家经典整理的大背景里来稍加详细地介绍。

## 2. 《十三經》의 白話翻譯

随着80年代初，中国大陆从反传统的思潮中渐渐走出，不绝如缕的中国古典研究也重新焕发生机，对于儒家经典的整理也渐有起色。我对80年代初到当下的《十三经》的白话翻译作品作了一个概略的统计(少量版本溢出了这个时间范围，但均在这个时间范围内大量再版，影响广泛)。之所以称“概略”，是因为这类作品太多，很多专业的古籍出版社或较大的综合出版社均出版了大量作品，而我一来受限于检索手段，不易搜罗全面；二来我也只想把其中影响较大的挑出来，涸泽而渔式的统计似乎意义不大。具体的调查结果见下表：

| 经名          | 书名             | 作者                   | 出版社, 年        |
|-------------|----------------|----------------------|---------------|
| 周易<br>(13种) | 周易今注今译         | 南怀瑾 徐芹庭              | 天津古籍, 1987    |
|             | 周易译注与考辨        | 宋祚胤                  | 湖南人民, 1987    |
|             | 白话易经           | 南怀瑾 徐芹庭              | 岳麓, 1988      |
|             | 周易译注           | 黄寿祺 张善文              | 上海古籍, 1989    |
|             | 周易古经白话解        | 刘大钧 林忠军              | 山东友谊, 1989    |
|             | 易经(五经全译本)      | 陈襄民                  | 中州古籍, 1991    |
|             | 周易全译           | 徐子宏                  | 贵州人民, 1991    |
|             | 周易译注           | 周振甫                  | 中华书局, 1991    |
|             | 周易注释           | 芮执俭                  | 敦煌文艺, 2001    |
|             | 白话易经           | 秦磊                   | 三秦, 2003      |
|             | 周易经传译注         | 王博 王得友 李申<br>郑万耕 廖明春 | 湖南教育, 2004    |
|             | 周易译注           | 韩立平                  | 上海三联, 2014    |
|             | 易经译注           | 赵安军                  | 团结, 2015      |
| 尚书<br>(11种) | 尚书译注           | 王世舜                  | 四川人民, 1982    |
|             | 尚书易解           | 周秉钧                  | 岳麓, 1984      |
|             | 今古文尚书全译        | 江灏, 钱崇武              | 贵州人民, 1990    |
|             | 书经(五经全译)       | 陈襄民                  | 中州古籍, 1991    |
|             | 尚书译注           | 顾宝田                  | 吉林文史出版社, 1995 |
|             | 尚书译注           | 李民 王健                | 上海古籍, 2000    |
|             | 尚书(中华传世名著精华丛书) | 罗庆云 戴红贤              | 书海, 2001      |
|             | 尚书校释译论         | 顾颉刚 刘起釪              | 中华书局, 2005    |
|             | 尚书今注今译         | 屈万里                  | 新世界, 2011     |
|             | 尚书(三全本《四书五经》)  | 郭丹                   | 中华书局, 2019    |
|             | 尚书(全注新译精讲)     | 钱宗武 秦力               | 江苏人民, 2019    |

| 經名            | 書名            | 作者          | 出版社, 年      |
|---------------|---------------|-------------|-------------|
| 詩經<br>(21種)   | 詩經全譯          | 袁愈葵 唐莫堯     | 貴州人民, 1981  |
|               | 詩經譯注          | 江萌香         | 中國書店, 1982  |
|               | 詩經譯注          | 祝敏徹 等       | 甘肅人民, 1984  |
|               | 詩經全譯          | 金啟華         | 江蘇古籍, 1984  |
|               | 詩經譯注          | 袁梅          | 齊魯書社, 1985  |
|               | 詩經譯注          | 程俊英         | 上海古籍, 1985  |
|               | 詩經全譯注         | 樊樹云         | 黑龍江人民, 1986 |
|               | 詩經今注今譯        | 楊任之         | 天津古籍, 1986  |
|               | 詩經(五經全譯本)     | 葛培嶺         | 中州古籍, 1991  |
|               | 詩經譯注          | 李子偉         | 蘭州大學, 1992  |
|               | 詩經譯注          | 韓崢嶸         | 吉林文史, 1995  |
|               | 詩經新注全譯        | 唐莫堯         | 巴蜀書社, 1998  |
|               | 詩經全譯全評        | 李家聲         | 華文, 2001    |
|               | 詩經譯注          | 周振甫         | 中華書局2002    |
|               | 詩經譯注          | 姚小鷗         | 當代世界, 2009  |
|               | 詩經譯注          | 向熹          | 商務, 2013    |
|               | 詩經譯注          | 蘇培干         | 廣西人民, 2013  |
|               | 詩經譯注          | 張俊綸         | 崇文書局, 2014  |
|               | 詩經譯注評         | 楊合鳴         | 崇文書局, 2016  |
|               | 詩經譯注          | 靳勇 周益鋒      | 國家出版社, 2018 |
|               | 詩經(三全本)       | 王秀梅         | 中華書局, 2018  |
| 周禮<br>(6種)    | 周禮今注今譯        | 林尹          | 書目文獻, 2001  |
|               | 周禮(國學基本叢書)    | 錢玄          | 岳麓, 2001    |
|               | 周禮譯注          | 楊天宇         | 上海古籍, 2004  |
|               | 周禮譯注          | 呂友仁         | 中州古籍, 2004  |
|               | 周禮(全本全注全譯)    | 徐正英 常佩雨     | 中華書局, 2018  |
|               | 周禮(全注新譯精講)    | 錢興奇 謝秉洪 王華寶 | 江蘇人民, 2019  |
| 儀禮<br>(4種)    | 儀禮譯注          | 楊天宇         | 上海古籍, 1994  |
|               | 儀禮譯注          | 李景林 邵漢明 王素玲 | 吉林文史, 1995  |
|               | 儀禮全譯          | 彭林          | 貴州人民, 1997  |
|               | 儀禮(全注新譯精講)    | 尚學峰         | 江蘇人民, 2019  |
| 禮記<br>(9種)    | 禮記今注今譯        | 王夢鷗         | 天津古籍, 1988  |
|               | 禮記譯注          | 楊天宇         | 上海古籍, 1997  |
|               | 禮記譯解          | 王文錦         | 中華書局, 2001  |
|               | 禮記譯注          | 潛苗金         | 浙江古籍, 2007  |
|               | 禮記全譯          | 呂友仁 呂咏梅     | 貴州人民, 2009  |
|               | 禮記通譯          | 俞仁良         | 上海辭書, 2010  |
|               | 禮記            | 胡平生 張萌      | 中華書局, 2018  |
|               | 禮記(三全本《四書五經》) | 郭丹          | 中華書局, 2019  |
|               | 禮記(全注新譯精講)    | 錢興奇         | 江蘇人民, 2019  |
| 春秋左氏傳<br>(9種) | 左傳譯文          | 沈玉成         | 中華書局, 1981  |
|               | 白話左傳          | 馮作民         | 岳麓, 1989    |
|               | 左傳全譯          | 王守謙 等       | 貴州人民, 1990  |
|               | 春秋左傳(五經全譯本)   | 張文學 管曙光     | 中州古籍, 1991  |
|               | 白話左傳          | 楊伯峻 徐提      | 岳麓, 1993    |
|               | 文白對照左傳全譯      | 張燕瑾 主編      | 國際文化, 1993  |

| 经名            | 书名             | 作者         | 出版社, 年       |
|---------------|----------------|------------|--------------|
|               | 左传译注           | 李梦生        | 上海古籍, 1998   |
|               | 春秋左传译注         | 鲁开泰        | 武汉, 1998     |
|               | 左传(三全本)        | 郭丹 程小青 李彬源 | 中华书局, 2018   |
| 春秋公羊传<br>(4种) | 春秋公羊传译注        | 王维堤, 唐书文   | 上海古籍, 1997   |
|               | 春秋公羊传全译        | 梅桐生        | 贵州人民, 1998   |
|               | 春秋公羊传译注        | 刘尚慈        | 中华书局, 2010   |
|               | 春秋公羊传(全本全注全译)  | 黄铭 曾亦      | 中华书局, 2018   |
| 春秋穀梁传<br>(2种) | 春秋穀梁传译注        | 承载         | 上海古籍, 1999   |
|               | 春秋穀梁传(全本全注全译)  | 徐正英 邹皓     | 中华书局, 2016   |
| 论语<br>(20种)   | 论语译注           | 杨伯峻        | 中华书局, 1960   |
|               | 论语注译           | 孙钦善        | 巴蜀, 1991     |
|               | 论语译注           | 金良年        | 上海古籍, 1995   |
|               | 论语(中国古代哲学精典)   | 陈国庆        | 陕西人民, 1996   |
|               | 白话论语           | 陈枫 文晖      | 三秦, 1997     |
|               | 论语(国学基本丛书)     | 杨伯峻 杨逢彬    | 岳麓, 2000     |
|               | 论语全译           | 阎韬 马智强     | 江苏古籍, 2000   |
|               | 论语(中华传世名著精华丛书) | 程昌明        | 书海, 2001     |
|               | 论语通译           | 刘琦         | 吉林文史, 2003   |
|               | 论语译注           | 郑民         | 浙江人民, 2005   |
|               | 论语(三全本)        | 陈晓芬        | 中华书局, 2011   |
|               | 论语(国学经典译注丛书)   | 胡长青        | 山东画报, 2012   |
|               | 论语本解           | 孙钦善        | 三联, 2013     |
|               | 论语译注           | 方家元        | 武汉大学, 2014   |
|               | 论语译注           | 邹憬         | 上海三联书店, 2015 |
|               | 论语(中国传统文化教育读本) | 杨逢彬        | 河南大学, 2017   |
|               | 论语新注           | 孙钦善        | 中华书局, 2018   |
|               | 论语译注本          | 钱小北        | 江苏凤凰文艺, 2018 |
|               | 论语大学 中庸译注      | 杨逢彬 欧阳祯人   | 华东师范大学, 2018 |
|               | 论语译注           | 顾振彪 刘全志    | 吉林出版集团, 2018 |
| 孝经<br>(8种)    | 孝经译注           | 胡平生        | 中华书局, 1996   |
|               | 孝经译注           | 汪受宽        | 上海古籍, 1998   |
|               | 孝经注译           | 宫晓卫        | 齐鲁书社, 2009   |
|               | 孝经全译           | 吕友仁 吕咏梅    | 贵州人民, 2009   |
|               | 孝经译注           | 侯仰军        | 中国文史, 2012   |
|               | 孝经译注           | 贾德永        | 上海三联书店, 2013 |
|               | 孝经正译           | 赵缺         | 岳麓, 2014     |
|               | 孝经(国学经典典藏版)    | 顾迁         | 中州古籍, 2017   |
| 尔雅<br>(3种)    | 尔雅译注           | 胡奇光, 方环海   | 上海古籍, 1999   |
|               | 尔雅全译           | 吴荣爵 吴畏     | 贵州人民, 2000   |
|               | 尔雅(三全本)        | 管锡华        | 中华书局, 2014   |
| 孟子<br>(13种)   | 孟子译注           | 杨伯峻        | 中华书局, 1960   |
|               | 孟子今译           | 刘方元        | 江西人民, 1985   |
|               | 孟子通译           | 陈器之        | 湖南大学, 1989   |

| 经名 | 书名             | 作者      | 出版社, 年     |
|----|----------------|---------|------------|
|    | 孟子译注           | 金良年     | 上海古籍, 1995 |
|    | 孟子全译           | 李申      | 巴蜀, 2001   |
|    | 孟子(国文珍品文库)     | 王立民     | 吉林文史, 2001 |
|    | 孟子(中华传世名著精华丛书) | 熊海英 佳仁  | 书海, 2001   |
|    | 白话孟子           | 陈洪海 冉万里 | 三秦, 2003   |
|    | 孟子(中华经典藏书)     | 万丽华 杨旭  | 中华书局, 2006 |
|    | 孟子译注           | 郑训佐 靳永  | 齐鲁书社, 2009 |
|    | 孟子译注           | 陈涛      | 线装书局, 2010 |
|    | 孟子译注           | 王琪      | 商务, 2015   |
|    | 孟子(三全本)        | 方勇      | 中华书局, 2015 |

根据上面的统计, 可以看出如下特点。

首先, 从诸经翻译本的数量上来看, 计有:《周易》13种,《尚书》11种,《诗经》21种,《周礼》6种,《仪礼》4种,《礼记》9种,《左传》9种,《春秋公羊传》4种,《春秋穀梁传》2种,《论语》20种,《孝经》8种,《尔雅》3种,《孟子》13种。这种数量上的差异可以从各经的特点加以解释。①《诗经》《论语》最多。《论语》自古就是蒙学教育的读本, 是了解孔子的第一要籍, 是塑造中国国民精神的第一要籍;《诗经》则是《十三经》中文学性最强的, 或者说文字最美的典籍, 所以需求最为旺盛。两种书还有一个共同点, 就是历代注家的派别最多, 解释的发散性最强, 所以, 在已有较有影响的整理本出版之后, 还会有从不同角度进行阐释翻译的作品陆续出现, 而不显得重复。②《周易》《孟子》《尚书》较多。《周易》是最古老最神秘的哲学, 文字古奥难解, 也是解释流派较多的作品, 但一般读者也很难断定是非, 往往敬而远之, 所以翻译本不如《诗经》《论语》多, 但也很可观。《孟子》文字晓畅, 受众面广, 在儒学入门读物中地位仅次于《论语》。《尚书》则是最古老的史书。还有一点, 三书都部头不大, 因此翻译作品的数量都很可观。③再次则为《左传》《礼记》《孝经》, 即两部部头最大的要籍(意味着工作量巨大)和一部最小的经典(字数太少, 不易单独成书)。④再次为《周礼》《仪礼》《公羊》, 属于较为专门和生僻的学问。⑤最后是《尔雅》《穀梁》。《尔雅》是字典, 本身不具备可翻译性, 但竟然也有三种译本。《穀梁》应该是历代被关注最少的经典, 在《春秋》三传中也被认为是淡泊寡味的。

其次, 从出版时间上看, 如果按每十年一个阶段来观察, 除《仪礼》《周礼》《礼记》《公羊》《穀梁》《孝经》《尔雅》启动稍晚, 各经在四个时段上作品数量比较均匀。这说明经学作品的翻译, 读者群庞大而且稳定, 学者也一直在努力。最近三五年, 各经译文似乎又出现一个小高潮。

再次，从翻译质量上来讲，一般来说，上海古籍出版社与中华书局有较好的口碑，能保证起码的质量，更有像王文锦的《仪礼译解》与顾颉刚、刘起釭的《尚书校释译论》这样的典范作品。其他出版社也不乏有好的译本，就我的阅读范围而言，王世舜的《尚书》、袁梅的《诗经》、吕友仁的《周礼》、彭林的《仪礼》、杨伯峻的《左传》、孙钦善的《论语》都是不错的版本，然而上表开列的大多数书是我所未读的，不敢妄论。

最后，从整理队伍上来看，早期的整理者以出版社的老编辑与高校古典文献学专业的学者为主，其学术训练多出自建国后的科班教育，少数耆德宿学则有家学的底子。最近十年的整理者，则以八十年代以后古文献专业培养的学者为主。这当然只是一个大概的划分，并不严格。

下面我想妄谈这批书的成就与不足。之所以说“妄谈”，因为上揭作品我大多都未读过。就我略有了解的几本书来看，我觉得这些作品对于普及经典知识，尤其是向非专业的青年普及较为正确的古典知识，起到了非常大的作用。我想，有不少大学生最后走上古典研究的学术道路，这批书居功甚伟。但由于在经典翻译领域，读者需求旺盛，再加上出版业勃兴，为了降低成本，抢占市场，就有很多粗制滥造的作品(如用已有的译注本为底本，放弃很多文献学的工作不做，把精力放在对译文的改动上，或对多种译文进行比较重组，或不遵循学术的路子，对经文任意发挥，远远脱离传统的理解等等情况)，对于初学者有很大害处。例如，我中学时代读过的《周易》《诗经》译本，现在已记不起书名了，但回想起来，都是很不规范的读本。上列作品应该是众多译本中比较可靠的，但也不是没有问题，我想提出三点意见：

①前文之所以说“较为正确”，是因为对经典作品的解释谁都不可能做到绝对正确，尤其是经过了六七十年代近20年的学术低潮期，对于前人的成果缺乏全面的继承，一时恢复不到较高的研究水平。上述不少作品囿于“六经皆史”学术思潮的影响，不把经书作为一个有机的整体来看待，不能说充分吸收汉、唐、宋代、清代几个经学研究高峰时代的成果，而是较为看重近人的成果。近人在自己著作中提出的意见，甚至是假说，经过一次引证，往往就被看作比较主流的定见。也就是说，有不少作品没有在广泛参考前人成果的基础上率尔操觚，造成参考的基础比较狭隘，对传统说法武断地加以否定，这甚至可以说是一段时期内译注本的主流做法。

②很多译注本在通行解释的基础上，也有亮点，或积极吸收新的研究成果，或采纳清人某些校改意见，但往往只是点的突破，缺乏面的关联，建立不起自己的解释体系，其后果是把经典碎片化，义理层面的内容缺乏一以贯之的主线。

③未来即使对历代经注疏的内容进行了较为彻底的校勘和研究之后，也很难想象会有一种权威的白话翻译定本的出现。经学的发展史以无比丰富的材料证明了经典本身所具有的解释的发散性、多歧性特征，这就决定了很难有一种新的经说能够取得学界全体的

认同，而白话翻译作品恰恰只能取一种明晰的解释作为自己的意见，因此也就不可能有白话翻译的定本出现。说到底，这是由经典原文意涵的发散性、多歧性与白话翻译作品意涵的单一性之间的矛盾所决定的。

针对前期的成就与不足，我对今后的译注工作提供两个可能的方向，不当之处，请大家批评。

①简本的专题译解。就每一种经典，在古代众多经说中选取自成一家之言的几种，分别按照原书忠实地进行今注今译，这样就能为读者提供古代某一经典解释的简本，便于普通读者或研究者成体系地了解一个学派的解经主张及思想取向。这样做，既可以避免自出胸臆之病，又可以通过几本书更具体精微地反映出学术流变。

②繁本的全面译解。以顾颉刚、刘起釪先生的《尚书校释译论》的写法为典范，在广泛占有资料、充分研究的基础上，对历史上各种聚讼不已的问题进行清算，然后以简驭繁，写一本现代学术眼光下提纲挈领、层次清晰、按断清楚、自成一家的最为前沿的翻译本。当然，这样的著作，对于研究者的学术素养和研究能力有比较高的要求，其结论也不可能成为唯一定论，但这可以作为高精尖学术作品的一种呈现方式。

### 3. “十三經注疏”的校点整理

“十三经注疏”的整理工作，起步比白话翻译要晚。下文大体上按照时间的顺序，叙述几种影响较大的丛书，也包括有一些独立出版的品种。限于见闻，我搜集得很不全面，但相信也大体能够看出“十三经注疏”校点整理的趋势和走向了。

#### 1) 中華書局的“十三經清人注疏”

“十三经清人注疏”不属于我们题目中所说的唐宋《十三经注疏》，但是中华书局的这套丛书影响较大，且我认为它对《十三经注疏》的整理起了道夫先路的推动作用，所以作为特例在这里略作介绍。这套丛书所包含的具体作品如下(加“●”者为未出版者，下同)：

| 书名      | 作者  | 校点者    | 初版年  |
|---------|-----|--------|------|
| 周易集解纂疏  | 李道平 | 潘雨廷    | 1994 |
| 尚书今古文注疏 | 孙星衍 | 陈抗 盛冬玲 | 1986 |
| 尚书孔传参正  | 王先谦 | 何晋     | 2011 |
| ●诗毛氏传疏  | 陈奂  |        |      |
| 毛诗传笺通释  | 马瑞辰 | 陈金生    | 1989 |
| 诗三家义集疏  | 王先谦 | 吴格     | 1987 |

| 书名       | 作者   | 校点者         | 初版年  |
|----------|------|-------------|------|
| 周礼正义     | 孙诒让  | 王文锦 陈玉霞     | 1987 |
| ●仪礼正义    | 胡培翬  |             |      |
| 礼记训纂     | 朱彬   | 饶钦农         | 1995 |
| 礼记集解     | 孙希旦  | 沈啸寰 王星贤     | 1989 |
| 礼书通故     | 黄以周  | 王文锦         | 2007 |
| 大戴礼记补注   | 孔广森  | 王丰先         | 2013 |
| 大戴礼记解诂   | 王聘珍  | 王文锦         | 1983 |
| ●左传旧注疏证  | 刘文淇等 |             |      |
| 春秋左传诂    | 洪亮吉  | 李解民         | 1987 |
| 公羊义疏     | 陈立   | 刘尚慈         | 2017 |
| 穀梁古义疏    | 廖平   | 邵积意         | 2012 |
| 春秋穀梁经传补注 | 钟文烝  | 骈宇騫 郝淑慧     | 1996 |
| 论语正义     | 刘宝楠  | 高流水         | 1990 |
| 孝经郑注疏    | 皮锡瑞  | 吴仰湘         | 2016 |
| 孟子正义     | 焦循   | 沈文倬         | 1987 |
| 尔雅义疏     | 郝懿行  | 王其和 吴青峰 张金霞 | 2017 |
| 尔雅正义     | 邵晋涵  | 李嘉翼 祝鸿杰     | 2017 |

这套丛书计划收书23种，从1983年至今已陆续整理出版20种，还有《诗毛氏传疏》《仪礼正义》《左传旧注疏证》三种难度较大的稿子没有问世。为什么清人注疏的校点整理会早于唐宋注疏，我想是可以解释的。就像清代经学的发展，从反对明代经学而上溯到宋代经学，再进而上溯到汉唐经学一样，当一种学术开始复兴的时候，总是从接近自己的时代向上追溯，沿流溯源。其次，从整理难度上讲，清人的著作对很多唐宋注疏中的疑难进行了梳理，下了按断，做了取舍，在整理清人著作的时候，相当于清理了历代的科研成果，对于科研大有裨益。再者，清人著作的版本简单，一般有两三个版本就算多的了，不少书仅有一种版本，这大大降低了校勘工作量，在一定意义上也更方便操作，反倒比唐宋注疏容易整理。

因体例精善、质量上乘，这套丛书在经学研究领域享有很高的地位，对于近40年的经学研究起到了良好的推动作用。当然，还有三种书没有出版，但别家出版社已有可以代替的选项，《仪礼正义》有江苏古籍出版社以及北大《儒藏》精华编的整理本，《诗毛氏传疏》也有北大《儒藏》与凤凰出版社的整理本，《左传杜注疏证》有三家正在整理，近期广陵古籍出版社会推出扬州大学文学院郭院林教授的整理本，《儒藏》本则会在2022年推出。

## 2) “十三經”白文本

清人注疏启动之后，在八十年代末、九十年代初，出现了几种《十三经》白文标点本，据我的了解，影响比较大的有：

- ①白文本《左传》，杨伯峻前言，蒋冀骋标点，岳麓书社，1988年。
- ②白文本《周礼·仪礼·礼记》，沈凤笙前言，陈戍国点校，岳麓书社，1989年。
- ③白文本《四书五经》，陈戍国校点，岳麓书社，1991年。
- ④《十三经》(标点本)，北京燕山出版社，1991年。其校点者如下表：

| 经名    | 整理者     |
|-------|---------|
| 周易    | 吴树平 骈宇騫 |
| 尚书    | 刘起鈞     |
| 毛诗    | 吴树平 骈宇騫 |
| 周礼    | 王文锦     |
| 仪礼    | 王文锦     |
| 礼记    | 王文锦     |
| 春秋左传  | 杨伯峻     |
| 春秋公羊传 | 任德山     |
| 春秋穀梁传 | 魏连科     |
| 论语    | 杨伯峻     |
| 孝经    | 任德山     |
| 尔雅    | 魏连科     |
| 孟子    | 杨伯峻     |

这几种白文本多由当时各领域内的一流学者亲自校点或担任指导，质量可靠，便于读者从整体上把握《十三经》、诵读《十三经》。对于研究者来说，白文本为查检经文提供了很大的方便，有数量不多但比较稳定的读者群。最近，燕山出版社准备重印这套书，因为老版校对不精，错字较多，新版会有一些完善的工作。

### 3) “十三經注疏”的現代整理

#### (1) 北京大學出版社2000年版《十三經注疏》

在白文本之后，唐宋《十三经注疏》的整理便提上了日程。率先做出尝试的是北京大学出版社，由著名学者李学勤先生主编，于2000年推出了大陆第一个全文《十三经注疏》整理本。各经校点者及审定者如下。

| 经    | 校点者    | 审定者 |
|------|--------|-----|
| 周易正义 | 卢光明 李申 | 吕绍刚 |
| 尚书正义 | 廖明春 陈明 | 吕绍刚 |

| 经       | 校点者                    | 审定者 |
|---------|------------------------|-----|
| 毛诗正义    | 龚抗云 李传书 胡渐逵<br>肖永明 夏先培 | 刘家和 |
| 周礼注疏    | 赵伯雄                    | 王文锦 |
| 仪礼注疏    | 彭林                     | 王文锦 |
| 礼记正义    | 龚抗云                    | 王文锦 |
| 春秋左传正义  | 浦卫忠 龚抗云 胡遂<br>于振波 陈咏明  | 杨向奎 |
| 春秋公羊传注疏 | 浦卫忠                    | 杨向奎 |
| 春秋穀梁传注疏 | 夏先培                    | 杨向奎 |
| 论语注疏    | 朱汉民                    | 张岂之 |
| 孝经注疏    | 邓洪波                    | 钱逊  |
| 尔雅注疏    | 李传书                    | 徐朝华 |
| 孟子注疏    | 廖明春 刘佑平                | 钱逊  |

20年前, 这套书是一项了不起的工程。在此之前, 大家使用中华书局或上海古籍出版社影印的世界书局拼版缩印本, 书卷厚重, 字小行密, 且无标点, 非常不便于阅读, 更遑论标点、笔记? 这一整理本的推出, 极大的方便了学者阅读、使用, 尤其是这套书通过繁体竖排、简体横排两种形式同时推出, 简体本还分别定价发售, 更是扩大了影响范围。从整理团队来看, 这套书由当时经学领域的中青年专家承担校点任务, 学殖深厚的老一辈学者承担审定工作。虽然后来学界有不少文章指摘整理中的问题, 如以阮刻本为底本, 标点、校勘也普遍存在诸多问题, 但这套书开风气之先的地位是毫无疑问的, 不容轻易否定。

## (2) 上海古籍出版社“十三经注疏”整理本

2007年以降, 上海古籍出版社陆续推出了张岂之主编的《十三经注疏整理本》。详目如下:

| 经       | 校点者     | 出版年  |
|---------|---------|------|
| ●周易注疏   |         |      |
| 尚书正义    | 黄怀信     | 2007 |
| 毛诗注疏    | 朱杰人 李慧玲 | 2013 |
| 周礼注疏    | 彭林      | 2010 |
| 仪礼注疏    | 王辉      | 2018 |
| 礼记正义    | 吕友仁     | 2008 |
| ●春秋左传   |         |      |
| 春秋公羊传注疏 | 刁小龙     | 2014 |
| ●春秋穀梁传  |         |      |
| ●论语     |         |      |
| 孝经注疏    | 金良年     | 2009 |

| 經    | 校點者 | 出版年  |
|------|-----|------|
| 爾雅注疏 | 王世偉 | 2010 |
| ●孟子  |     |      |

序言中说，这套书动议于1992年，迟至2007年才推出第一种，至今尚有5种书未见出版。这套书针对阮刻本的缺陷，在选择底本方面颇下功夫，“或采用八行本为底本，或以宋早期单注、单疏本重新拼接，或取晚出佳本为底本，在尽量恢复宋本原貌的基础上，整理出一套新的整理本”(张岂之《序》)。就目前所出各种来看，学界反响不错，尤其是《礼记正义》《春秋公羊传注疏》等颇获好评，但也有专门的文章批评其中某些书有破句多、校勘不精等缺点。

### (3) 《儒藏》精華編介紹暨“十三經注疏”的整理

《十三经注疏》的另一种整理本就是《儒藏》精华编中的版本，虽然未以“十三经注疏”为名作为一套丛书推出，而是被纳入《儒藏》的分类体系之内，但事实上品种齐全。会议组织者让我重点介绍一下《儒藏》的情况，我就将《儒藏》的整体进展及经部书的整理情况向大家汇报。

《儒藏》工程自2003年启动，分为两步，第一步先编纂《儒藏》精华编，之后再做《儒藏》全编。“精华编”中国部分收书500余种，共282册。2009年出版至40册，2014年至100册，2018年至160册，2020年至240册，还剩40余册，预计在2022年全部出版推出。

《儒藏》精华编并不是按照册号顺序出版，而是提前按照预估字数分好册，成书一册即出版一册。就经部来说，收书近190种，时间范围从先秦到清朝，涵盖了经学在各个时期比较有代表性的作品。如前面所列中华书局“十三经清人注疏”，《儒藏》基本也都收录了。宋明经学的作品，《儒藏》也大量收录。唐宋的《十三经注疏》更是重点，其校点者及出版时间如下：

| 經      | 校點者     | 出版年  |
|--------|---------|------|
| 周易注    | 陈绍燕 王同印 | 2009 |
| 周易正义   | 赵荣波     | 2009 |
| 尚书正义   | 周栗      | 2014 |
| 毛诗注疏   | 郑杰文 孔德凌 | 2010 |
| ●周礼注疏  |         |      |
| 仪礼注疏   | 彭林      | 2016 |
| 礼记正义   | 吕友仁     | 2016 |
| 春秋左传正义 | 浦卫忠     | 2016 |
| 春秋公羊传  | 浦卫忠     | 2014 |

| 经     | 校点者    | 出版年  |
|-------|--------|------|
| 春秋穀梁传 | 浦卫忠    | 2010 |
| 论语注疏  | 陈新 沙志利 | 2007 |
| 孝经注疏  | 赵四方    | 2018 |
| 尔雅注疏  | 顾宝田    | 2012 |
| 孟子注疏  | 刘丰     | 2016 |

唐宋《十三经注疏》中，还有一种《周礼注疏》目前正在审稿过程中，其他十二中皆已出版。这套书的特点是，尽量选用较好的底本，如《周易注疏》为了利用单疏本，而将经注本与单疏本作为两种书收入。其他也有一大半选用了宋本，如《春秋左传正义》《论语注疏》《孟子注疏》均是大陆首次选用宋本为底本的校点本。《尚书正义》《周礼注疏》也选用宋八行本为底本。当然，也有因为资料难以获取或者组织方面的原因，而继续选用了阮刻本作底本，未能尽如人意，这和《儒藏》作为一个大工程的总体要求有关。由于体例是为整个精华编500多种书服务的，无法对重点图书进行单独规定，所以很难做到尽善尽美。由此造成的问题还体现在校勘上，《儒藏》精华编体例要求每种书除选择好的底本之外，只需再精选两三种版本作为校本，以对校为主，出校坚持少而精，以校正误为主，酌校异同。这就造成有很多有校勘价值的版本没有被纳入到校本中来，很多底本正确而校本错误的异文没有写到校记中，在版本和校勘方面限制了这套书的成就。虽然有上述缺点，但《儒藏》精华编在排版校对、标点把关等方面痛下功夫，逐步树立了文字可靠、校点质量高、版式疏朗等良好口碑。

除以上三套《十三经注疏》之外，还有一些零散的品种。如我的同事于天宝先生校点的《宋本周易注疏》(中华书局，2018年)，以日本足利学校所藏八行本为底本，校以《四部丛刊》影印宋抚州公使库刻经注本。这一整理本的特点也是在版本方面追求精善，在某种程度上补足了《儒藏》本将《周易注疏》分为两书的遗憾。

#### (4) 正在進行之中的《十三經注疏》專題校勘、深度校勘與標點整理

除以上各书之外，我所知道的《十三经注疏》专题校勘、深度校勘、标点整理的工作还有七家值得关注，下面分别予以介绍。

一，南京师范大学文学院方向东教授对阮刻本《十三经注疏》进行了校点整理，他将阮刻本系统中的几个版本进行互校，取舍异同，要做一部阮刻定本。据闻书稿已交中华书局，近两年会整体推出。这就是上文所谓“专题校勘”整理。

二，山东大学文学院杜泽逊教授于2012年启动了“十三经注疏汇校”项目，这套书以万历北监本为底本，汇校唐石经、后蜀石经以及自宋代以降的各种版本(包括白文本、经注

本、单疏本、注疏本等)，意在梳理历代版本源流、为学界提供全面的版本异文、为以后整理定本打下基础。2018年4月，第一种成果《尚书注疏汇校》由中华书局出版，颇获学界好评。

三，北京大学中文系顾永新教授的《周易经传注疏校勘记》。此书“力求广蒐博采各种载体的《周易》文本及古今中外的相关校勘成果，加以客观去取，审慎按断，去伪存真，择善而从，旨在建构精准、完善的《周易》经文、传文、注文、疏文以及《释文》《略例》的定本”（顾永新《〈周易·乾卦〉经传注疏校勘记》，载《经学文献学研究》上册第99页，北京大学出版社，2019年10月）。该书一部分成果已经如上揭。

四，南京师范大学文学院王锸教授长期浸淫于三礼研究，目前正在从事的《礼记注疏长编》项目，以中华书局影印阮刻本《附释音礼记注疏》六十三卷为底本，迻录经注疏文，标点分段；然后选取卫湜《礼记集说》、吴澄《礼记纂言》以降十三家《礼记》专书的注解，分别整理，汇编于相应经文之后。2018年12月，广陵书社出版了第一期成果《曲礼注疏长编》。这项工作已经包含了《礼记正义》的标点整理在内。此外，据闻王教授对于《礼记正义》早有整理本，但一直不能满意，陆续修订，只限于内部读书使用。近期则新获清和坤翻刻宋十行本《礼记正义》，有意据此为底本汇校标点《礼记正义》，值得期待。

五，南京师范大学文学院杨新勋教授《论语注疏》的汇校整理工作，目前已经基本完成，处于修订阶段，出版时间尚未确定。

六，福建师范大学经学研究所郜积意教授的团队正在整理《春秋》三传的注疏。其中郜积意教授整理《春秋公羊传注疏》，陈殿教授整理《左传正义》、简逸光教授整理《春秋穀梁传注疏》。据闻《公羊传注疏》的整理工作已经接近尾声，出版时间未定。

七，陕西师范大学瞿林江教授正在从事《尔雅注疏》的汇校整理工作，目前整理工作已基本完成，出版时间未定。

从以上项目可以看出，《十三经注疏》的整理正走向纵深，即对传世版本进行全面汇校，然后再进一步选定最优的文字，整理为定本。这是《十三经注疏》校点整理工作最主流的趋势。

#### 4) “十三經古注”的整理

##### (1) 已出版的零種

就我的见闻所及，十三经古注的整理本有以下几种：

一，《周易》王韩注三种：①《周易注》，楼宇烈校释，收入《王弼集校释》，中华书局，1980年。2011年单独以《周易注》为名，收入《易学典籍选刊》。②《周易王韩

注》，施伟青点校，岳麓书社，1993年。③周易注，《儒藏》精华编第1册，北京大学出版社，2009年。三本之中，楼先生的整理本在学界有着持久强大的影响，尤其是在古代哲学王弼研究的领域，是大家引据的首选版本。

二，《毛诗传笺》，孔祥军点校，中华书局，2018年。此书是近年经注整理的亮点，该书在比较众本的基础上，没有选择宋刻本，也没有选择阮刻本，而是选择了清代乾隆四十八年武英殿刻仿元相台本《毛诗传笺》为底本，广泛搜集了唐开成石经本、宋刊巾箱本、宋刊白文本、日本静嘉堂藏旧抄本、纂图本二种、宋十行本进行了通校，又以南宋刊单疏本《毛诗正义》、淳祐十二年刻《毛诗要义》、宋刻《吕氏家塾读诗记》、宋刻递修本《经典释文》等作为参校，慎下按断，达到了较高的水平，在学界反响很好。

三，《仪礼》，郑玄注，张尔岐句读，郎文行校点，方向东审定，上海古籍出版社，2016年。此书事实上是对张尔岐《仪礼郑注句读》的整理，而张著则是清儒对《仪礼郑注》分章、句读的整理成果，此书实际上是清儒整理成果的现代化形式，在目前缺乏《仪礼》郑注汇校本的情况下，为读者提供了较大的方便。

四，《春秋经传集解》，上海人民出版社，1977年。1988年，上海古籍出版社再版。未题整理者，当是以集体成果的面目出现。此书以《四部丛刊》影宋本为底本，部分错字根据别本改正，未出校记。自出版以来，不断再版再印，在学界影响很大，至今仍是学界引据的通行本。

五，《论语集解》，《儒藏》精华编第104册，孙钦善校点，北京大学出版社，2007年。此本是日本正平本《论语》在中国的第一个整理本。底本之外，此书校勘了皇疏系统、邢疏系统的善本，提供了《论语》流传中的重要异文，是一部高质量的整理本。但限于《儒藏》体例，未做汇校。

六，《尔雅》，浙江古籍，2011年，未题整理人。此书径取2000年北京大学出版社《尔雅注疏》为本，选取经注文出版。

这几种书中值得注意的是两年前出版的《毛诗传笺》，代表了经注本整理的新趋向，即汇校众本，呈现最优的文字。

## (2) 正在整理中“十三经古注”

一，北京大学《儒藏》中心王丰先承担的“十三经古注整理”项目，鄙人也参与其中，承担《尚书》《论语》，最近正在结项，近两年会交由中华书局出版。这套书的特点在于全面搜集传世版本，选定全部宋元本、部分后世刻本，进行校勘，并取《经典释文》、唐石经等异文，吸收历代学者尤其是清儒的考据成果，希望能为学界提供一套精善的经注本。

二，南京师范大学文学院王锸教授整理的《礼记郑注汇校》，据闻已交中华书局待出

版。另外，王先生还有计划在汇校的基础上，压缩校记，正定文字，撰写《礼记郑注定本》一书，值得期待。

### 5) “十三經注疏”整理的發展方向

《十三经》白文本、经注本、经注疏本，各有各的用处，都需要整理，而且应该多层次地进行整理。通过大略回顾近40年的整理状况，可以看出，随着经学研究的逐步深入，经典的整理也逐步细致化。较早开展的是内容比较丰富但版本较少、整理相对容易的清人解经成果，然后是白文本，再次是注疏本的整理，最后则是经注本的整理。虽然启动有早晚，但不管是白文本还是经注本、经注疏本都在向着更加精细的层次推进。这一点在经注疏本的整理上表现得尤其明显：在80年代，学界普遍使用的是中华书局、上海古籍等出版社影印的世界书局拼版缩印本；随着对整理本的需求越来越迫切，学界先是校点整理了阮刻本(北大本)，然后又有专门搜求宋元善本为底本的整理本出现(《儒藏》本、上古本)；随着研究的精细化，尤其是版本研究方面的迅速进展，各种版本的影印、数字化资源的公布，使得学者探求版本之间的复杂关系成为可能，从而又倒逼更细致的校勘、更细微的经义探索，于是出现了搜集所有经书版本进行汇校整理的项目。上述各种在研项目中，很多就是要以这种穷尽式的校勘为基础对经注疏进行再次整理的项目。尤其是北京大学顾永新教授的《周易经传注疏校勘记》，不但收集了各种有校勘意义的版本，而且把历代学者的校勘意见也加以罗列，可以说是目前最为精细的整理模式。这种精细化的整理模式就是当前阶段《十三经注疏》整理的主流趋势，也是符合学术发展规律的一个必然方向。

除此之外，还有一个发展方向值得注意，就是杜泽逊教授在《尚书注疏汇校》项目之后要推出《尚书注疏》定本，王锴教授在《礼记郑注汇校》之后要推出《礼记郑注》定本，顾永新老师也要推出类似日本学者《尚书正义定本》式的《周易正义》定本，这种定本虽然以繁琐的校勘考据为基础，但在出版形式上要摆脱繁琐，为学界提供一部经过考据批判的可信度高的简本。

## 4. 結語

以上就是我对近40年中国大陆学界“十三经”的白话翻译工作以及“十三经注疏”的校点整理工作的简单回顾，以及根据这种回顾所总结的发展趋势。其中很多是趋势是不言自

明的，但有一点似乎可算是我的一家之见，即白话翻译可以考虑选取古代经学作品中有代表性的、成体系的一家或几家来着手。不知这样一番梳理是否符合会议对我的要求，希望能对大家有所帮助。

[주제발표 1](번역문)

## 최근 40년간 중국 ‘十三經注疏’ 口語번역 및 校點정리 현황에 대한 회고와 미래전망

沙 志 利

(북경대학 『儒藏』 편찬연구센터 연구원)

1. 들어가는 말
2. ‘十三經’의 구어 번역
3. ‘十三經注疏’의 校點 정리
4. 나오는 말

### <논문요약>

1980년 이후 중국대륙의 유가 經典 정리와 연구는 점차 곤경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최근 40년간 ‘十三經注疏’에 대한 구어 번역과 교점 정리 과정을 회고하면, 적지 않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글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十三經’ 구어 번역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들을 간략하게 들어 그 성과를 개괄하고 부족한 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두 가지 시도해 볼 만한 사업 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최근 40년 동안 영향력 있고 규모가 큰 몇 가지 ‘十三經’ 清代 注疏와 白文本·經注疏本·經注本の 네 가지 텍스트 형태에 대한 교점 정리를 시도한 총서들을 열거하고, 다른 산발적인 서적도 언급하여, 이미 거둔 성과를 총평하였다. 특히 연구 중에 있는 아홉 가지 항목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진행하여, 이를 통해 ‘十三經注疏’의 校點정리 발전 경향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어> 十三經注疏, 口語번역, 校點정리

## 1. 들어가는 말

동아시아 수 천 년의 역사 속에 유가경전 번역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협의의 ‘번역’은 당연히 다른 언어로 전환하는 것을 일컫지만, 文言體의 古文을 현대 書面語인 구어로 번역하는 것도 포함된다. ‘번역’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논리를 확장하면, 고대 경전은 매번 몇 세대를 거치면서 구어가 바뀌어서, 經典의 傳·注·疏 등의 주석, 특히 ‘疏’에서 문장 의미를 개괄하고 있는 부분은 고전 작품을 당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서면 언어로 번역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는 지금의 ‘구어 번역’과 유사하다. 다만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구어 번역’의 외연에 이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여기서 말한 ‘校点 整理’는 여러 판본을 교감하고 校記를 작성하며 현대 표점을 추가하여 새로운 讀本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 단지 구두를 추가하여 정리하던 방식은 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중국 《유장》 편찬 사업 상황을 유가경전 정리의 배경 속에서 상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2. ‘十三經’의 구어 번역

80년대 초반 중국대륙은 전통을 부정하던 과거 사조에서 점차 탈피하면서, 중국 고전 연구에 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고, 유가 經典 정리에 대한 수요 역시 점차 증가하였다. 8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十三經’ 구어 번역에 대해 개략적인 통계를 하고자 한다. 소량의 판본은 이 시기 범위를 넘어서지만, 대부분 이 기간에 재판된 것이어서 영향이 작지 않다. ‘개략’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종류의 서적이 너무 많아, 전문적인 고적 출판사나 비교적 큰 종합 출판사에서 이미 많은 관련서적을 출판하였음에도, 검색 수단에 제한을 받아 전면적인 모습을 수집하기 어려웠고, 또한 그 가운데 영향이 비교적 큰 서적만을 선택하고자 하여, 모든 것을 포괄하는 통계의 의미는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 經名          | 書名      | 作者      | 出版社, 年     |
|-------------|---------|---------|------------|
| 周易<br>(13种) | 周易今注今譯  | 南怀瑾 徐芹庭 | 天津古籍, 1987 |
|             | 周易譯注與考辨 | 宋祚胤     | 湖南人民, 1987 |
|             | 白話易經    | 南怀瑾 徐芹庭 | 岳麓, 1988   |
|             | 周易譯注    | 黃壽祺 張善文 | 上海古籍, 1989 |
|             | 周易古經白話解 | 劉大鈞 林忠軍 | 山東友誼, 1989 |

| 經名          | 書名             | 作者                   | 出版社, 年        |
|-------------|----------------|----------------------|---------------|
|             | 易經(五經全譯本)      | 陳襄民                  | 中州古籍, 1991    |
|             | 周易全譯           | 徐子宏                  | 貴州人民, 1991    |
|             | 周易譯注           | 周振甫                  | 中華書局, 1991    |
|             | 周易注釋           | 芮執儉                  | 敦煌文藝, 2001    |
|             | 白話易經           | 秦磊                   | 三秦, 2003      |
|             | 周易經傳譯注         | 王博 王得友 李申 鄭万耕<br>廖明春 | 湖南教育, 2004    |
|             | 周易譯注           | 韓立平                  | 上海三聯, 2014    |
|             | 易經譯注           | 趙安軍                  | 團結, 2015      |
| 尚書<br>(11种) | 尚書譯注           | 王世舜                  | 四川人民, 1982    |
|             | 尚書易解           | 周秉鈞                  | 岳麓, 1984      |
|             | 今古文尚書全譯        | 江灝, 錢崇武              | 貴州人民, 1990    |
|             | 書經(五經全譯)       | 陳襄民                  | 中州古籍, 1991    |
|             | 尚書譯注           | 顧宝田                  | 吉林文史出版社, 1995 |
|             | 尚書譯注           | 李民 王健                | 上海古籍, 2000    |
|             | 尚書(中華傳世名著精華叢書) | 羅慶云 戴紅賢              | 書海, 2001      |
|             | 尚書校釋譯論         | 顧頡剛 劉起鈞              | 中華書局, 2005    |
|             | 尚書今注今譯         | 屈万里                  | 新世界, 2011     |
|             | 尚書(三全本《四書五經》)  | 郭丹                   | 中華書局, 2019    |
|             | 尚書(全注新譯精講)     | 錢宗武 秦力               | 江蘇人民, 2019    |
| 詩經<br>(21种) | 詩經全譯           | 袁愈葵 唐莫堯              | 貴州人民, 1981    |
|             | 詩經譯注           | 江萌香                  | 中國書店, 1982    |
|             | 詩經譯注           | 祝敏徹 等                | 甘肅人民, 1984    |
|             | 詩經全譯           | 金啓華                  | 江蘇古籍, 1984    |
|             | 詩經譯注           | 袁梅                   | 齊魯書社, 1985    |
|             | 詩經譯注           | 程俊英                  | 上海古籍, 1985    |
|             | 詩經全譯注          | 樊樹云                  | 黑龍江人民, 1986   |
|             | 詩經今注今譯         | 楊任之                  | 天津古籍, 1986    |
|             | 詩經(五經全譯本)      | 葛培岭                  | 中州古籍, 1991    |
|             | 詩經譯注           | 李子偉                  | 蘭州大學, 1992    |
|             | 詩經譯注           | 韓崢嶸                  | 吉林文史, 1995    |
|             | 詩經新注全譯         | 唐莫堯                  | 巴蜀書社, 1998    |
|             | 詩經全譯全評         | 李家聲                  | 華文, 2001      |
|             | 詩經譯注           | 周振甫                  | 中華書局, 2002    |
|             | 詩經譯注           | 姚小鷗                  | 當代世界, 2009    |
|             | 詩經譯注           | 向熹                   | 商務, 2013      |
|             | 詩經譯注           | 蘇培干                  | 廣西人民, 2013    |
|             | 詩經譯注           | 張俊綸                  | 崇文書局, 2014    |
|             | 詩經譯注評          | 楊合鳴                  | 崇文書局, 2016    |
|             | 詩經譯注           | 靳勇 周益鋒               | 國家出版社, 2018   |
|             | 詩經(三全本)        | 王秀梅                  | 中華書局, 2018    |
| 周礼<br>(6种)  | 周禮今注今譯         | 林尹                   | 書目文獻, 2001    |
|             | 周禮(國學基本叢書)     | 錢玄                   | 岳麓, 2001      |
|             | 周禮譯注           | 楊天宇                  | 上海古籍, 2004    |
|             | 周禮譯注           | 呂友仁                  | 中州古籍, 2004    |
|             | 周禮(全本全注全譯)     | 徐正英 常佩雨              | 中華書局, 2018    |
|             | 周禮(全注新譯精講)     | 錢興奇 謝秉洪 王華宝          | 江蘇人民, 2019    |

| 經名                | 書名             | 作者          | 出版社, 年       |
|-------------------|----------------|-------------|--------------|
| 儀禮<br>(4种)        | 儀禮譯注           | 楊天宇         | 上海古籍, 1994   |
|                   | 儀禮譯注           | 李景林 邵漢明 王素玲 | 吉林文史, 1995   |
|                   | 儀禮全譯           | 彭林          | 貴州人民, 1997   |
|                   | 儀禮(全注新譯精講)     | 尚學峰         | 江蘇人民, 2019   |
| 禮記<br>(9种)        | 禮記今注今譯         | 王夢鷗         | 天津古籍, 1988   |
|                   | 禮記譯注           | 楊天宇         | 上海古籍, 1997   |
|                   | 禮記譯解           | 王文錦         | 中華書局, 2001   |
|                   | 禮記譯注           | 潛苗金         | 浙江古籍, 2007   |
|                   | 禮記全譯           | 呂友仁 呂咏梅     | 貴州人民, 2009   |
|                   | 禮記通譯           | 俞仁良         | 上海辭書, 2010   |
|                   | 禮記             | 胡平生 張萌      | 中華書局, 2018   |
|                   | 禮記(三全本《四書五經》)  | 郭丹          | 中華書局, 2019   |
|                   | 禮記(全注新譯精講)     | 錢興奇         | 江蘇人民, 2019   |
| 春秋左氏<br>傳<br>(9种) | 左傳譯文           | 沈玉成         | 中華書局, 1981   |
|                   | 白話左傳           | 馮作民         | 岳麓, 1989     |
|                   | 左傳全譯           | 王守謙 等       | 貴州人民, 1990   |
|                   | 春秋左傳(五經全譯本)    | 張文學 管曙光     | 中州古籍, 1991   |
|                   | 白話左傳           | 楊伯峻 徐提      | 岳麓, 1993     |
|                   | 文白對照左傳全譯       | 張燕瑾 主編      | 國際文化, 1993   |
|                   | 左傳譯注           | 李夢生         | 上海古籍, 1998   |
|                   | 春秋左傳譯注         | 魯開泰         | 武漢, 1998     |
|                   | 左傳(三全本)        | 郭丹 程小青 李彬源  | 中華書局, 2018   |
| 春秋公羊<br>傳<br>(4种) | 春秋公羊傳譯注        | 王維堤, 唐書文    | 上海古籍, 1997   |
|                   | 春秋公羊傳全譯        | 梅桐生         | 貴州人民, 1998   |
|                   | 春秋公羊傳譯注        | 劉尚慈         | 中華書局, 2010   |
|                   | 春秋公羊傳(全本全注全譯)  | 黃銘 曾亦       | 中華書局, 2018   |
| 春秋穀梁<br>傳<br>(2种) | 春秋穀梁傳譯注        | 承載          | 上海古籍, 1999   |
|                   | 春秋穀梁傳(全本全注全譯)  | 徐正英 鄒皓      | 中華書局, 2016   |
| 論語<br>(20種)       | 論語譯注           | 楊伯峻         | 中華書局, 1960   |
|                   | 論語注譯           | 孫欽善         | 巴蜀, 1991     |
|                   | 論語譯注           | 金良年         | 上海古籍, 1995   |
|                   | 論語(中國古代哲學精典)   | 陳國慶         | 陝西人民, 1996   |
|                   | 白話論語           | 陳楓 文暉       | 三秦, 1997     |
|                   | 論語(國學基本叢書)     | 楊伯峻 楊逢彬     | 岳麓, 2000     |
|                   | 論語全譯           | 閻韜 馬智強      | 江蘇古籍, 2000   |
|                   | 論語(中華傳世名著精華叢書) | 程昌明         | 書海, 2001     |
|                   | 論語通譯           | 劉琦          | 吉林文史, 2003   |
|                   | 論語譯注           | 鄭民          | 浙江人民, 2005   |
|                   | 論語(三全本)        | 陳曉芬         | 中華書局, 2011   |
|                   | 論語(國學經典譯注叢書)   | 胡長青         | 山東畫報, 2012   |
|                   | 論語本解           | 孫欽善         | 三聯, 2013     |
|                   | 論語譯注           | 方家元         | 武漢大學, 2014   |
|                   | 論語譯注           | 鄒憬          | 上海三聯書店, 2015 |
|                   | 論語(中國傳統文化教育讀本) | 楊逢彬         | 河南大學, 2017   |

| 經名          | 書名             | 作者       | 出版社, 年       |
|-------------|----------------|----------|--------------|
|             | 論語新注           | 孫欽善      | 中華書局, 2018   |
|             | 論語譯注本          | 錢小北      | 江蘇鳳凰文藝, 2018 |
|             | 論語大學 中庸譯注      | 楊逢彬 歐陽禎人 | 華東師範大學, 2018 |
|             | 論語譯注           | 顧振彪 劉全志  | 吉林出版集團, 2018 |
| 孝經<br>(8種)  | 孝經譯注           | 胡平生      | 中華書局, 1996   |
|             | 孝經譯注           | 汪受寬      | 上海古籍, 1998   |
|             | 孝經注譯           | 宮曉衛      | 齊魯書社, 2009   |
|             | 孝經全譯           | 呂友仁 呂咏梅  | 貴州人民, 2009   |
|             | 孝經譯注           | 侯仰軍      | 中國文史, 2012   |
|             | 孝經譯注           | 賈德永      | 上海三聯書店, 2013 |
|             | 孝經正譯           | 趙缺       | 岳麓, 2014     |
|             | 孝經(國學經典典藏版)    | 顧遷       | 中州古籍, 2017   |
| 爾雅<br>(3種)  | 爾雅譯注           | 胡奇光, 方环海 | 上海古籍, 1999   |
|             | 爾雅全譯           | 吳榮爵 吳畏   | 貴州人民, 2000   |
|             | 爾雅(三全本)        | 管錫華      | 中華書局, 2014   |
| 孟子<br>(13種) | 孟子譯注           | 楊伯峻      | 中華書局, 1960   |
|             | 孟子今譯           | 劉方元      | 江西人民, 1985   |
|             | 孟子通譯           | 陳器之      | 湖南大學, 1989   |
|             | 孟子譯注           | 金良年      | 上海古籍, 1995   |
|             | 孟子全譯           | 李申       | 巴蜀, 2001     |
|             | 孟子(國文珍品文庫)     | 王立民      | 吉林文史, 2001   |
|             | 孟子(中華傳世名著精華叢書) | 熊海英 佳仁   | 書海, 2001     |
|             | 白話孟子           | 陳洪海 冉万里  | 三秦, 2003     |
|             | 孟子(中華經典藏書)     | 万麗華 楊旭   | 中華書局, 2006   |
|             | 孟子譯注           | 鄭訓佐 靳永   | 齊魯書社, 2009   |
|             | 孟子譯注           | 陳濤       | 線裝書局, 2010   |
|             | 孟子譯注           | 王琪       | 商務, 2015     |
|             | 孟子(三全本)        | 方勇       | 中華書局, 2015   |

위의 통계에 근거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볼 수 있다.

첫째, 여러 경전 번역본의 수량으로 보면, 《周易》은 13종, 《尙書》는 11종, 《詩經》은 21종, 《周禮》는 6종, 《儀禮》는 4종, 《禮記》는 9종, 《春秋左氏傳》은 9종, 《春秋公羊傳》은 4종, 《春秋公羊傳》은 2종, 《論語》는 20종, 《孝經》은 8종, 《爾雅》는 3종, 《孟子》는 13종이 있다. 수량이 차이나는 이유는 각 經典이 지닌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① 《시경》과 《논어》가 가장 많다. 《논어》는 예로부터 蒙學교육 讀本이고, 공자를 이해하는 핵심 경전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핵심 고전으로 간주되어 왔다. 《시경》은 ‘十三經’ 가운데 문학성이 가장 뛰어나며, 문자도 아름다운 典籍으로 알려져 있어, 수요가 가장 많았다. 두 책은 역대 주석가의 분파가 가장 많고 해석의

다양성도 열려있어, 이미 영향력 있는 整理本이 출간된 후에도, 여전히 다른 시각에서 해석을 시도한 번역 서적들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② 《주역》과 《맹자》, 《상서》도 비교적 많다. 《주역》은 가장 오래되고 신비로운 철학으로, 문자도 오묘하고 난해하여 해석의 流派가 많은 서적이다. 일반 독자들도 시비를 가리기 어려워 종종 敬而遠之의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번역본이 《시경》과 《논어》보다 많지 않더라도 적지 않은 편이다. 《맹자》는 문자가 유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져, 유학 입문 도서 가운데 《논어》에 버금가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상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 서적이다. 이 세 책은 모두 분량이 많지 않아, 번역 작품의 수량 또한 많은 편에 속한다.

③ 《좌전》과 《예기》는 분량이 가장 많고 작업 양이 거대한 핵심 典籍이고, 《효경》은 글자 수가 적어 단독으로 책을 이루기 어려운 최소 경전이다.

④ 《주례》와 《의례》, 《춘추공양전》은 비교적 전문적이고 생소한 학문에 속한다.

⑤ 마지막으로 《이아》와 《춘추곡량전》이 있는데, 《이아》는 字典으로 자체에 번역할 내용이 없음에도, 흥미롭게 세 가지 번역본이 나와 있다. 《춘추곡량전》은 역대 가장 적은 관심을 받은 경전이라 할 수 있다. 《춘추》의 3가지 경전 가운데 가장 담백한 경전으로 인식되어 왔다.

둘째, 출판시기로 보면, 10년을 한 단위로 간주하여 고찰할 경우, 《의례》·《주례》·《예기》·《춘추공양전》·《춘추곡량전》·《효경》·《이아》가 조금 늦게 작업된 것을 제외하면, 각 경전은 4번째 단계에서 수량이 비교적 균일하게 되었다. 이는 경학 서적의 번역은 독자층이 방대하고 안정적이며, 학자들도 줄곧 노력해 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근 3~5년 사이 각 경전의 번역은 또 하나의 중흥을 맞고 있다.

셋째, 번역의 수준으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상해고적출판사와 중화서국은 비교적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 최소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 王文錦의 《儀禮譯解》와 顧頡剛·劉起釪의 《尚書校釋譯論》과 같은 대표적인 서적도 있다. 다른 출판사들도 적지 않은 좋은 번역본을 갖고 있는데, 王世舜의 《尚書》·袁梅의 《詩經》·呂友仁의 《周禮》·彭林的 《儀禮》·楊伯峻의 《左傳》·孫欽善의 《論語》 등은 모두 훌륭한 판본이다.

넷째, 정리한 사람들을 보면, 초기 정리는 출판사의 원로 편집자와 대학의 고전문헌학 전공 학자들을 중심으로 작업하였다. 그들의 학술훈련은 대부분 건국 후 교과교육에서 이루어졌고, 소수 학식 있는 사람은 가학의 저변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 10년간의 정리는 80년대 이후 고문헌 전공에서 배양된 학자가 주축이 되었다. 물론 개략적인 구분에 불과하고 엄격하지 않다.

이제 번역본의 성과와 부족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하고자 한다. ‘조심스럽게 언급한다[妄談]’고 한 이유는, 위에서 제시한 서적 대부분을 자세히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해하

고 있는 몇몇 책들을 통해 보면, 이런 작품들은 특히 비전문적인 청년들에게 올바른 고전 지식을 보급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많은 대학생들이 고전 연구의 학술 진로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 서적들의 공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경전번역 분야에서 독자 수요가 많은데다 출판업도 번창하여, 원가를 낮추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날림으로 만든 작품들이 더러 있다. 기존 번역본만을 바탕으로 하여 문헌학 연구 작업을 소홀히 하거나, 번역문의 개정에만 주력하여 여러 번역본만을 비교하여 재구성하거나, 학술의 길을 걷지 않고 經文을 임의대로 응용하여 전통적인 이해에서 벗어나는 경우 등은 초학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 예를 들어, 중학교 때 읽었던 《주역》과 《시경》의 번역본은 제목이 기억나지 않지만 돌이켜보면 매우 부적절한 서적이었다. 위에 열거한 서적들은 아마도 여러 번역본 가운데 비교적 신뢰할 만한 작품이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세 가지 정도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앞에서 ‘비교적 정확하다’고 한 것은 경전 작품에 대한 해석을 누구도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60~70년대 거의 20년의 시간 동안 학문 저조기를 거치면서, 前人들의 성과에 대한 전면 계승이 미흡하여, 일시적으로 높은 연구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위에서 거론한 많은 서적들은 ‘육경이 모두 역사이다[六經皆史]’라는 학술 사조의 영향에 국한되어 경서를 유기적인 전체로 보지 않고, 한·당·송·청의 몇몇 경학 연구 절정 시기의 성과를 충분히 흡수하지 않으며 최근 학자의 연구 성과를 중시하고 있다. 최근 학자들이 자기 저서에서 제기한 의견이나 심지어 가설까지 한번 인용을 하고 나면, 종종 주류 정견으로 간주되곤 한다. 다시 말해 적지 않은 서적들이 이전의 성과를 폭넓게 참고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작업하여, 참고 자료의 토대가 협소하고, 전통적인 주장들을 독단적으로 부정하여, 이런 흐름이 한동안 譯注本의 주류 방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② 많은 역주본들은 통용되는 해석의 기초 위에서도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새로운 연구성과를 적극 수용하거나, 일부 청대 고증학자의 교정 의견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하지만, 종종 한 점에서만 특출 나고, 전반적으로 관련성이 없어 자체적인 해석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고전을 파편화하고 의리적 측면의 내용도 일관적인 흐름을 결여하는 문제점을 띄고 있다.

③ 설령 향후 역대 경전 주소의 내용에 대한 철저한 교정과 연구가 진행되더라도, 권위 있는 구어 번역이 나오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경학의 발전사는 매우 풍부한 자료로 경전 자체가 갖는 해석의 다양성을 입증해 왔다. 이는 새로운 경설이 학계 전체의 인정을 받기 어렵고, 구어 번역도 그저 명석한 해석으로 자기의 견해로 삼는 경우가 많아, 구어 번역 정본이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이것은 경전 원문 의미의 다양성과 구어 번역 의미의 단일성 사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에 의해 결정된다

고 할 수 있다.

이전 시기의 성과와 부족은, 이후의 역주 작업에 대해 두 가지 가능한 방향을 제시한다.

① 簡本の 전문 譯解이다. 경전 하나하나에 대해, 고대 여러 經說 가운데 一家를 이론 해석 몇 종류를 선별하여, 원서에 따라 충실히 今注와 今譯을 실시하면, 독자에게 고대의 어떤 경전 해석의 간본을 제공하여, 일반 독자나 연구자가 한 학파의 경전해석 관점과 사상 취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 억측을 쏟아내는 병폐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몇 권의 책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정미하게 학술 변화의 양상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② 繁本の 전면적인 역해이다. 顧頡剛·劉起釪 선생의 《尚書校釋譯論》의 필법을 모델로 자료를 광범위하게 갖추고,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역사상의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문제를 청산한 후 簡本の 방식으로 繁本 역해를 주도하면, 현대 학술적 안목으로 요령을 제시하고 단계를 명확히 하며 판단을 분명하게 하여, 일가를 이룬 선두의 번역본을 쓸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저작은 연구자의 학문적 소양과 연구능력에 대한 높은 요구를 하여, 결론도 유일한 정론이 될 수 없겠지만, 높은 수준의 정밀한 학술작품의 표현방식이 될 수 있다.

### 3. ‘十三經注疏’의 校点 정리

‘十三經注疏’의 교점 정리 사업은 구어 번역보다 늦게 시작되었다. 아래에서 대체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영향이 큰 총서 몇 종류와 독립적으로 출판된 서적 몇 권을 서술하고자 한다. 수집한 서적이 전면적인 것은 아니지만, ‘十三經注疏’ 교점 정리의 추세와 흐름을 대략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1) 中華書局 판본 청대 학자들의 ‘十三經注疏’

청대 고증학자들의 ‘十三經注疏’는 唐宋시기 ‘十三經注疏’에 속하지는 않지만, 중화서국의 이 총서는 영향력이 커서 ‘十三經注疏’ 교점 정리에 있어 앞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 총서에 포함된 구체적인 서적은 아래와 같다.(‘●’ 표기는 아직 출판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하 모두 동일하다.)

| 書名      | 作者  | 校点者    | 初版年  |
|---------|-----|--------|------|
| 周易集解纂疏  | 李道平 | 潘雨廷    | 1994 |
| 尚書今古文注疏 | 孫星衍 | 陳抗 盛冬玲 | 1986 |

|          |      |             |      |
|----------|------|-------------|------|
| 尚書孔傳參正   | 王先謙  | 何晋          | 2011 |
| ●詩毛氏傳疏   | 陳奐   |             |      |
| 毛詩傳箋通釋   | 馬瑞辰  | 陳金生         | 1989 |
| 詩三家義集疏   | 王先謙  | 吳格          | 1987 |
| 周礼正義     | 孫詒讓  | 王文錦 陳玉霞     | 1987 |
| ●儀禮正義    | 胡培翬  |             |      |
| 禮記訓纂     | 朱彬   | 饒欽農         | 1995 |
| 禮記集解     | 孫希旦  | 沈嘯寰 王星賢     | 1989 |
| 禮書通故     | 黃以周  | 王文錦         | 2007 |
| 大戴礼記補注   | 孔廣森  | 王丰先         | 2013 |
| 大戴礼記解詁   | 王聘珍  | 王文錦         | 1983 |
| ●左傳旧注疏證  | 劉文淇等 |             |      |
| 春秋左傳詁    | 洪亮吉  | 李解民         | 1987 |
| 公羊義疏     | 陳立   | 劉尚慈         | 2017 |
| 穀梁古義疏    | 廖平   | 郅積意         | 2012 |
| 春秋穀梁經傳補注 | 鐘文烝  | 駢宇騫 郝淑慧     | 1996 |
| 論語正義     | 劉寶楠  | 高流水         | 1990 |
| 孝經鄭注疏    | 皮錫瑞  | 吳仰湘         | 2016 |
| 孟子正義     | 焦循   | 沈文倬         | 1987 |
| 爾雅義疏     | 郝懿行  | 王其和 吳青峰 張金霞 | 2017 |
| 爾雅正義     | 邵晋涵  | 李嘉翼 祝鴻杰     | 2017 |

이 총서의 계획은 23종을 수집하는 것이었다. 1983년부터 현재까지 20종이 순차적으로 정리되어 출간되었으며, 《詩毛氏傳疏》·《儀禮正義》·《左傳舊注疏證》 3종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원고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청대 주석의 교점 정리가 당송 주소보다 먼저 이루어진 이유는, 청대 경학의 발달이 명대 경학에 반대하여 비롯된 것이고, 또한 위로 송대 경학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다시 한대 경학을 근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학술에 대한 열기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는 일반적으로 가까운 시대부터 시작하여 위로 거슬러 올라가 근원을 찾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교점 정리의 난이도로 보면, 청대 주석가의 저작은 많은 당송시대 주소의 난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취사선택하고 있다. 청대 학자들의 저작을 정리하면 역대 연구 성과를 상당부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 연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청대 학자들의 저작 판본은 간단하여 일반적으로 두세 개 판본이 있으면 많은 편에 속하고, 적지 않은 책들이 한 가지 판본만 가지고 있어, 교감 작업량을 크게 감소시켜, 어느 정도의 의미에서 조작이 용이하고, 唐宋 주소보다 오히려 정리하기가 쉽다고 할 수 있다.

체계도 정선되어 있고 수준도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총서들은 경학 연구 분야에서 높은 지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거의 40년간 경학 연구에 훌륭한 촉진 작용을 하고 있다. 물론 아직 세 가지 책은 출판되지 않았지만, 다른 출판사는 이미 대체 가능한 선택지를

갖고 있다.

《儀禮正義》는 江蘇古籍出版社와 북경대학 《儒藏》精華編의 정리본, 《詩毛氏傳疏》도 북경대학 《儒藏》과 鳳凰出版社의 정리본, 《左傳杜注疏證》은 3곳에서 정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廣陵古籍出版社는 揚州大學 文學院 郭院林 교수의 정리본을 출판하였고, 《儒藏》본도 2022년 출판될 예정이다.

## 2) ‘十三經’ 구어본

청대 학자들의 주소 정리작업이 시작된 후,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는 몇 종류의 ‘十三經’ 구어 校點本이 나왔는데, 비교적 영향이 컸던 서적은 다음과 같다.

- ① 구어본 《左傳》, 楊伯峻 前言, 蔣冀騁 點校, 嶽麓書社, 1988년.
- ② 구어본 《周禮·儀禮·禮記》, 沈鳳笙 前言, 陳戍國 點校, 嶽麓書社, 1989년.
- ③ 구어본, 《四書五經》, 陳戍國 校點, 嶽麓書社, 1991년.
- ④ 《十三經》(標點本), 北京燕山出版社, 1991년.

교점자는 아래와 같다.

| 經名    | 整理者     |
|-------|---------|
| 周易    | 吳樹平 駢宇騫 |
| 尚書    | 劉起鈞     |
| 毛詩    | 吳樹平 駢宇騫 |
| 周禮    | 王文錦     |
| 儀禮    | 王文錦     |
| 禮記    | 王文錦     |
| 春秋左傳  | 楊伯峻     |
| 春秋公羊傳 | 任德山     |
| 春秋穀梁傳 | 魏連科     |
| 論語    | 楊伯峻     |
| 孝經    | 任德山     |
| 爾雅    | 魏連科     |
| 孟子    | 楊伯峻     |

이 몇 종류의 구어본은 대부분 당시 각 분야의 일류 학자들이 직접 校點하거나 지도를 맡아, 수준이 높고 독자들이 ‘十三經’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낭독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연구자가 보기에 구어본은 經文 검색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많지 않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독자층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燕山出版社에서 이 책의 재판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전 판본의 교감이 정확하지 않고 오자가 많아, 새 판본은 보다 완성된 결과로 선보일 것이다.

### 3) 현대 ‘十三經注疏’ 정리

#### (1) 北京大學出版社 2000년 판본 ‘十三經注疏’

구어본 이후 唐宋 ‘十三經注疏’ 정리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시도한 곳은 북경대학출판사이다. 저명학자 이학근 선생이 主編을 맡아 2000년에 중국 최초의 전문 《十三經注疏》 정리본을 출간하였다. 교점자와 심사자는 아래와 같다.

| 經       | 校点者                    | 審定者 |
|---------|------------------------|-----|
| 周易正義    | 盧光明 李申                 | 呂紹剛 |
| 尚書正義    | 廖明春 陳明                 | 呂紹剛 |
| 毛詩正義    | 龔抗云 李傳書 胡漸達<br>肖永明 夏先培 | 劉家和 |
| 周禮注疏    | 趙伯雄                    | 王文錦 |
| 儀禮注疏    | 彭林                     | 王文錦 |
| 禮記正義    | 龔抗云                    | 王文錦 |
| 春秋左傳正義  | 浦衛忠 龔抗云 胡遂<br>于振波 陳咏明  | 楊向奎 |
| 春秋公羊傳注疏 | 浦衛忠                    | 楊向奎 |
| 春秋穀梁傳注疏 | 夏先培                    | 楊向奎 |
| 論語注疏    | 朱漢民                    | 張豈之 |
| 孝經注疏    | 鄧洪波                    | 錢遜  |
| 爾雅注疏    | 李傳書                    | 徐朝華 |
| 孟子注疏    | 廖明春 劉佑平                | 錢遜  |

20년 전 이 총서는 매우 대단한 작업이었다. 그전까지 中華書局이나 上海古籍出版社에서 영인한 世界書局 조판 축쇄본을 사용하였는데, 책이 두껍고 글자는 조밀하고 표점도 없어 읽기가 매우 불편하였고, 표점과 필기도 할 수 없었다. 이 정리본이 나온 이후, 학자들이 읽고 사용하는데 매우 편리해졌다. 특히 이 총서는 번체 세로줄과 간체 가로줄 두 형식으로 출판되었고, 간체본은 책 마다 가격을 따로 매겨 판매하여, 영향 범위를 확대하였다. 총서를 정리한 학자들을 보면, 당시 경학 분야의 소장학자가 교감을 맡았고, 학식이 두터운 원로 학자들이 교열을 담당하였다. 비록 학계에서 阮刻本을 저본으로 하여 교감과 교열을 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 총서가 선구적인 작업을 하였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쉽게 부정할 수도 없다.

## (2) 上海古籍出版社 ‘十三經注疏’ 정리본

2007년 이래 上海古籍出版社에서 지속적으로 張豈之 主編의 《十三經注疏정리본》을 출판하였다. 상세한 목록은 아래와 같다.

| 經       | 校点者     | 出版年  |
|---------|---------|------|
| ●周易注疏   |         |      |
| 尚書正義    | 黃怀信     | 2007 |
| 毛詩注疏    | 朱杰人 李慧玲 | 2013 |
| 周禮注疏    | 彭林      | 2010 |
| 儀禮注疏    | 王輝      | 2018 |
| 禮記正義    | 呂友仁     | 2008 |
| ●春秋左傳   |         |      |
| 春秋公羊傳注疏 | 刁小龍     | 2014 |
| ●春秋穀梁傳  |         |      |
| ●論語     |         |      |
| 孝經注疏    | 金良年     | 2009 |
| 爾雅注疏    | 王世偉     | 2010 |
| ●孟子     |         |      |

서문에 따르면 이 총서는 1992년 계획이 세워졌고, 시기가 늦춰져 2007년에야 출간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아직 5종의 책이 출간되지 않고 있다. 이 총서는 阮刻本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저본 선택에 공을 들였다. 張豈之의 《序》에 따르면, 八行本을 채택하여 저본으로 삼았고, 송대 초기 單注·單疏本으로 재차 교감하거나, 늦게 출판된 佳本을 선택하여 저본으로 삼기도 하였으며, 최대한 송본의 원형을 회복한다는 목표아래, 새로운 정리본을 정리해내었다. 현재 출판된 여러 서적들에 대한 학계의 반응은 좋은 편이다. 특히 《예기정의》·《춘추공양전주소》 등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일부 책에 대해서는 표점도 틀리고 교감도 부실하다는 평가도 있다.

## (3) 《儒藏》精華編 소개와 “十三經注疏”의 整理

‘十三經注疏’의 또 다른 정리본은 《儒藏》精華編 안의 판본으로, ‘十三經注疏’라는 이름의 총서로 출판된 것은 아니지만, 《儒藏》 분류 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사실상 판본의 종류 모두 갖추어져 있다.

《유장》의 전반적인 진척과정과 經部의 정리 상황은 다음과 같다. 2003년 시작된 《유

장》사업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첫 걸음은 《유장》의 정화편을 편찬하는 것이고, 이후 다시 《유장》 全編을 시작하는 것이다. ‘精華編’ 중국 부분은 500여 종의 서적, 282권을 수록하였다. 2009년에는 40권, 2014년에는 100권, 2018년에는 160권, 2020년에는 240권까지 출판하였고, 현재 40여 권이 남아 있다. 2022년이면 정화편 모두 출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유장》정화편은 책명에 따라 한 권에 출판한 것이 아니라, 글자 수에 따라 책을 구분하여, 분권하여 차례대로 출판하고 있다. 經部의 경우, 190종에 가까운 책을 수록하고 있고, 先秦에서부터 청대까지 망라하여, 각 시대에서 대표적인 경학 작품들을 포함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中華書局의 청대 주석가의 ‘十三經注疏’는 《儒藏》에서도 기본적으로 수록하였다. 송명 경학의 저작도 《유장》에서 대량 수록하였고, 당송의 《심상경주소》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수록하고 있다. 교감자와 출판 시기는 아래와 같다.

| 經      | 校點者     | 出版年  |
|--------|---------|------|
| 周易注    | 陈绍燕 王同印 | 2009 |
| 周易正義   | 赵荣波     | 2009 |
| 尚書正義   | 周粟      | 2014 |
| 毛詩注疏   | 郑杰文 孔德凌 | 2010 |
| ●周禮注疏  |         |      |
| 儀禮注疏   | 彭林      | 2016 |
| 禮記正義   | 吕友仁     | 2016 |
| 春秋左傳正義 | 浦卫忠     | 2016 |
| 春秋公羊傳  | 浦卫忠     | 2014 |
| 春秋穀梁傳  | 浦卫忠     | 2010 |
| 论语注疏   | 陈新 沙志利  | 2007 |
| 孝经注疏   | 赵四方     | 2018 |
| 尔雅注疏   | 顾宝田     | 2012 |
| 孟子注疏   | 刘丰      | 2016 |

당송 ‘十三經注疏’ 가운데 《周禮注疏》는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기타 12종은 모두 출판되었다. 이 총서는 비교적 좋은 판본을 저본으로 선택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주역주소》는 單疏本을 활용하기 위해 經注本과 單疏本을 수록하였다. 이밖에도 대부분 宋本을 선택하였다. 예를 들어 《春秋左傳正義》·《論語注疏》·《孟子注疏》는 모두 중국에서 宋本을 처음으로 저본을 삼은 교점본이다. 《尙書正義》·《周禮注疏》도 송대 八行本을 저본으로 채택하였다. 물론 자료를 확보하거나 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阮刻本을 저본으로 사용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 이는 《유장》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 설정하고 있는 전반적인 요구사항과 관련이 있다.

체계가 전체 精華編 500여 종의 책을 수록하기 위해 구성되었기 때문에, 중요 도서를

단독적으로 규정할 수 없어, 완전한 총서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또한 교점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유장》정화편 체계 요구사항은 각 책마다 선택한 저본 외에 두세 가지 판본을 교본으로 엄선하여, 비교하며 교감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다. 교감은 핵심적인 것만 표기하여 최소화 하였고, 교감의 正誤만을 표기하여 교감의 同異를 참작하도록 하였다. 교감할 가치가 있는 많은 판본이 校本에 포함되지 않았고, 많은 저본이 정확하고 校本이 오류가 되어 있는 異文이 校記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판본과 교감에서 이 책의 성과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결점에도 불구하고 《유장》정화편은 조판 교정, 교점 정리 등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문자의 오자가 거의 없고 교점의 수준도 높으며 판본 형식도 명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 3가지 총서의 ‘十三經注疏’ 외에, 개별적인 서적들도 있다. 于天宝 선생이 표점한 《宋本周易注疏》(中華書局, 2018년)는 일본 아시카가학교(足利學校)에서 소장하고 있던 八行本을 저본으로 하였고, 《사부총간》에서 영인한 송대 撫州公使庫刻 經注本으로 교감하였다. 이 정리본은 판본에서도 정밀함을 추구하여, 《유장》본에서 《주역주소》를 두 권으로 나눈 아쉬움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다.

#### (4) 현재 진행 중인 ‘十三經注疏’ 주제교감·심도교감 및 표점정리

이상의 서적 이외에 ‘十三經注疏’의 주제 교감, 심도 교감, 표점 정리의 작업에서 7명 학자들의 성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구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① 南京師範大學 文學院 方向東 교수는 阮刻本の 《十三經注疏》에 대해 표점정리를 진행하였다. 완각본의 몇 가지 다른 판본을 서로 교열하여, 同異를 취사선택하여, 阮刻定本을 만들었다. 원고는 이미 중화서국에 제출되었고, 향후 2년 안에 출판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여기서 말한 ‘주제 교감’의 정리이다.

② 山東大學 文學院 杜澤遜 교수는 2012년 《十三經注疏匯校》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 총서는 萬力 北監本을 저본으로 하고 있고, 唐 石經과 後蜀 石經 및 송대 이후의 각종 판본(白文本·經注本·單疏本·注疏本 등)을 匯校하였다. 역대 판본의 原形과 流形을 정리하여, 학계에 전면적인 판본의 차이를 제공하고, 이후 판본 정리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2018년 4월 中華書局에서 첫 성과로 나온 《尚書注疏匯校》는 학계의 호평을 받고 있다.

③ 북경대학 중문과 顧永新 교수의 《周易經傳注疏校勘記》이다. 이 책은 각종 《주역》 텍스트 및 고금 석학들의 교감 성과를 객관적으로 취사선택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오류를 바로잡아, 정확하고 완벽한 《周易》 經文·傳文·注文·疏文 및 《釋文》·《略例》를 구축하였다.

④ 南京師範大學 文學院 王鏞 교수는 장기간 三禮 연구에 몰입하여, 현재 《예기주소장편》 편찬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中華書局에서 영인한 阮刻本 《附釋音禮記注疏》 63권을 저본으로 삼고 있고, 경주와 소문을 기록하였으며, 표점으로 단락을 구분하였다. 또한 衛湜의 《禮記集說》과 吳澄의 《禮記纂言》을 정리하고, 해당 경문 뒤에 모아 편집하였다. 2018년 12월 廣陵書社에서 첫 번째 성과인 《曲禮注疏長編》을 출간하였다. 이 사업은 《禮記正義》의 표점정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 《禮記正義》에 대한 정리본을 이미 완성하였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계속 수정하고 있고, 내부 참고 자료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새롭게 清和 坤翻刻 宋十行本 《禮記正義》를 입수하여 이를 저본으로 하여 《예기정의》를 교감하고 있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⑤ 南京師範大學 文學院 楊新勛 교수의 《論語注疏》 匯教정리 사업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수정 단계에 있으며, 출판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⑥ 福建師範大學 經學研究所 郜積意 교수팀은 현재 《春秋》 3傳의 注疏를 정리하고 있다. 郜積意 교수는 《春秋公羊傳注疏》를, 陳殿 교수는 《左傳正義》를, 簡逸光 교수는 《春秋穀梁傳注疏》를 정리하고 있다. 《公羊傳注疏》의 정리사업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출간 시기는 미정이라고 한다.

⑦ 陝西師範大學 瞿林江 교수는 《爾雅注疏》의 匯校 정리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현재 정리 작업이 거의 완료되었지만, 출판 시기는 미정이라고 한다.

이상의 사업으로 보면, 《十三經注疏》의 정리가 심화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통행 판본에 대한 전반적인 匯校를 한 뒤, 최적화된 텍스트를 추가로 선정하여, 정리한 것이 정본이 되는 것이다. 이는 《十三經注疏》 교점정리 사업의 주된 추세이다.

#### 4) ‘十三經古注’ 정리

##### (1) 이미 출판된 몇 종류

‘十三經古注’의 정리본에는 다음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주역》王韓注 3종이다. ① 《周易注》(樓宇烈 校釋, 《王弼集校釋》 수록, 中華書局, 1980년)이다. 2011년 《周易注》라는 단독 이름으로 《易學典籍選刊》에 수록되었다. ② 《周易王韓注》(施偉青 點校, 岳麓書社, 1993년)이다. ③ 《周易注》(《儒藏》精華編 제1권, 北京大學出版社, 2009년)이다. 세 권 가운데 樓 선생의 정리본이 학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특히 고대 철학 왕필연구 분야에서는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

둘째, 《毛詩傳箋》(孔祥軍 點校, 中華書局, 2018년)이다. 이 책은 최근 經注 정리의 핵심

으로, 여러 판본을 비교한 것을 토대로, 宋刻本과 阮刻本을 선택하지도 않고, 清代 乾隆 48년 武英殿刻 仿元相臺本 《毛詩傳箋》을 저본으로 삼고, 唐 開成石經本 · 宋刊 巾箱本 · 宋刊 白文本 · 일본 靜嘉堂藏舊抄本 · 纂圖本 · 宋 十行本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교감을 진행하였고, 또 南宋刊 單疏本 《毛詩正義》 · 淳祐 12년刻 《毛詩要義》 · 宋刻 《呂氏家塾讀詩記》 · 宋刻 遞修本 《經典釋文》 등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단락을 나누어, 교점 정리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고, 학계에서도 반응이 좋다.

셋째, 《儀禮》(鄭玄注, 張爾岐 句讀, 郎文行 校点, 方向東 審定, 上海古籍出版社, 2016년)이다. 이 책은 사실상 청대 《儀禮鄭注》를 분장하고 句讀하여 교점한 張爾岐의 《儀禮鄭注句讀》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실제 청대 주석가들의 정리 연구를 현대화한 형식으로, 현재 《儀禮》鄭注匯校本이 부족한 상황에서, 독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넷째, 《春秋經傳集解》(上海人民出版社, 1977년. 1988년 上海古籍出版社에서 재판)이다. 정리자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공동 작업의 성과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四部總刊》영인 宋本을 저본으로 삼았고, 일부 오자는 다른 판본에 근거하여 수정하였지만, 校記는 달지 않았다. 출간 이후 재판이 거듭되는 등 학계에 미치는 영향이 컸고, 지금도 학계에서 많이 인용하는 통행본이다.

다섯째, 《論語集解》(《儒藏》精華編 제104권, 孫欽善 校点, 北京大學出版社, 2007년)이다. 이 책은 일본 正平本 《論語》가 중국에서 정리된 첫 번째 판본이다. 저본 외에, 이 책은 皇疏와 邢疏 계통의 선본을 교감하였고, 《논어》전승 과정에서 중요한 異文을 제공하여, 높은 수준의 정리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유장》체계에 제한을 받아 匯校는 하지 않았다.

여섯째, 《爾雅》(浙江古籍出版社, 2011년)이다. 정리자가 기입되어 있지 않다. 이 책은 2000년 북경대학출판사 《爾雅注疏》를 저본으로 하고 있고, 經注를 취사선택하여 출간하였다.

이 총서들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2년 전 출판된 《毛詩傳箋》이다. 經注本 정리의 새로운 경향인 새로운 판본을 匯校하여, 최상의 텍스트를 보여주고 있다.

## (2) 현재 정리 중인 ‘十三經古注’

첫째, 北京大學 《儒藏》센터 王豐先이 담당하고 있는 《十三經古註整理》사업으로, 필자도 참여하여 《尚書》·《論語》정리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결과를 내고 있으며, 향후 2년 안에 中華書局에서 출판될 예정이다. 이 책은 통행 판본을 모두 수집하였고, 宋元本 · 일부 후대 刻本을 선정하여 교열하고, 《經傳釋文》·唐 石經 등의 異文을 취하였다. 또한 역대 학자 특히 청대 고증학파의 성과를 흡수하여, 학계에 정선된 經注本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둘째, 南京師範大學 文學院 王鏐 교수가 정리한 《禮記鄭註匯校》는 이미 원고가 마무리되어 中華書局에서 출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 밖에 王鏐 선생은 또 匯校를 바탕으로 校記를 압축하고 텍스트를 바로잡아 《禮記鄭註定本》을 저술할 계획이라고 한다.

## 5) ‘十三經注疏’ 정리의 발전 방향

‘十三經’ 白文本·經註本·經注疏本은 각각의 용도가 있어 모두 정리가 필요하고, 다층적인 정리도 요구된다. 40년 가까이 진행된 경전주석 정리 상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경학 연구가 점차 심화되면서, 경전의 정리 역시 세밀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교적 일찍 전개된 것은 내용이 비교적 풍부하지만 판본이 적고, 정리가 상대적으로 쉬운 清代 경전해석 성과였고, 구어本이 그 다음, 그리고 注疏本과 經注本이 차례로 정리되었다.

비록 시작이 늦고 빠른 차이는 있지만, 구어本이든 經注本·經注疏本이든 모두 한 단계 더 세밀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점은 경주소본 정리에서 특히 분명하게 드러난다. 1980년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판본은 中華書局·上海古籍 등의 출판사에서 영인한 世界書局 조판 축쇄 인쇄본이다. 정리본의 수요가 날로 높아지자 학계에서는 먼저 阮刻本(北大本)을 校點하였고, 宋元 善本을 저본으로 한 정리본(《儒藏》本·上古本)이 등장하였다.

연구의 세밀화, 특히 판본 연구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다양한 판본의 영인, 디지털화 자원이 발표되어, 학자들은 판본 간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보다 치밀한 교감과 더 세밀한 經義 검색이 요구되어, 모든 경서 판본을 한데 모아 정리하는 사업도 출현하였다.

상술한 각종 연구 프로젝트 가운데, 완벽한 교감을 기초로 經·注·疏를 다시금 정리하는 사업이 많다. 특히 北京大學 顧永新 교수의 《周易經傳注疏校勘記》는 각종 교감 의견이 있는 판본을 수집했을 뿐 아니라, 역대 학자들의 교감 의견까지 추가로 나열하여, 현재로서는 가장 정교하게 정리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교한 정리는 바로 현 단계 ‘十三經注疏’ 정리의 주류 경향이자, 학문 발전의 필연적인 방향이다.

이 밖에도 발전 방향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杜澤遜 교수가 《尚書注疏匯校》 사업 이후 《尚書注疏》 定本을 출판하려는 것과 王鏐 교수가 《禮記鄭註匯校》 이후 《禮記鄭註》 定本을 출간하려는 것, 顧永新 교수가 일본학자가 저술한 《尚書正義定本》와 유사한 방식의 《周易正義》 定本을 출간하려는 것이다.

## 4. 나오는 말

최근 40년간 중국 학계의 十三經의 구어 번역 작업과 十三經注疏의 교점 정리 사업의 간단한 회고와 그에 따른 발전경향을 살펴보았다. 그중 많은 것이 바뀔 수 없는 추세인 것은 자명하다. 다만 구어 번역은 고대 經學 작품 가운데 대표적이고 체계적인 대가들의 견해를 선택하여 저술해야 한다.

번역 : 高在錫(성균관대 유학대학 교수)

[주제발표 2]

## 日本の漢文訓讀の伝統と翻譯現況

— 十三經注疏と關連して —

嚴 錫 仁

(筑波大學)

- 一. はじめに
- 二. 徂徠學派の訓讀の否定とその意味
- 三. 漢文テキストの翻譯狀況—叢書シリーズを中心に
- 四. 十三經注疏の翻譯現況
- 五. おわりに

### <論文提要>

現在、日本と韓國の兩國で出版されている漢文テキストに對する翻譯書の体裁を比較してみると、一つ興味深い点に氣付く。もちろん、出版社の出版意図や費用などの色々の事情があるので、一律的にいうことはできないが、韓國では、たとえば、伝統文化研究會で刊行した翻譯書を見ても、漢文原文を揭示し、その後に韓國語翻譯を載せ、さらに翻譯者の注解や文意などを本文か脚注かに表示する形式が、一般的であろう。これに比べて、日本の翻譯書の多くは、原文と現代日本語の間に<訓讀文>という獨特な形式の文章が位置する、という点である。

日本の漢文訓讀は、辭典的な定義で<漢文を日本語の文法にしたがってよむこと>をいい、ほかに<書き下し文><讀み下し文>ともいう。いってみれば、朝鮮時代の諺解文に該当する文章となるが、韓國ではすでに姿を消した漢文解釋の方法が、日本では今日まで生き残り、漢文と現代語譯の中間でまるでその二つを結びつける橋であるかの役割を演じているの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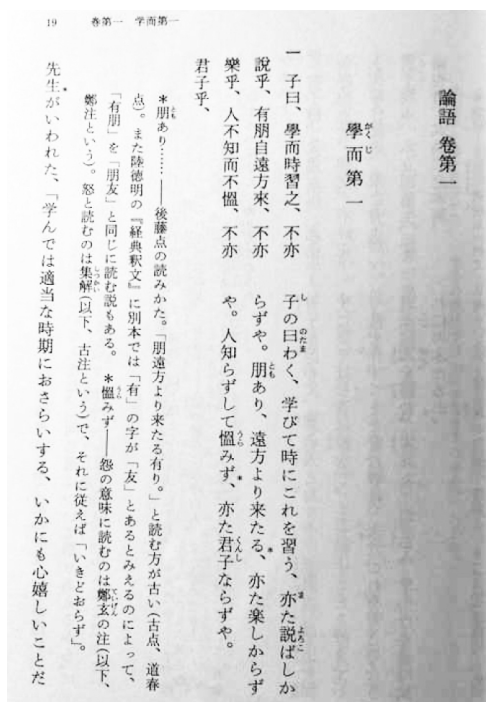
こうした日本の漢文訓讀について、研究者たちは、訓讀そのものを重層的で矛盾的な日本文化の一つの特性として捉えることもあり、特に翻譯論と關連しては、漢文訓讀体が現代日本語のなかで翻譯用の文章語＝記述言語の原型となり、世界中でも稀な獨特の翻譯方法であるとも説明する。少なくとも、同じ漢字文化圏の韓國と比較してみると、朝鮮時代の<諺解>のような古文法による文章＝訓讀を、21世紀の今日に至っ

でも翻譯文の必須要素として持續しているという事實は、漢文テキストに対する日本の獨特の解釋方法として認めることもできよう。

本発表では、以上の点を念頭に置いて、まず現代の漢文テキストの翻譯は、いかなる歴史的・思想的脈絡を背景にして展開してきたのかを、江戸時代に朱子學の新注を批判しながら古文辭學を主張した荻生徂徠と彼の弟子の太宰春台の訓讀論を中心に考えてみたい。次に、日本での全体的な漢文テキストの翻譯狀況(十三經の翻譯を中心)、そして現在に至るまでの十三經注疏の翻譯狀況はどうであるかを紹介したい。

## 一. はじめに

現在、日本と韓國の兩國で出版されている漢文テキストに対する翻譯書の体裁を比較



〈別첨 1 訓讀文(군도쿠분)〉  
(金谷治 譯注, 《論語》 岩波文庫, 2018年 17刷)

してみると、一つ興味深い点に氣付く。もちろん、出版社の出版意図や費用などの色々の事情があるので、一律的にいうことはできないが、韓國では、たとえば、伝統文化研究會で刊行した翻譯書を見ても、漢文原文を揭示し、その後に韓國語翻譯を載せ、さらに翻譯者の注解や文意などを本文か脚注かに表示する形式が、一般的であろう。これに比べて、日本の翻譯書の多くは、原文と現代日本語の間に<訓讀文>という獨特な形式の文章が位置する、という点である<sup>1)</sup>。

日本の漢文訓讀は、辭典的な定義で<漢文を日本語の文法にしたがってよむこと>をいい、ほかに<書き下し文><讀み下し文>ともいう<sup>2)</sup>。いつてみれば、朝鮮時代の諺解文に該当する文章と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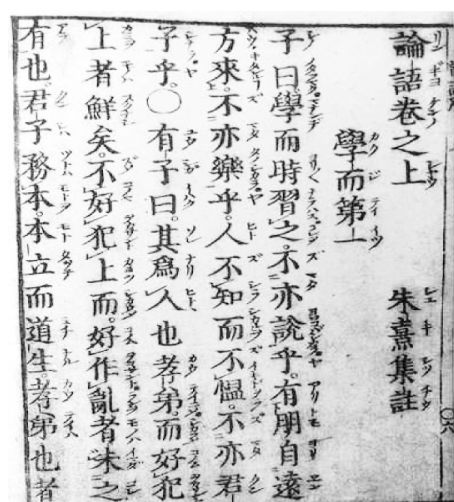
- 1) 原文と訓讀文の配置は、前後上下のそれぞれの特色があるだろう。ちなみに、本発表で使用する<訓讀>の意味は、<漢字を日本語で訓讀みする>という一般的な脈絡ではなく、日本で漢文を讀んで解釋する獨自的な方式をいう。
- 2) 新村出編《廣辭苑》第七版(岩波書店、2018年)889頁。漢文を訓讀するときには、基本的に訓点(句讀点、送り点、送り仮名)を利用して原文の左右に記入する。漢文を讀んでいく順序を表すのが左傍に記すレ、一二三、上中下などの符号や數字といった送り点、送り仮名は活用語尾や助詞・助動詞などを表す仮名文字で右傍に記入する。

るが、韓国ではすでに姿を消した漢文解釋の方法が、日本では今日まで生き残り、漢文と現代語譯の中間でまるでその二つを結びつける橋であるかの役割を演じているの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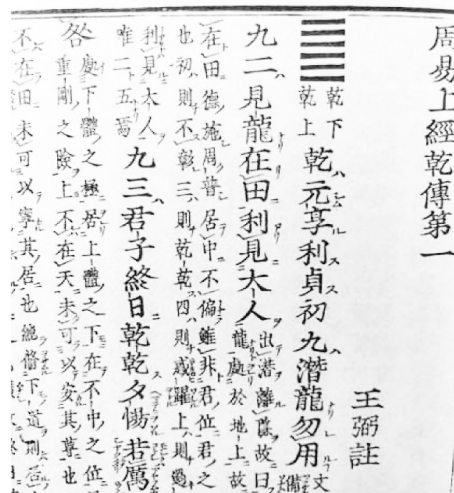
こうした日本の漢文訓讀について、比較文學者の山本皓嗣は、<いわゆる漢文、あるいはその日本における具体的な存在様式である漢文訓讀は、考えれば考えるほどふしぎなものである。その曖昧さ、正体のつかみ難しさという点と、それとは裏腹の存在の重さ、巨大さ、根深さという点で、それはまさに日本文化の特性を典型的に表しているようだ><sup>3)</sup>といい、訓讀そのものを重層的で矛盾的な日本文化の一つの特性として捉える。さらに、川本は、漢文訓讀が日本文化の一部を形成する具体的な一例として、翻譯論上の寄与を取り上げているが、これが本發表で注目したい部分である。

漢文訓讀は、たんに、手早く容易に外國語を読み解くために工夫された便利な方法というだけではない。それは、譯文のなかに可能な限り原文の姿/形を残そうとする翻譯の特異な一形態として、つまり譯文の自然さや分かりやすさを犠牲にしてまで原文尊崇の態度を貫こうとする翻譯の極限的な一形態として、翻譯論上に興味深い問題を提供している<sup>4)</sup>。

このように直譯に近い漢文訓讀が日本で數百年にわたって行われてきた理由について、川本は、こうした<問い自体がほとんど問われていない>といいながら、自身では<日本では漢文がたんなる外國語テキストという域を超えて、神聖視、聖典視されていたからである><sup>5)</sup>というように答えている。漢文學者ではなく、いわば部外者の英文學専門家の比較文學的な視角からの指摘になるので、妙に納得させられるとことも



<別添 2 書下し文(ガキクダシ文)>  
(《傍訓論語》(江戸前期刊本), 遊學社, 2013年)



<別添 3 讀下し文(ヨミクダシ文)>  
(《周易》(寛永頃刊本)  
《和刻本經書集成註之部第一輯》, 汲古書院, 1977年)

3) 川本皓嗣<漢文訓讀とは何か—翻譯論と比較文化論の視点から>(《大手前大學論集》11号、2010年)1頁。

4) 同上、2頁。

5) 同上、21頁。

あるが、この漢文訓讀と翻譯論の關係については、日本の代表的な翻譯語研究者の柳父章は、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

この<漢文訓讀>という読み方は、近代以後の<翻譯>にとっても特に重要である。それは、やがて近世から近代にかけて、日本人が西洋語と出会うことになったとき、この<漢文訓讀>方法が、形を変えて<英文訓讀>、<仏文訓讀>などとして受け継がれることになったからである、と私は考えている。……要するに、日本人は、伝統的大和言葉系の日本語とは別に、翻譯用のもう一つの日本語の書き言葉、すなわち<漢文訓讀体>をつくってきたのである。これこそが、世界中でも稀な、日本人が育ててきた獨特の翻譯方法であった<sup>6)</sup>。

柳父は、漢文訓讀体が現代日本語のなかで翻譯用の文章語＝記述言語の原型となり、<世界中でも稀な獨特の翻譯方法>であることを説いている。その通り世界中で稀な現象なのかは分からないが、少なくとも、同じ漢字文化圏の韓国と比較してみると、朝鮮時代の<諺解>のような古文法による文章＝訓讀を、21世紀の今日に至っても翻譯文の必須要素として持続しているという事実は、漢文テキストに対する日本の<獨特の解釋方法>として認めてもよいであろう。

本発表の中心課題は、日本における十三經注疏の翻譯状況を調べることである。ここで日本式の漢文訓讀と翻譯論を取り扱うことは、この課題と直接的な関連はあまりないが、現代の漢文テキストの翻譯がいかなる歴史的、思想的な脈絡を背景にして展開してきたのかを、少し考えて見ることもまったく無意味な作業にはならないだろう。

上で川本と柳父の、現代研究者の主張を紹介したが、訓讀が翻譯であるという自覺・指摘は、江戸時代の荻生徂徠(1666～1728)によって表面化されたものである。朱子學の新注を批判し、先王の道は中國古代の言語を基準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古文辭學の方法論を主張した徂徠であったので、六經を中心とした古代のテキストと《論語集解》などの古注に対する理解と引用も、他の儒學者たちと違うものがあつた。まず、徂徠と彼の經學を継承した弟子の太宰春台(1680～1747)の訓讀論を対象に、彼らの主張が持つ意味を論じ、次に日本での全体的な漢文テキストの翻譯現況(十三經の翻譯を中心)、そして現在に至るまでの十三經注疏の翻譯状況はどうであるかを紹介することで、本発表を進めてみたい。

6) 柳父章<日本における翻譯—歴史的な前提>、《日本の翻譯論—アンソロジーと解題》(法政大學出版局、2010年)3頁。

## 二. 徂徠學派の訓讀の否定とその意味

上で徂徠の古文辭學に触れたが、次のような立場によるものである。

宇は猶ほ宙のごときなり。宙は猶ほ宇のごときなり。故に今言を以て古言を視、古言を以て今言を視れば、均しく之れ朱離鳩舌なるかな。科斗と貝多何ぞ擇ばん。世は言を載せて以て遷り、言は道を載せて以て遷る。道の明らかならざるは、職として是れ之れに由る<sup>7)</sup>。

同じ言葉(漢字)といっても、時代ごとにそれが表している意味は違ってくるので、聖人の道を正しく理解するためには、徂徠当時の學問研究の標準であった朱子學的な<今言>ではなく、中國古代の<古言>に基づいて解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主張である。二程と朱熹も古文辭には理解が及ばなかった、と貶す<sup>8)</sup>徂徠は、この方法論を中年に至って<天の寵靈><sup>9)</sup>によって得たというが、ここには当然ながら日本人としての、日本語と異なる中國語(徂徠の言葉で中華語、崎陽の學など<sup>10)</sup>)に對する自覺も含まれていよう。あるいは、中年以前から外國語として對面していた中國語への理解が<sup>11)</sup>、古文辭學の方法論を先導したかも知れない。

それはともかく、この立場は、日本式の漢文訓讀(和訓)に對する再認識と否定として表出される。日本語において訓讀は<翻譯>という再認識であり、訓讀の否定は中國語學習による漢文直讀という新しい提案に繋がる。次の文は、徂徠50歳のとき(1715年)に刊行した語學書の<漢文を正しく讀み解釋するための道具>という意味の《譯文筌蹄》卷首にみえるものである。引用文がすこし長いので、内容を區分して番号を付けてみた。

① 此の方の學者、方言を以て書を読み、号して和訓と曰ふ。諸を訓詁の義に取れり。其の實は譯なり。而も人其の譯たることを知らず矣。

② 古人曰く、<書を読むこと千遍、其の意自ら見ゆ>と。予れ幼き時、切に古人其の義未だ見えざる時に方りて、如何にして能く讀むと怪む。殊に知らず、中華にて書を読む

7) 《學則》、《徂徠先生全集》1卷(みすず書房、1973年)74頁。

8) 《辨道》、《荻生徂徠》(日本思想大系、岩波書店、1973年)200頁。<程朱諸公、雖豪傑之士、而不識古文辭>。

9) <答屈景山>、同上書、529頁。<不佞從幼守宋儒伝注、崇奉有年。積習所錮、不自自覺其非矣。藉天之寵靈、暨中年、得二公之業以讀之>。<二公>は中國明代の文學理論家の 李攀龍と王世貞。<中年>は彼40歳頃で、この時期に一括的に購入した書籍の中で李・王の詩文集に接し、古文辭を學ぶことを決意したことをいう(平石直昭《荻生徂徠年譜考》、平凡社、1984年、57頁)。

10) 《譯文筌蹄初篇》、《徂徠先生全集》2卷(みすず書房、1974年)6、9頁。<崎陽>は、江戸時代に中國人の居住地が置かれてあった長崎の中國式の別称で、<崎陽之學>は中國の口語を称す。

11) 徂徠38歳の時に《大學》の中國語講義を通譯するなど、彼の中國語學習は早くから始まり、相当な水準に達していたという(平石、前掲書、52頁)。

に、從頭直下、一に此の方の人の仏經陀羅尼を念ずるが如し、故に未だ其の義を解せずと雖も、亦た能く之を読むのみ、といふことを。此の方の讀法、順逆に廻環して、必ず中華の文字を移して、以て方言に就く者の若きは、一讀して便ち解す。解せざれば讀むべからず。信なるかな和訓の名当たれりとなす。而も學者宜しく或いは力を爲すに易かるべきなり。

- ③ 但だ此の方には自ら此の方の言語有り、中華には自ら中華の言語有り。體質本より殊なり、何に由りて脗合せん。是を以て和訓廻環の讀、通すべきが若しと雖も、實は牽強たり。而も世人省みず、書を読み文を作るに、一に唯だ和訓にのみ靠る。即ひ其の識淹通と称せられ、學宏博を極むるも、倘し其の古人の語を解する所以の者を訪へば、皆靴を隔てて痒きを搔くに似たり。……故に學者の先務は、唯だ其の華人の言語に就きて、其の本來の面目を識らんことを要す<sup>12)</sup>。

① は、<和訓>の内實が實は<翻譯>であることを指摘したもので、<人其の譯たることを知らず>という言葉は、当時の學者たちが漢字と漢文テキストを日本語との関係においていかなる認識を持っていたかを伝えていよう。

② では、中國語と日本語の語順の差異、つまり、一般的に主語、叙述語(用言)、目的語の順序をみせる中國語とは異なり、目的語が先に置かれ、用言が最後に位置する日本語の語順の性質に照らして、その漢文文章の意味が分からなければ、固より讀むことは不可能だという事情を明らかにしている。文法上、似ている語順を持っている韓國で意味は分からなくても、懸吐を省略し、徂徠の言葉で<從頭直下>の方式で讀もうとすれば、何とか讀むことはできるという讀法とは、また異なる日本の事情が窺える。

③ では、中國語とは合致できない語順上の本質的な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和訓が發達してきたのであるが、和訓のみに固執する場合、牽強付會、隔靴搔癢的な漢文理解に止まるだけになるので、中國語で漢文を讀む新しい學習法を促している。より具体的には、<先づ崎陽の學を爲し、教ふるに俗語を以てし、誦するに華音を以てし、譯するに此の方の俚語を以てして、絶して和訓廻環の讀みを作さしめず><sup>13)</sup>、という學習法である。

要するに、徂徠は、漢文を日本語とは體質の異なる外國語という前提下で日本式の訓讀を<譯>として再認識しながら、漢文を分かりやすい日常語で説明する<翻譯>の發展を奨励していく一方で、当時の學界のほとんど全部の學者が当たり前のように入用していた、いわば<順逆廻環>の日本式の訓讀を否定したのであった。

こうした徂徠の漢文訓讀に對する批判的な見解は、彼の弟子の太宰春台が繼承していく。春台は、彼の《訓讀要領》のなかで<倭訓>の弊害を次のようにいう。

12) 《譯文筌蹄初篇》、前掲《徂徠先生全集》2卷、547～8頁。

13) 同上書、555頁。

古來ノ讀法ハ、漢語ヲ譯シテ倭語トナスコト貴ビ漢語ヲ取テ、倭文倭歌ノ用トセントスル故ニ、人名地名ノ類ヲ除テノ外ハ、倭訓ニ讀ル、限ハ、倭訓ヲ用タル者ナリ。故ニ中華ノ書、此方ノ國字草子ノ如クニナリテ、ウチキ、タルトコロハ、ヤサシク面白キ様ナレドモ、唯俗人ノ耳ヲ悅バシムルノミニテ、中華ヲ學ブ者ノ爲ニハ其ノ益少ナシ。文章ノ道ニ志サン者ハ、務テ此弊ヲ除クベキナリ<sup>14)</sup>。

<中華の書>を<倭訓>するということは、その価値を日本の通俗小説の水準に引き下げるような間違いだという指摘である。さらに、春台は、倭訓の弊害を具体的に五つ、<一ツニハ倭音ニテ誦スレバ、字音混同ス、二ツニハ倭訓ニテ誦スレバ、字義混同ス、三ツニハ顛倒ノ讀ニテ、句法字法皆失ス、四ツニハ助語辭皆遺漏ス、五ツニハ句讀明ナラズ>といい、苦勞して讀むことができたとしても、僅かに談論のときに役に立つかもしれないが、結局<援引スルニモオボツカナク、増テ文意ニ通ズルコトハ叶ヒガタキナリ>と、述べている<sup>15)</sup>。

しかしとはいえ、こうした認識の春台でも、すでに定着している長い伝統の<倭訓>を完全に無視することはできない。<顛倒ノ讀ハ、吾國ノ俗習ナレバ、俄ニ改ガタシ><sup>16)</sup>といい、<此二法偏廢スベカラズ。學者先華音ノ讀ヲ習テ、次ニ倭語ノ讀ヲ習フベシ><sup>17)</sup>という言葉で<倭訓>を認めていたのである。

こうした現実的な状況把握は、師の徂徠もすでに表していた考えであった。<<然れども崎陽之學、世に未だ甚しくは流布せず。故に又た寒郷縁無き者の爲に、定めて第二等の法を爲す。先づ例に隨ひて授くるに四書/小學/孝經/五經/文選の類を以てし、教ふるに此の方の讀法を以てす><sup>18)</sup>、つまり当時の日本にあって、一般の人びとが中國語を學ぶことが難しい状況を考慮して、<此の方の讀法>＝和訓の教育を認定したことであった。

いうまでもなく、春台も徂徠の立場を共有する。上で言及したように、<凡中華ノ書ヲ讀ムハ、中華ノ音ヲ以テ、上ヨリ順下ニ讀テ、其義ヲ得ルヲ善トスレドモ、吾國ノ人ニシテ、華音ノ讀ヲ習フコト容易ナラネバ、已コトヲ得ズシテ、倭語ノ讀ヲナスナリ><sup>19)</sup>といい、中國語の學習が難しい現実のなかで、<倭語の讀>は<已コトヲ得>ざる選擇であることを認める。

重要なのは、徂徠と春台が<二等法>、あるいは<已コトヲ得ズ>などとして提示しな

14) 《和讀要領》、赤堀又次郎校訂《漢文讀方集成》(東洋社、1903年)85～86頁。

15) 同上書、83頁。

16) 同上書、85頁。

17) 同上書、82頁。

18) 《譯文筌蹄初篇》、前掲《徂徠先生全集》2卷、556頁。

19) 《和讀要領》、前掲《漢文讀方集成》、2頁。

がら刊行した、ここで取り上げている彼らの《譯文筌蹄》と《倭讀要領》は、それ自体で日本でも一つの影響力のある漢文訓讀の教科書として受け止められていた、という点である。言い換えれば、訓讀を否定し、その不必要性を力説するために著わした彼らの努力は、その意図とは反対に日本の訓讀の質を高める役割を果たしたのであり、日本で漢文テキストを読むときの漢文訓讀の必須不可欠な重要性をむしろ浮き彫りにするものであったといえよう。

特に、春台の《倭讀要領》は題目そのものが示唆し、また彼自身が<要領トハ、要ハ腰ト同ジ、衣ノコシナリ、領ハ衣ノエリナリ。衣ヲ舉ルニ、腰ト領トヲ取レバ、全体皆舉ル意ナリ。サレバ學問ノ道モ、要領ヲ求ルコトヲ務ムベシ。既ニ要領ヲ得テ、日夜尋思スレバ、靈慧自發シテ、卒ニ大体ヲ得ルナリ><sup>20)</sup>と説明しているように、漢文訓讀の新しいスタンダードを提示しようとして著わしたものである。

春台は、《倭讀要領》の本論の<總説>のなかで、日本訓讀の歴史を当時まで大概に三/四百年に想定し、古代のいわば博士家の菅原氏と大江氏、中世の禪僧たちの手を経て、近世に入って朱子學の新注を中心として藤原惺窩、林羅山、山崎闇齋などの多くの學者の訓讀が登場してきて、括目するほどの發展を遂げたと回顧する。

しかし、これに續く春台の評価は、辛辣を極める。春台は、近世の訓讀の水準に對して、<大抵其人句讀ヲ知ラズ、文法ヲ解セズ、字義を曉ラズ、只倭語ノ意ニテ讀ル故ニ、文義ヲ誤ルコト甚多シ>と低く評価する。闇齋に對しても、<其中ニ山崎氏ノ本較勝レリ>としながらも、<闇齋先生心ヲ朱氏ノ書ニ潛メシニヨリテ、新註ノ旨ヲ得タルコト頗多シ。然レドモ其人亦文章ノ道ニ味クシテ、只門戶ヲ立ントノミシケル故ニ、省クマジキテニヲハヲ省キ、華語ニモ倭語ニモ違テ、鄙俚ナル讀ヲナセリ>といい、對決の姿勢を露わにするものであった<sup>21)</sup>。本發表の觀點でもう一度繰り返すならば、こうした春台の訓讀に對する態度は、それを否定し遠ざけようとする意図とは逆に、より接近し、その重要性を強調するという逆現象の結果を招來したといえよう。

以上に付け加えて、江戸時代にまた別の訓讀論を著して、訓讀の意義を強調した他の二人の學者の言説も引いてみよう。一つ目の引用は、徂徠より30歳ほどの上の學者で、後半期に朱子學に疑問を提示した貝原益軒(1630~1714)が1703年に著述した《点例》序文の一節であり、二つ目の引用は、江戸後期の學者として朱子學と徂徠學を折衷した日尾荊山(1789~1859)が1835年に著わした《訓点復古》序文にみえる文である。

20) 同上。

21) 同上書、1~2頁。藤原惺窩が四書五經に加点したものを<惺窩点>、林羅山の加点を<道春点>、山崎闇齋の加点を<嘉点>といい、その外に後藤芝山の<芝山点>と日尾荊山による<日尾点>が有名である。

わが國の學問は經傳の本文と注意をよく見わかちて、訓点を正しくしてあやまるざるをよしとす。訓点もしあやまりぬれば、義理も又ちがへり<sup>22)</sup>。

人の人たる所以は、道の道たる所以を學ぶこと是れのみ。嗚呼、堯舜も邈かなり、孔孟も逝る、吾れ將に焉をか學ばん。其れ聖經賢傳ならんか。然り雖も彼此域を異にし、文辭同じからず。訓点を待ちて其の義始めて通じ、其の道始めて明かなり。是れに由りて之れを觀れば、訓点は是れ學者の先務にして、道義に寓するところなり。豈に正しからざるべけんや。…蓋し訓点正からざれば、則ち經傳通じず、經傳通じざれば、則ち道明らかならず<sup>23)</sup>。

二人ともに、漢文テキストを讀んでいくときに、訓讀(訓点)の持つ必須不可欠の重要性を指摘していることは、見ての通りである。

以上と関連して、再び徂徠の《譯文筌蹄》に戻って<翻譯>の意義を申す少し考えてみよう。上で徂徠は、訓讀を<譯>と再認識し、外國語としての漢文を日常の分かりやすい日本語に<翻譯>することを促したといったが、具体的には次のような主張である。

譯の一字、讀書の眞訣たり。蓋し書は皆な文字、文字は即華人の語言なり。……祇だ中華と此の方と、語音同じからざるを以ての故に、人奇特の想を作す。能く其の語を譯すること、此の方の平常の語言の如きんば、能く書を読む者なりと謂ふべし矣。此れ、是の編開卷第一義なり<sup>24)</sup>。

言語が互いに違う状況のなかで、自國語で分かりやすく<翻譯>するのがまさに讀書のエッセンスであり、徂徠自身が《譯文筌蹄》を刊行する一次的な意義もこれを伝えることにある、と<翻譯>の重要性を強調している。また次のような言葉も見える。

又た今言を以てして中華語に求むるに、其の古へに比すれば、愈よ繁くして愈よ細き者、稍や華言と相近かるべし。且つ俚俗なる者は、平易にして人情に近し。此を以てして中華文字を譯すれば、能く人をして奇特の想を生ぜず、卑劣の心を生ぜず、而も聖經/賢傳、皆な吾が分内の事、左/騷/莊/選、都て佶屈ならず、遂に歴代の古人と臂を交へ晤言し、千載に尙論せしむること、亦た是れに由りて至るべし。是れ<譯>の一字、利益尠からず。孰れか吾れ奇を好むと謂はんや<sup>25)</sup>。

先進の文化を受け入れる立場からの、<翻譯>によって得られる利益をよく描寫して

22) 《点例》、前掲《漢文讀方集成》、1頁。

23) 《訓点復古》、前掲《漢文讀方集成》、5～6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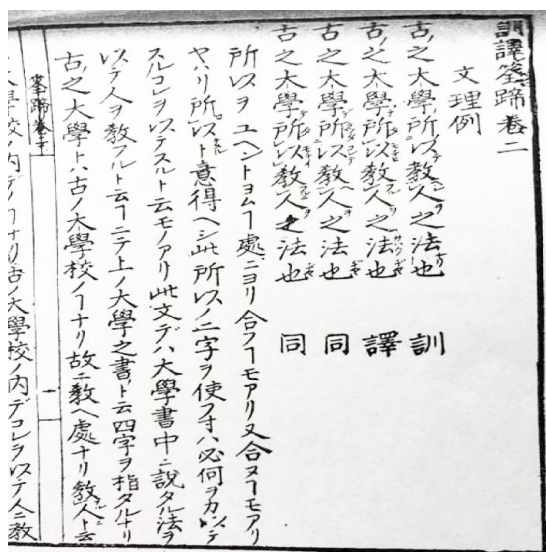
24) 《譯文筌蹄初篇》、前掲《徂徠先生全集》2卷、550頁。

25) 同上書、551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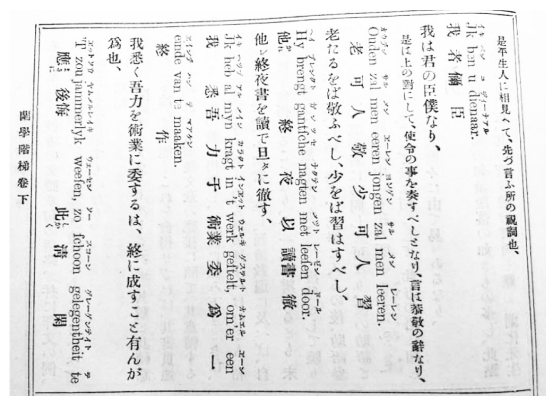
いるものといえよう。末尾の<孰れか吾れ奇を好むと謂はんや>という語は、<訓讀>を当然視する世間と對決して、それを<翻譯>として再定義しながら中國語勉強の新しい學習法を提示する自身の學問的方法論を防禦する言葉であろう。徂徠の認識と提言はそれほど衝撃的であり、世間の批評も相当なものであったことが窺える。

とはいえ、徂徠がいう<譯>は、現在の英文テキストなどを翻譯するときのように、その原文を省略して翻譯文のみを掲載するような形態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見逃してはならない<sup>26)</sup>。徂徠はあくまでも漢文原文を挙げておいて、そこに伝統的な訓讀の方法に従って返り点や送り仮名を加えていく方式に拘っている。

徂徠が《訓譯示蒙》のなかで<訓>と<譯>の差異を示そうとして、《大學章句》の冒



<別첨 4 <訓>と<譯>の一番の差異>  
(荻生徂徠, 《訓譯示蒙》)



<別첨 5 原文尊重の方式>  
(《蘭學階梯》卷下成語(文明源流叢書第一, 國書刊行會, 239頁))

頭の<古之大學所以教人之法也>を挙げて説明することを見ても、前の川本が指摘したような<原文尊重>の姿勢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ここで徂徠は、<訓>と<譯>の一番の差異を<所以>をどのように読むかで求めているが、その處理を原文の傍に訓点を利用して小文字で記入する、つまり、<譯>といっても結局一種の訓讀になるわけである。今日の漢文翻譯書においても主人公の座を譲らない訓讀の根強い生命力の源泉が、ここにあるのかもしれない。

このように<譯>といっても訓点を利用して漢字の一字一字に日本語を配当して読んでいく<原文尊重の方式>は、前で引用した柳父の言葉のように、日本が西洋言語と對面した時、蘭學訓讀をはじめとして英文訓讀、仏文訓讀などの翻譯のなかでも受け継がれていった。漢文訓讀が、<翻譯用の文章語>の基礎を作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

ここで<翻譯用の文章語>の發展を考える

26) 田尻祐一郎《荻生徂徠》(叢書日本の思想家、明德出版社、2008年)92頁。

とき、もう一つ加えておきたいのは、たとえ徂徠は漢文原文を尊重する姿勢を貫いたが、江戸時代の他の儒學者をみれば、漢文訓讀を応用した、いわば<漢字仮名交じり文>の著述活動も活発であ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特に、すでに言及した貝原益軒

貝原益軒『和俗童子訓』

「凡そ、人となれるものは、皆天地の徳をうけ、心に仁・義・礼・智・信の五性を生まれつきたれば、其性のままに従へば、父子、君臣、夫婦、長幼、朋友の五倫の道、行はる。是人の、万物にすぐれて貴き処なり。ここを以て、人は万物の靈、と云へるなるべし。」

「教育勅語」

「我カ臣民、克ク忠ニ、克ク孝ニ、億兆心ヲ一ニシテ……。進テ公益ヲ廣メ、世務ヲ開キ、常ニ国憲ヲ重シ、国法ニ遵ヒ、一旦緩急アレハ、義勇公ニ奉シ、以テ天壤無窮ノ皇運ヲ扶翼スヘシ。」

<別添 6 貝原益軒(가이바라 에키켄)>

が有名であるが、ともかく、子安宣邦は、<私は仮名交じりぶんという日本語文の成立は、この漢文テキストの訓讀化(和訓化)と不可分だと考えている。漢文の訓讀から和文が生まれてくるのである><sup>27)</sup>と主張している。

問題は、漢文訓讀に基づいた日本語文の成立を、柳父のように肯定的に捉える視角もあるが、日本語に対する<侵入><sup>28)</sup>として否定的に捉える立場も厳然として存在するということである。たとえば、有名な<教育勅語>に対する津田左右吉(1873～1961)の批判(文法的な指摘)が象徴的である。<教育勅語>は李退溪とも繋がる儒學者の元田永孚(1818～1891)が草案を作成したもので、仮名交じり文の形式を取っている<sup>29)</sup>。

津田は<教育勅語>が漢文訓讀体で書かれたことを指して、次のように批判する。

勅語の文体がいはいゆる漢文書き下ろし風であるのみならず、そのほとんどすべてが對稱の句によつて成りたつてゐる点においても、古典的シナ文、すなはちいはゆる漢文、の通例である修辭法が用ゐてあることを知らねばならぬ。勅語の内容がこの修辭法によつて制約せられてゐる形跡さへ見へる。勅語の發せられてまもないころには、それをそのまゝ、漢文の形にして書き寫すことが行はれたほどである。<一旦緩急アレバ>の語が國語の語法に背いてゐるといふこともいはれてゐたが、憲法發布の時の勅語にも國語としては語脈のとほらぬところがあるので、これは起草者が、國語學の知識に乏しい、いはゆる漢學者の系統に屬するものであつたからのことであろう<sup>30)</sup>。

津田は、彼自身が儒學や漢文學の分野に數多くの研究成果を残したにも拘わらず、儒

27) 子安宣邦《漢字論-不可避の他者》(岩波書店、2003年)74頁。

28) 東北帝國大學の國語學者であつた山田孝雄(1873～1958)は、彼の《國語の中に於ける漢語の研究》(宝文館、1940年)のなかで、<抑も漢語のわが國語の内に侵入せることは著しき事實>(序、1頁)といい、かゝる際に、自國語といふものを顧みずして外來語に心酔沒頭せば、その國語は或は破滅せられ、或は滅亡し果つる虞なしとせず>(529頁)といい、漢語をはじめとする外國語に対する注意を促していた。

29) <教育勅語>の最終文案の作成者は井上毅。元田と同じ熊本藩の時習館出身者である。

30) 教育に關する勅語について>(《津田左右吉全集》第21卷、岩波書店、1981年、初出は1946年)235頁。津田が間違つた日本語として指摘する<一旦緩急アレバ>は、順接の確定條件や恒常的な條件を表現する言葉なので、<ひとたび緊急事態があるので>や<ひとたび緊急事態のときはいつも>といった怪しい日本語になってしまう、正しくは順接の仮定條件の<～アラバ>を使うべきだということ(高橋陽一《くわしすぎる教育勅語》、太郎次郎社エディタス、2019年、67頁)。

學などの中國思想とそれの基礎となる漢文/漢字に對して辛辣な批判を浴びせており、それらは日本文化の發展にも實質的に何の影響も与えていないと低評価していた。ここでより子細な内容や理由をもっと追求していくのは、本發表の方向とも合わないので省くことにして、ただ戦前の無條件的な國粹主義者とは一線を畫す合理的な知識人の一人であった彼の、漢字/漢文、ひいては漢文訓讀に對する反對意見をもう一つ紹介することで、簡單ではない漢文訓讀＝翻譯の歴史的背景を確認することに留めたい。＜ニホンジ人は、ニホンのことばをよくするために、できるだけ早く、シナ文字をつかふことをやめてゆくようにしなくてはならぬこと、いはゆる漢文と結びついてゐる過去のシナふうの學問のしかたや事物の考へかたは、現代文化の基礎である現代の學問の精神および方法と一致しないものであるから、漢文は普通教育の教化から除かねばならぬこと、またニホン人は、學問の立場からいつても、シナの文化に對する學問的研究と批判とをつとめねばならぬこと、などを述べておいたが、これらは今日かへつて強く主張すべきことであらうと思はれる＞<sup>31)</sup>と。

最後にもう一つ、津田が明治以後の近代に入って、儒教を含めた中國文化の不必要性に基ついて漢文訓讀を廢止することを主張したのであれば、徂徠と春台を繼承するという立場でうもっと確實な中國文化の理解のために漢文訓讀を止めることを主張した學者たちも現れた。代表的に、重野安繹(1827～1910)、青木正兒(1887～1964)、倉石武四郎(1897～1975)などである<sup>32)</sup>。このなかで倉石の、いわば＜漢文訓讀塩鮭論＞を紹介する。

論語でも孟子でも、訓讀をしないと氣分がでないといふ人もあるが、これは孔子や孟子に日本人になってもらはないと氣が済まないのと同様で、漢籍が國書であり、漢文が國語であった時代の遺風である。支那の書物が、好い國語に翻譯されることは、もっとも望ましいことであるが、翻譯された結果は、多かれ少なかれその書物の持ち味を棄てることは免れない、立体的なものが平面化することが想像される。持ち味を棄て、平面化したものに慣れると、その方が好くなるのは、恐るべき麻痺であって、いはば信州に育つたものが、生きのよい魚よりも、塩鮭をうまいと思ふ様なものである<sup>33)</sup>。

以上を要するに、日本の漢文テキストの翻譯の背景には、中國語直讀論、翻譯としての訓讀論、そして日本語のアイデンティティーなど、簡單ではない色々の問題が横たわっていることが分かる。

31) 津田左右吉《シナ思想と日本》(岩波新書、1947年)まへがき vi 頁。

32) 陶徳民<近代における<漢文直讀>論の由緒と行方問題>(中村春作外編《訓讀論—東アジア漢文世界と日本語》(勉誠出版、2008年)。

33) 倉石武四郎《支那語教育の理論と實際》(岩波書店、1941年)44～45頁。

### 三. 漢文テキストの翻譯狀況—叢書シリーズを中心に

明治以後、時代の一方では漢字/漢文、さらに漢文訓讀の廢止論も叫ばれていたが、また一方では漢文テキストの近代的な翻譯事業も次第に地歩を廣めていった。以下、十三經を含める叢書シリーズを中心として、近代から現代に至るいくつかの主要な作業を紹介しよう<sup>34)</sup>。

なお、調査は主に、國立國會図書館、CiNii Articles/Books、筑波大學附屬図書館が提供する書誌情報及び該当出版社の解説部分などを参照した。

#### 1) <漢文大系>

|     |                                                                                                                                                                                                                                                                                                                               |
|-----|-------------------------------------------------------------------------------------------------------------------------------------------------------------------------------------------------------------------------------------------------------------------------------------------------------------------------------|
| 出版社 | 富山房                                                                                                                                                                                                                                                                                                                           |
| 刊行年 | 1909～1916年(1970年代に復刊)                                                                                                                                                                                                                                                                                                         |
| 内 容 | 全22卷(附録1)。十三經關係書は7冊。<br>1(大學說/大學章句/中庸說/中庸章句/論語集說/孟子定本), 2(箋解古文真寶(後集)/增註三體詩/箋註唐詩選), 3·4(唐宋八家文上/下), 5(十八史略/小學箋註/御註孝經/弟子職), 6·7(史記列傳上/下), 8(韓非子翼義), 9(老子翼/莊子翼), 10·11(春秋左氏會箋上/下), 12(毛詩/尚書), 13(列子/七書), 14(墨子問詁), 15(荀子), 16(周易/伝習錄伝), 17(礼記/礼器圖), 18(文章軌範/古詩賞析), 19(戰國策正解), 20(淮南子/孔子家語), 21(管子纂詁/晏子春秋), 22(楚辭/近思錄), 附録1卷(各卷索引) |
| 備 考 | 本格的な現代語翻譯ではなく、訓点を加えたものであるが、韓國でもよく知られていると思うので、紹介する。欄外に必要なによって仮名交じり文で注解を載せている。                                                                                                                                                                                                                                                  |

富山房の漢文大系の解説 (<http://fuzambo.net/kanbuntaikei.html>)

#### 2) <国訳漢文大成> <続国訳漢文大成>

|     |                                                                                                                                                                                                              |
|-----|--------------------------------------------------------------------------------------------------------------------------------------------------------------------------------------------------------------|
| 出版社 | 國民文庫刊行會                                                                                                                                                                                                      |
| 刊行年 | 國譯漢文大成(1920～1924), 續國譯漢文大成(1928～1932)<br>(2000年に日本図書センターから1939～41年刊行の 간행의 《國譯漢文大成》全10卷を底本にして全20卷の叢書復刊)                                                                                                       |
| 内 容 | <國譯漢文大成> 全40卷。十三經關係書は8冊。<br>經子史部1(大學/中庸/論語/孟子/孝經), 2(易經/書經), 3(詩經), 4(礼記), 5·6(春秋左氏伝), 7(老子/列子/長子), 8(荀子/墨子), 9(韓非子/商子), 10(孫子/吳子/司馬法/尉繚子/六韜/三略/李衛公問對/鬼谷子/新語), 11(淮南子), 12(戰國策), 13～16(史記), 17(國語), 18(晏子春秋/ |

34) 調査は主に、國立國會図書館、CiNii Articles/Books、筑波大學附屬図書館が提供する書誌情報及び該当出版社の解説部分などを参照した。

國立図書館 <https://www.ndl.go.jp/>

CiNii(Articles/Books) <https://ci.nii.ac.jp/>

筑波大學附屬図書館 <https://www.tulips.tsukuba.ac.jp/lib/>

|    |                                                                                                                                                                                                                                                                                                                                                                                                     |
|----|-----------------------------------------------------------------------------------------------------------------------------------------------------------------------------------------------------------------------------------------------------------------------------------------------------------------------------------------------------------------------------------------------------|
|    | 公孫龍子/新書/, 19(管子), 20(呂子春秋)<br>文學部1(楚辭), 2~4(文選), 5(唐詩選), 6(三體詩), 7·8(唐宋八家文), 9(西廂記/琵琶記),<br>10(還魂記/漢宮秋), 11(桃花扇), 12(晉唐小説), 13(剪燈新話/剪燈余話/宣和遺事), 14~16<br>(紅樓夢), 17(長生殿/燕子箋), 18~20(水滸伝)<br><續國譯漢文大成> 全46卷<br>經子史部1~16(資治通鑑), 17·18(資治通鑑目錄), 19·20(廿二史劄記), 21(宋名臣言行<br>錄), 22(貞觀政要), 23·24(讀通鑑論)<br>文學部1~3(李太白詩集), 4~6(杜少陵詩集), 7·8(韓昌黎集), 9~12(白樂天詩集), 13~<br>17(蘇東坡詩集), 18(陶淵明集/王右丞集), 19~22(高青邱詩集) |
| 備考 | 全譯。基本的に, 訓讀, 原文, 注解, 解説の構成。解説は巻毎に少しずつ異なる体<br>裁として, 釋義, 大義, 評論, 句釋などからなっている。                                                                                                                                                                                                                                                                                                                         |

日本圖書センターの解説 (<http://www.nihontoshio.co.jp/2000/09/post-530.html>)



<별첨 7 國譯漢文大成 國譯論語>

(日本圖書センター復刻本)

### 3) <全釋漢文大系>

|     |                                                                                                                                                                                      |
|-----|--------------------------------------------------------------------------------------------------------------------------------------------------------------------------------------|
| 出版社 | 集英社                                                                                                                                                                                  |
| 刊行年 | 1973～1980                                                                                                                                                                            |
| 内 容 | 全33巻。十三經關係書は6冊。<br>1(論語), 2(孟子), 3(大學/中庸), 4～6(春秋左氏伝), 7・8(荀子), 9・10(易経), 11(尚書), 12～14(礼記), 15(老子), 16・17(莊子), 18・19(墨子), 20・21(韓非子), 22(孫子/吳子), 23～25(戰國策), 26～32(文選), 33(山海経/列仙伝) |
| 備 考 | 全譯。原文, 訓讀, 通釋(現代語譯)・語釋(解説)の構成                                                                                                                                                        |

### 4) <新釋漢文大系>

|     |                                                                                                                                                                                                                                                                                                                                                                                                                                                                                                                                                                                                                                                                                                                                 |
|-----|---------------------------------------------------------------------------------------------------------------------------------------------------------------------------------------------------------------------------------------------------------------------------------------------------------------------------------------------------------------------------------------------------------------------------------------------------------------------------------------------------------------------------------------------------------------------------------------------------------------------------------------------------------------------------------------------------------------------------------|
| 出版社 | 明治書院                                                                                                                                                                                                                                                                                                                                                                                                                                                                                                                                                                                                                                                                                                                            |
| 刊行年 | 1960～2018。別に詩人編全12巻(既刊3冊, 未刊9冊, 2024年5月完結予定)                                                                                                                                                                                                                                                                                                                                                                                                                                                                                                                                                                                                                                                                                    |
| 内 容 | 全120巻(別巻1)。十三經關係書は8冊。<br>1(論語), 2(大學/中庸), 3(小學), 4(孟子), 5・6(荀子), 7(老子/莊子上), 8(莊子下), 9・10(古文眞宝前集), 11・12(韓非子), 13(伝習録), 14・15(文選詩篇), 16(古文眞宝), 17・18(文章軌範正編), 19(唐詩選), 20・21(十八史略), 22(列子), 23・24(易経上中), 25・26(書経), 27～29(礼記), 30～33(春秋左氏伝), 34(楚辭), 35(孝経), 36(孫子/吳子), 37(近思録), 38～41(史記本紀/十表1/八書), 42・43(管子上中), 44(唐代伝奇), 45・46(日本漢詩), 47～49(戰國策), 50・51(墨子), 52(管子下), 53(孔子家語), 54・55(淮南子上中), 56・57(續文章軌範), 58・59(蒙求), 60・61(玉台新詠), 62(淮南子下), 63(易経下), 64・65(文心雕龍), 66・67(國語), 68・69(論衡上中), 70～75(唐宋八大家文讀本1～6), 76～78(世説新語), 79～83(文選), 84(中國名詞選), 85～92(史記世家/列伝), 93(文選文章編下), 94(論衡下), 95・96(貞觀政要), 97～109(白氏文集1～13), 110～112(詩経), 113(大戴礼記), 114(唐宋八大家文讀本7), 115(史記列伝6), 116(史記下十表2), 117～119(白氏文集), 120(史記列伝7), 別巻(漢籍解題事典) |
| 備 考 | 全譯。原文, 訓讀, 通譯(現代語譯), 語釋(難字解説), 余説(文意)の構成。                                                                                                                                                                                                                                                                                                                                                                                                                                                                                                                                                                                                                                                                                       |

明治書院の解説

<https://www.meijishoin.co.jp/news/n3343.html>

### 5) <中國古典文學大系>

|     |                                                                                                                                                                                                                            |
|-----|----------------------------------------------------------------------------------------------------------------------------------------------------------------------------------------------------------------------------|
| 出版社 | 平凡社                                                                                                                                                                                                                        |
| 刊行年 | 1967～1975                                                                                                                                                                                                                  |
| 内 容 | 全60巻。十三經關係書は7冊。<br>1(書経/易経), 2(春秋左氏伝), 3(論語/孟子/荀子/礼記), 4(老子/莊子/列子/孫子/吳子), 5(韓非子/墨子), 6(淮南子/説苑), 7(戰國策/國語/論衡), 8(抱朴子/列仙伝/神仙伝/山海経), 9(世説新語/顔氏家訓), 10～12(史記), 13(漢書/後漢書/三國志列伝選), 14(資治通鑑選), 15(詩経/楚辭), (以下, 詩文, 小拙類などの他書目は省略) |
| 備 考 | 抄譯。訓讀を行わずに, 専ら現代語譯を基本とした構成。                                                                                                                                                                                                |

## 6) &lt;中國古典新書 / 中國古典新書續編&gt;

|     |                                                                                                                                                                                                                                                                                                                                                                                                                                                                                                                                                                                                                                                                                                                                                                                                                                                                                                                                                                                                                                                                                                                                                                                                                                                                                  |
|-----|----------------------------------------------------------------------------------------------------------------------------------------------------------------------------------------------------------------------------------------------------------------------------------------------------------------------------------------------------------------------------------------------------------------------------------------------------------------------------------------------------------------------------------------------------------------------------------------------------------------------------------------------------------------------------------------------------------------------------------------------------------------------------------------------------------------------------------------------------------------------------------------------------------------------------------------------------------------------------------------------------------------------------------------------------------------------------------------------------------------------------------------------------------------------------------------------------------------------------------------------------------------------------------|
| 出版社 | 明德出版社                                                                                                                                                                                                                                                                                                                                                                                                                                                                                                                                                                                                                                                                                                                                                                                                                                                                                                                                                                                                                                                                                                                                                                                                                                                                            |
| 刊行年 | 1967～現在(最新刊は2006)                                                                                                                                                                                                                                                                                                                                                                                                                                                                                                                                                                                                                                                                                                                                                                                                                                                                                                                                                                                                                                                                                                                                                                                                                                                                |
| 内 容 | <p>中國古典新書100卷。十三經關係書8冊。</p> <p>1・2(論語), 3(老子), 4(孫子), 5(公孫龍子), 6(榮根譚), 7(貞觀政要), 8(近思錄), 9(塩鐵論), 10(抱朴子), 11(墨子), 12(大學/中庸), 13(莊子), 14(十八史略), 15(蒙求), 16(韓非子), 17(漢書芸文志), 18(春秋左氏伝), 19(唐宋八家文), 20(白氏文集), 21・22(戰國策), 23(列女伝), 24(文選), 25(說苑), 26(朱子行狀), 27(國語), 28(列子), 29(緯書), 30(樂府), 31(竹窓隨筆), 32(小學), 33(晏子春秋), 34(管子), 35(三國志), 36(正蒙), 37(陰騭錄), 38(晋書), 39(世說新語), 40(商子), 41(王陽明文集), 42(楚辭), 43(文中子), 44(後漢書), 45(孟子), 46(資治通鑑), 47(淮南子), 48(五代史), 49(古文眞宝), 50(吳子), 51(新唐書), 52(天主實義), 53(孔子家語), 54(居業錄), 55(宋名臣言行録), 56(文心雕龍), 57(大戴礼), 58(太玄經), 59(五雜俎), 60(法言), 61(陸象山文集), 62(書譜), 63(史記), 64(元史), 65(新序), 66(畫論), 67(礼記), 68(五行大義), 69(伝習録), 70(荀子), 71(牧民心鑑), 72(原人論), 73(易經), 74(茶經), 75(書經), 76(金史), 77(詩藪), 78(遼史), 79(呂氏春秋), 80(滄浪詩話), 81(大同書), 82(人天寶鑑), 83(呻吟語), 84(幽夢影), 85(周易參同契), 86(春秋繁露), 87(食經), 88(醉古堂劍掃), 89(六韜/三略), 90(伊川擊壤集), 91(孝經), 92(射經), 93(劉念台文集), 94(顔氏家訓), 95(論衡), 96(神仙伝), 97(詩經), 98(帝範/臣軌), 99(唐詩三百首), 100(朱子文集)</p> <p>中國古典新書續編29卷</p> <p>1(李綱文集), 2(延平答問), 3(石鼓文), 4(諸葛孔明語録), 5(食物本草), 6(馬王堆老子), 7(素書), 8(玉燭宝典), 9(王陽明靖亂録), 10(三事忠告), 11(伊洛淵源録), 12(醒世恒言), 13(陳白沙文集), 14(眞誥), 15(漢書列伝), 16(周易本義), 17(韓詩外伝), 18(素問/靈樞), 19(尉繚子), 20(華陽國志), 21(讀書録), 22(後漢紀), 23(二十四詩品), 24(睡虎地秦簡), 25(耶律楚材文集), 26(風俗通義), 27(明夷待訪録), 28(明史), 29(勸學篇)</p> |
| 備 考 | 抄譯。基本的に原文と訓讀, 難字注解が中心である。現代語譯は省略されているものもある。                                                                                                                                                                                                                                                                                                                                                                                                                                                                                                                                                                                                                                                                                                                                                                                                                                                                                                                                                                                                                                                                                                                                                                                                                                      |

## 7) &lt;岩波文庫&gt;

|     |                                            |
|-----|--------------------------------------------|
| 出版社 | 岩波書店                                       |
| 刊行年 | 1927～現在                                    |
| 内 容 | <p>十三經關係書は4冊。</p> <p>易經, 論語, 孟子, 孝經/曾子</p> |
| 備 考 | 全譯。基本的に原文, 訓讀, 現代語譯, 難字注解の構成               |

岩波文庫解説目録(ただし、在庫本が中心)

<https://www.iwanami.co.jp/files/mokuroku/bunko2020.pdf>

以上のもの以外にも、ここで紹介できなかった多くの叢書シリーズがあり、また個別的な優れた翻譯書や研究書も、もちろんたくさん世に出ている。もっと具体的な報告は次の機会に譲り、ここでは本発表と関連して次の二点を確認しておこう。

一つは、上で煩雑になることを厭わず、取り上げた書目を一瞥すればわかるように、古代から近代に至るまで、いわば中國の文史哲を網羅する多くの翻譯書が刊行されているが、十三經のテキストに對する翻譯はその名聲ほどではなく、特定の經典に偏っており、これからの翻譯の着手を待っているものもあるという点である。上の7つのシリーズに限ってみれば、《論語》《孟子》《春秋左氏伝》《易經(周易)》の4冊が7つのシリーズすべてに入っており、《書經(尙書)》と《礼記》が6つのシリーズ、《孝經》が5つのシリーズ、《詩經(毛詩)》が4つのシリーズに、それぞれその名前を連ねている。他のテキストの《周礼》《儀礼》《春秋公羊伝》《春秋穀梁伝》《爾雅》はどこにも登場していないという事實である(個別的な成果は次節で紹介)。

もう一つは、現代語譯が編纂方針である平凡社の〈中國古典文學大系〉はさておき、大部分の翻譯書がやはり〈訓讀〉を重視しているという点である。このことは、〈國譯漢文大系〉の〈國譯〉もその内容は訓讀であり、明德出版社の〈中國古典新書〉シリーズは、現代語翻譯を省略することがあっても、訓讀は活かすという編纂であることから確認できよう。次に、十三經注疏の翻譯現況を見てみよう。

## 四. 十三經注疏の翻譯現況

調査は叢書シリーズの場合と同様に、國立國會図書館、CiNii Articles/Books、筑波大學附屬図書館が提供する書誌情報及び該当出版社の解説部分などを参照した。

### 1) 《周易正義》

刊行されている翻譯書はなく、大學紀要などの雑誌に發表した成果がある。

① 宇野茂彦、〈周易正義序譯注〉、《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96、1986。

\* 訓讀と注解の構成。

② 野間文史、〈周易正義訓讀〉、《(廣島大學)東洋古典學研究》28～49、2009～2020。

\* 28号〈序・八論〉(2009)から年1～2回の發表で49号〈咸卦・恒卦〉(2020)まで續いている連載物。原文、校訂本、訓讀の構成。

③ (東洋大學大學院中國哲學專攻の大學院生中心)、〈《周易正義》乾卦譯注稿〉1～6、《白山中國學》14～19、2008～2012。

\* 全部6回の連載物で、原文、校勘記、訓讀、現代語譯、注解の構成。



◀별첨 8 野間文史, 《周易正義訓讀》▶

## 2) 《尙書正義》

吉川幸次郎による完譯がある。

① 吉川幸次郎, 《尙書正義》1~4, 岩波書店, 1940~1943。

(《吉川幸次郎全集》8~10再收録, 筑摩書房, 1970)。

\* 訓讀を採擇せず, 現代語譯と注解が中心の構成。〈正義〉の原文は省略。訓讀を施さなかった理由について, 譯者序文で荻生徂徠と本居宣長の言葉を引用しながら, 〈訓讀の言葉は, 第一には國語の語法として不純なものであり>大ざっぱすぎるのである。國語がかくも發達した今日, 支那語の翻譯にも適当な方法が与えられねばならぬ>と記している(同上《全集》8, 18頁)。さらに, 吉川によれば, この翻譯作業は, 東方文化研究所の經學文學研究室で進めていた《尙書正義定本》の余業として出来たものである, という(同上, 17頁)。

## 3) 《毛詩正義》

部分翻譯であるが, 岡村繁と田中和夫による翻譯書が刊行されている。

① 岡村繁, 《毛詩正義譯注》1, 中國書店, 1986。

\* <毛詩正義序><詩譜序><周南召南譜><周南關雎詁訓伝>(關雎序, 關雎)を翻譯した。

《毛詩》の原文は訓讀, <正義>は現代語譯の構成。

② 田中和夫, 《毛詩注疏譯注 小雅》(一)(二)(三), 白帝社, 2010/2013/2019。

\* 《毛詩注疏譯注 小雅(一)》は毛詩注疏卷九之一と九之二, 《小雅(二)》は卷九之三

と 九之四、《小雅(三)》は卷十之一と十之二を翻譯したもの。基本的に、現代語譯を中心に必要によって訓讀も併用している。原文と校勘記、注解を載せている。

#### 4) 《周禮注疏》

《周禮注疏》の専門翻譯ではないが、《周禮》の本文と鄭玄注を翻譯したものが出ている。

- ① 本田二郎、《周禮通釋》上・下、秀英出版、1977・1979。

\* 《周禮》の原文、(原文の)訓讀、語釋(注解)、通譯(現代語譯)、鄭玄注の訓讀という構成。冒頭に<欽定四庫全書總目周禮注疏四十二卷><周禮正義序><序周禮廢興>に續けて、孫詒讓の<周禮正義書>を訓讀体で載せている。

- ② 大竹健介、<周禮正義(抄)解讀>、《武藏大學人文學會雜誌》28-1、1996。

<周禮正義注疏(抄)解讀承前>、同雜誌28-2、1997。

\* <周禮正義序>と注疏卷第一などの内容を抜粋して訓讀したもの。



<별첨 9> 田中和夫, 《毛詩注疏譯注 小雅》, 白帝社

#### 5) 《儀禮注疏》

部分翻譯書が出ている。

- ① 蜂屋邦夫、《儀禮士冠疏》、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研究報告、汲古書院、1984。

《儀禮士昏疏》、同上、1986。

\* 《儀禮士冠疏》は儀禮疏卷第一～卷第三、《儀禮士昏疏》は儀禮疏卷第四～卷第六を對象に、現代語譯と注解を載せている。儀禮疏の原文(句讀点付加)は冊の後ろに掲載。

- ② 池田末利、《儀禮》1～5(別冊図1～5)、東海大學出版會、1974～1977。

\* 鄭玄の注と賈公彦の疏以下の歴代の成果を反映しながら、《儀禮》全体を完譯したもの。各巻の内容に従った別冊図5巻も一緒に刊行されている。經(原文)、訓讀、現代語譯、注解の構成。

#### 6) 《禮記正義》

刊行されている翻譯書はなく、大學紀要などの雑誌の連載物がある。

① 大阪市立大學礼記注疏研究班、〈礼記注疏檀弓篇譯注〉1～23、

《中國學志》屯号(1988)～无妄号(2010)。

\* 《礼記》檀弓篇の經、注、經伝釋文、正義を翻譯したもの。翻譯は經、注・釋文、正義の順で提示し、訓讀の後に現代語譯を施した(ただし、釋文は現代語譯省略)。

② 末永高康、〈礼記注疏釋注稿〉1～12、《(廣島大學)東洋古典學研究》38～49、20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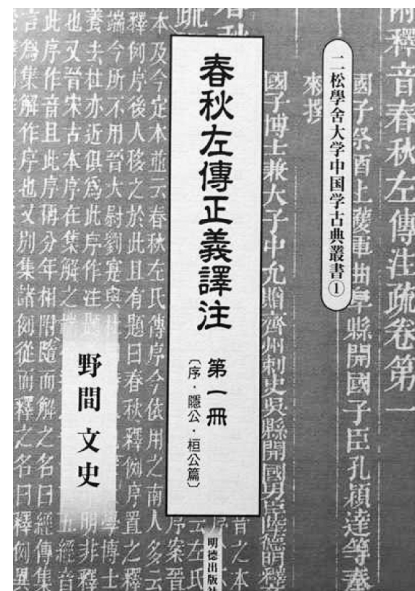
\* 38号<冠義第四十三(全)>(2014)より年1～2回發表で49号<曾子曾子問第七>(2020)まで續いている連載物(發表者未確認)。

### 7) 《春秋左傳正義》

野間文史による完譯本がある。

① 野間文史、《春秋左傳正義譯注》第一冊～第六冊、二松學舍大學中國學古典叢書、明德出版社、2017～2019。

\* 《春秋正義》について現代語譯をし、譯注を施した完譯である。譯文の理解を助けるために經文、伝文、注文を付している。經文と伝文は原文のみ、注文には原文の後に訓讀文を載せている。第一冊は序/隱公/桓公篇、第二冊は莊公/閔公/僖公篇、第三冊は文公/宣公/成公篇、第四冊は襄公篇、第五冊は昭公篇、第六冊は定公/哀公篇。



<별첨 10> 野間文史,  
《春秋左傳正義譯注》, 明德出版社

### 8) 《春秋公羊傳注疏》

部分翻譯が刊行されている。

① 公羊注疏研究會、《公羊注疏譯注稿 隱公元年—哀公十四年》、汲古書院、2007。

\* 1976年に發足した公羊注疏研究會の《春秋公羊解詁》《公羊疏》の會讀の成果を反映したもので、以前、同じ汲古書院で刊行した《公羊注疏譯注稿》1～6巻及び哀公十四年巻までの7冊を合本した。上段に原文、下段に現代語譯を示した(原文は中國式の標点法に従って句讀を施し、そこに日本式の訓点を加えた)。

### 9) 《春秋穀梁傳注疏》

部分翻譯が刊行されている。

① 田中麻紗巳、《春秋穀梁伝楊士勛疏》、汲古書院、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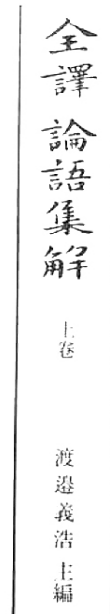
\* 穀梁伝序と隱公(卷一)から閔公(卷六)までを翻譯したもの。疏は原文の後に訓讀と現代語譯を提示し、經・伝・注については原文の後に訓讀のみを載せている。

#### 10) 《論語注疏》

何晏<集解>の完譯本が刊行されている。

① 渡邊義浩編、《全譯論語集解》上/下、汲古書院、2020。

\* 《論語注疏》の中で何晏の<集解>部分を完譯したもの。句讀点を加えた原文、校勘、訓讀、譯注、現代語譯、參校の順で構成。



#### 11) 《孝經注疏》

雑誌連載物がある。

① 宮本勝他、<孝經注疏訓注>1～4、《(北海道大學)中國哲學》14～18、1985～1989。

\* 發表者未確認。

<별첨 11> 渡邊義浩 編,  
《全譯論語集解》上/下, 汲古書院, 2020.

#### 12) 《爾雅注疏》

\* 該当するものなし。

#### 13) 《孟子注疏》

\* 該当するものなし。

以上で日本の十三經注疏の翻譯現況を調べてみた。完譯本としては80余年前に出た吉川幸次郎の《尙書正義》と近年の野間文史による《春秋左伝正義譯注》の2冊があることを確認した。他の部分的な翻譯の大部分は、譯者たちの高齢化などの理由によってあまり後續作を期待できない状況ではないかと推測する。

## 五. おわりに

以上、江戸時代に古文辭學の方法論を主張した荻生徂徠と太宰春台の訓讀論を対象にして、彼らの主張が持っている意義を考察し、次に日本における漢文テキストの全体的な翻譯狀況、そして現在までの十三經注疏の翻譯狀況を調査した。

第二節の従來の<訓讀>に對する徂徠學派の異議提起は、近代のいわゆる支那學派にまで影響を及ぼし、國語としての日本語に對する外國語という觀點を含めて訓讀、さらには漢字・漢文の廢止あるいは持續の論議を呼び起こし、一方では近代的な<翻譯>へと發展していく基盤の役割も果たした。韓國との比較の視点では、<訓讀>をめぐる問題は、つまるところ、吏讀、口訣、そしてハングルの創製による<諺解>などで漢字・漢文を早くから外國語として認識してきた韓國とは事情が異なる、という点をまず考慮に入れるべき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にもかかわらず、現實では大部分の翻譯書が訓讀を重要な要素として採擇していることを、第三節で確認した。もう一つは、古代から近代に至るまでの、中國の文史哲を網羅する多くの翻譯書が世に出ているが、十三經のテキストに對する翻譯はその名聲ほどではなく、特定の經典に偏っており、これからの翻譯の着手を待っているものもあることを確かめた。

第四節では、日本の十三經注疏の翻譯現況について、完譯本としては吉川幸次郎の《尚書正義》と野間文史による《春秋左伝正義譯注》の2冊があることを確認し、これまで翻譯・研究を先導してきた中心的な譯者たちの高齢化などの理由によって後續作を期待できない状況ではることを推測してみた。さらに、この分野は中國學專攻者の個人あるいは少數のグループによる研究がほとんどであり、研究費も個人申請の科研費に頼っていることが多いように見られる。人文學そのものの立地もますます狭くなっている現實のなかで、翻譯事業のための安定的な研究環境と新進學者の確保はより一層厳しくなるのではないかと危惧される。

伝統文化研究會の活發な活動を期待したい。

[주제발표 2](번역문)

## 일본의 漢文訓讀의 전통과 번역 현황 - 十三經注疏와 관련하여 -

嚴 錫 仁  
(筑波大學)

1. 들어가는 말
2. 徂徠學派의 訓讀의 否定과 그 의미
3. 한문텍스트의 번역 상황--총서시리즈를 중심으로
4. 十三經注疏의 번역 현황
5. 맺는말

### <논문요약>

현재 출판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한문고전에 대한 번역서의 체제를 비교해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출판사의 출판 의도나 비용 등의 여러 사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전통문화연구회에서 간행한 번역서를 보더라도 먼저 漢文原典을 표시하고 뒤이어 한글 번역을 싣고, 難字해설이나 文意 등을 본문이나 각주로 나타내는 형식이 보통일 것이다. 이에 비하여 일본의 번역서에는 대체로 한문원전과 현대일본어 번역의 중간에 ‘군도쿠분(訓讀文)’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식의 문장이 놓인다고 하는 점이다.

일본의 漢文訓讀은 사전적 정의로 “일본어문법에 따라서 읽는 한문”을 가리키며, 다른 말로 가키쿠다시분(書下し文), 요미쿠다시분(讀下し文) 등으로도 불린다. 말하자면 조선시대의 諺解文에 해당하는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사라져버린 한문해석의 방법이 일본에서는 오늘날까지도 한문과 현대어의 중간에서 마치 그 둘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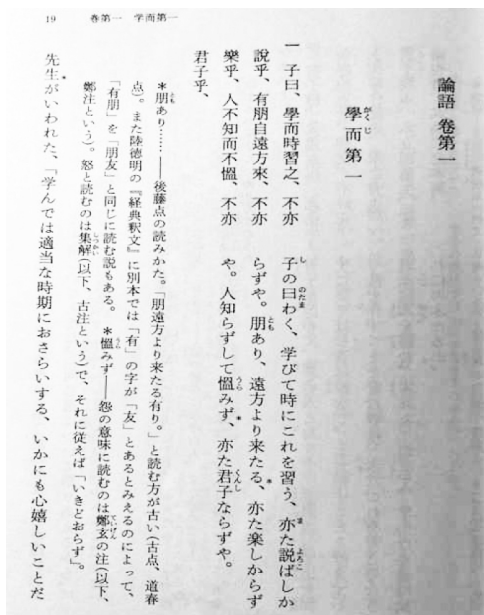
이런 일본의 漢文訓讀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그 자체로 중층적이고 모순적인 일본문화의 한 특성으로 설명하기도 하며, 특히 번역론과 관련하여서는 漢文訓讀體가 현대일본어에서 번역용의 文章語=記述言語의 원형이 되며, 세계에서 드문 독특한 해석방법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적어도 같은 한자문화권 속의 한국과 비교해 볼 때 조선시대의 諺解와 같은 古文法에 의한 옛날식의 문장=군도쿠(訓讀)를 오늘날의 번역문에서도 필수요소로 지

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문텍스트에 대한 일본의 독특한 해석방법으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발표에서는 먼저 현대의 한문텍스트의 번역이 어떤 역사적, 사상적 맥락을 배경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는지를 에도(江戸) 시대에 朱子學의 新注를 비판하면서 古文辭學을 주장한 오규 소라이(荻生徂徠)와 그의 제자인 다자이 순다이(太宰春台)의 訓讀論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일본의 十三經 번역을 중심으로 한문 텍스트의 전체적인 번역 상황을 개관한 후, 현재까지의 十三經注疏의 번역 상황은 어떠한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 1. 들어가는 말

현재 출판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한문텍스트에 대한 번역서의 體裁를 비교해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출판사의 출판 의도나 비용 등의 여



<별첨 1 군도쿠분(訓讀文)>

(金谷治 譯注, 《論語》 岩波文庫, 2018年 17刷)

러 사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말 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전통문화연구회에서 간행한 번역서를 보더라도 먼저 漢文原文을 표시하고 뒤이어 한글 번역을 싣고, 번역자의 注解나 文意 등을 본문이나 각주로 나타내는 형식이 보통일 것이다. 이에 비하여 일본의 번역서에는 대체로 원문과 현대일본어 번역의 중간에 ‘군도쿠분(訓讀文)’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식의 문장이 놓인다고 하는 점이다.<sup>1)</sup>

일본의 漢文訓讀은 사전적 정의로 “일본어문법에 따라서 읽는 한문”을 가리키며, 다른 말로 가키쿠다시분(書下し文), 요미쿠다시분(讀下し文) 등으로도 불린다.<sup>2)</sup> 말하자면 조선시대의 諺解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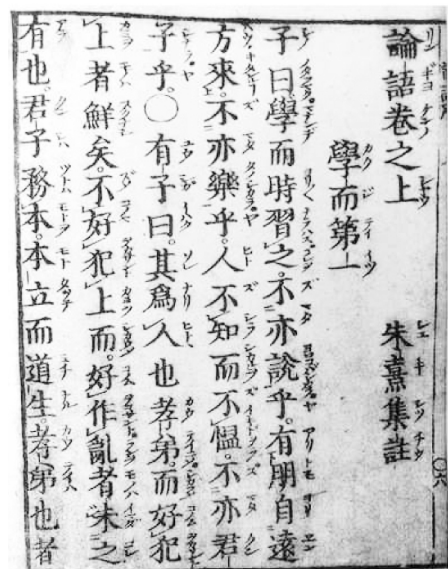
- 1) 原文과 訓讀文 등의 배치는 전후상하 각각의 특성이 있을 것이다. 더불어, 발표에서 사용하는 ‘訓讀’의 개념은 ‘한자의 뜻을 새기어 읽는다’고 하는 일반적인 맥락이 아니라, 일본에서 漢文을 읽고 해석하는 독자적인 방식을 가리킨다.
- 2) 新村出編, 《廣辭苑》第七版, 岩波書店, 2018년, 889쪽. 한문을 訓讀할 때는 기본적으로 訓點(句讀點, 送り點, 送り假名)을 이용하여 원문의 좌우에 기입한다. 한문의 읽는 순서를 표시하는 것이 왼쪽에 기입하는 レ, 一二三, 上中下 등의 부호나 숫자를 가에리텐(送り點), 오쿠리가나(送り假名)는 활용어미나 조사조동사 등을 나타내는 가나 문자로 오른쪽에 기입한다.

에 해당하는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사라져버린 한문해석의 방법이 일본에서는 오늘날까지도 한문과 현대어의 중간에서 마치 그 둘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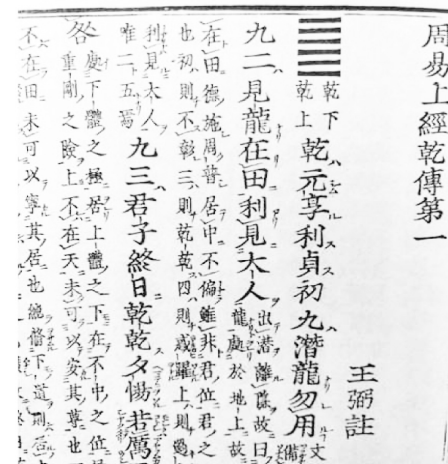
이런 일본의 漢文訓讀에 대하여 비교문학자인 가와모토 고지(川本皓嗣)는 “이른바 한문, 또는 일본에서의 구체적인 존재양식인 漢文訓讀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가사의하다. 애매하고 정체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과 더불어, 그것과는 반대로 존재의 중량감, 거대함 그리고 심층적이라는 점에서 그야말로 일본문화의 전형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듯하다”<sup>3)</sup>라고 하여 그 자체로 중층적이고 모순적인 일본문화의 한 특성으로 간주한다. 나아가 가와모토는 漢文訓讀이 일본문화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구체적인 일례로서 번역론상의 기여를 거론하는데, 본 발표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漢文訓讀은 단순히 빠르고 쉽게 외국어를 해석하기 위하여 고안된 편리한 방법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번역문 속에 가능한 한 원문의 자태를 남겨 두고자 하는 번역의 특이한 한 형태로서, 즉 번역문의 자연스러움과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원문 존중의 태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번역의 극한적인 한 형태로서 번역론상에 흥미로운 문제를 제공하고 있다.<sup>4)</sup>

이렇게 직역에 가까운 漢文訓讀이 일본에서 수백년에 걸쳐 행해져 온 이유에 대하여 가와모토는 지금까지 ‘이런 물음 자체도 거의 없었다’고 하면서 자신은 “일본에서는 한문이 단순한 외국어 텍스트라는 영역을 넘어서 神聖視, 聖典視되었기 때문”<sup>5)</sup>이라고 답하고 있다. 한문학자가 아닌 이른바 部外者인 영문학 전공자의 비교문학적인 시각에서의 지적인 까닭에 묘하게 설득력을 갖는 주장이기도 한데, 이와 같은 漢文訓讀과 번역론의 관계



<별첨 2 가키쿠다시분(書下し文)>  
(《傍訓論語》(江戸前期刊本), 遊學社, 2013年)



<별첨 3 요미쿠다시분(讀下し文)>  
(《周易》(寛永頃刊本)  
《和刻本經書集成註之部第一輯》, 汲古書院, 1977年)

3) 川本皓嗣, <漢文訓讀とは何か—翻譯論と比較文化論の視點から>, 《大手前大學論集》11号, 2010년, 1쪽.

4) 상동논문, 2쪽.

5) 상동논문, 21쪽.

에 대하여 일본의 대표적인 번역어연구자인 야나부 아키라(柳父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漢文訓讀’이라고 하는 읽기는 근대 이후의 ‘번역’에 있어서도 특히 중요하다. 그것은 이윽고 근세로부터 근대에 걸쳐서 일본인이 서양언어와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이 ‘漢文訓讀’ 방법이 형태를 바꾸어 ‘英文訓讀’ ‘佛文訓讀’ 등으로 계승되어 갔기 때문이다. ……요컨대 일본인은 전통적인 야마토(大和) 언어계통의 일본어와는 별도로 번역용의 다른 하나의 일본어의 文章語, 즉 ‘漢文訓讀體’를 만들어 온 것이다. 이야말로 세계에서 드문, 일본인이 육성해 온 독특한 해석방법이었다.<sup>6)</sup>

야나부는 漢文訓讀體가 현대일본어에서 번역용의 文章語=記述言語의 원형이 되며, ‘세계에서도 드문 독특한 해석방법’임을 말하고 있다. 정말로 세계에서 드문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같은 한자문화권 속의 한국과 비교해 볼 때 조선시대의 諺解와 같은 古文法에 의한 옛날식의 문장=군도쿠(訓讀)를 21세기의 오늘날의 번역문에서도 필수요소로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문텍스트에 대한 일본의 ‘독특한 해석방법’으로 인정해도 좋을 것이다.

본 발표의 중심 과제는 일본에서의 十三經注疏의 번역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본식의 漢文訓讀과 번역론을 다루는 것은 이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적을지라도, 현대의 한문텍스트의 번역이 어떤 역사적, 사상적 맥락을 배경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는지를 잠시 살펴보는 것도 전혀 무의미한 작업은 아닐 것이다.

위에서 가와모토와 야나부의 현대 연구자의 시각을 소개하였는데, 사실 訓讀이 번역이라는 자각과 지적은 에도(江戸) 시대의 유학자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1666~1728)에 의해 표면화된 것이었다. 朱子學의 新注를 비판하면서 先王의 道는 중국 고대의 언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古文辭學의 방법론을 주장한 소라이였기에, 六經을 중심으로 한 고대의 경전과 《論語集解》 등의 古注에 대한 이해와 인용도 남달랐다. 먼저 소라이와 그의 경학론 부분을 계승한 제자인 다자이 순다이(太宰春台, 1680~1747)의 訓讀論을 대상으로 그들의 주장이 갖는 의미를 논해 보고, 다음으로 일본에서의 한문텍스트의 전체적인 번역 현황(十三經 번역을 중심), 그리로 현재까지의 十三經注疏의 번역 상황은 어떠한지를 소개하는 순서로 본 발표를 진행하고자 한다.

6) 柳父章, <日本における翻譯—歴史的的前提>, 《日本の翻譯論—アンソロジーと解題》, 法政大學出版局, 2010년, 3쪽.

## 2. 徂徠學派의 訓讀의 否定과 그 의미

위에서 소라이의 古文辭學을 언급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다.

공간(宇)의 확장은 시간(宙)의 격차와 같고, 시간의 격차는 공간의 확장과 같다. 그런 까닭에 현재의 언어로 고대의 언어를 보고 고대의 언어로 현재의 언어를 본다면 어떤 경우든 서로 의미가 통하지 않는 외국어와 같은 것이 된다. 그 점에서 (시간적인)고대의 科斗文字와 (공간적인)인도의 貝多樹의 잎에 기록한 佛經은 서로 다름이 없다. 시대는 언어를 싣고 변해가며, 언어는 道를 싣고 변해간다. 道가 밝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sup>7)</sup>

같은 언어(漢字)라고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달라지기에, 聖人の 道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라이 당시의 학문연구의 표준이었던 주자학적인 ‘今言’이 아니라 중국 고대의 ‘古言’에 기초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二程과 朱熹도 古文辭를 몰랐다고 폄하하는<sup>8)</sup> 소라이는 이 방법론을 中年에 이르러 ‘하늘의 寵靈’으로 얻었다고 하는데,<sup>9)</sup> 여기에는 당연히 일본인으로서 일본어와 다른 중국어(소라이의 말로 中華語, 崎陽之學<sup>10)</sup> 등)에 대한 자각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중년 이전부터 외국어로 마주한 중국어에 대한 이해가<sup>11)</sup> 古文辭學의 방법론을 선도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 입장은 일본식 漢文訓讀에 대한 再認識과 否定으로 나타난다. 일본어에서 訓讀은 ‘번역’이라는 재인식이고, 訓讀의 부정은 중국어 학습을 통한 漢文直讀의 새로운 공부법의 제안으로 이어진다. 다음은 소라이 50세(1715년)에 간행한 語學書인 ‘한문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기 위한 도구’라는 의미의 《譯文筌蹄》의 卷首에 보이는 글이다. 인용문이 조금 길기에 내용을 구분하여 번호를 붙여 보았다.

7) 《學則》, 《徂徠先生全集》1卷, みすず書房, 1973년, 6~7쪽. “宇猶宙也, 宙猶宇也. 故以今言視古言, 以古言視今言, 均之朱離鳩舌哉. 科斗貝多何擇也. 世載言以遷, 言載道以遷. 道之不明, 職是之由”.

8) 《辨道》, 《荻生徂徠》, 日本思想大系, 岩波書店, 1973년, 200쪽. “程朱諸公, 雖豪傑之士, 而不識古文辭”.

9) <答屈景山>, 상동서, 529쪽. “不佞從幼守宋儒傳注, 崇奉有年. 積習所錮, 不自覺其非矣. 藉天之寵靈, 暨中年, 得二公之業以讀之”. ‘二公’은 중국 明代의 문학이론가인 李攀龍과 王世貞. ‘中年’은 소라이 40세경으로 이 즈음에 일괄적으로 구입한 서적 중에서 李王의 시문집을 발견하고 古文辭를 배우기로 결의한 것을 말함(平石直昭, 《荻生徂徠年譜考》, 平凡社, 1984년, 57쪽).

10) 《譯文筌蹄初篇》, 《徂徠先生全集》2卷, みすず書房, 1974년, 6/9쪽. ‘崎陽’은 에도 시대에 중국인 거주지가 있었던 나가사키(長崎)의 중국식 별명으로, ‘崎陽之學’은 중국의 口語를 지칭한다.

11) 소라이 38세 때에 《大學》의 중국어강의를 통역하는 등 소라이의 중국어 학습은 일찍부터 시작하여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한다(平石, 전게서, 52쪽).

- ① 일본의 학자는 일본어로 한문 서적을 읽고 이것을 和訓(와쿤=일본식의 훈독)이라고 부른다. 訓詁라는 말에서 따온 것이지만, 실제로는 번역(譯)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번역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 ② 옛 사람들은 ‘책을 천 번 정도 읽으면 그 의미를 자연히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내 가(소라이) 어렸을 때 옛 사람들은 글의 의미가 아직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과연 어떻게 읽었는지를 의심하였다. 이것은 마치 일본에서 佛經이나 陀羅尼를 읽는 것처럼, 중국의 독서는 위에서부터 직접 아래로 읽어 내려가는(從頭直下) 방식이기에, 아직 글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에도 읽을 수는 있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독서 방식은 어순을 거꾸로 하여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고(順逆廻環), 중국의 문자를 일본어로 바꾸어 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한 번 읽고서 뜻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면 읽을 수도 없다. 참으로 和訓이라는 명칭은 잘 지은 것으로, 학자에게는 힘쓰기 쉬운 곳도 있을 것이다.
- ③ 그러나 일본에는 일본의 언어가 있고, 중국에는 중국의 언어가 있다. 본래부터 서로의 체질이 다르니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 이런 까닭에 和訓의 어순을 거꾸로 하여 읽는 방식은 의미가 통하는 듯이 보일지라도 실은 牽強附會일 따름이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책을 읽고 글을 지을 때 和訓만을 고집한다. 비록 그 사람의 견식이 정통하고 학문이 넓다고 하더라도 古人の 언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물어보면 모두 隔靴搔癢에 다름 아니다.……그러므로 학자의 先務는 단지 중국인의 언어에 나아가 그 본래의 면목을 알려고 하는 것이다.<sup>12)</sup>

①의 내용은 일본 訓讀(和訓)의 내실이 ‘번역’인 것을 지적하는 주장으로, ‘사람들은 이것이 번역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당시의 학자들이 한자와 한문텍스트를 일본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마주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②에서는 중국어와 일본어의 語順의 차이, 즉 일반적으로 주어, 술어, 목적어의 순서로 이루어진 중국어와는 달리, 목적어가 앞에 오고 서술어가 맨 뒤에 위치하는 일본어 어순의 성질상, 한문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면 전혀 읽을 수도 없다는 사정을 밝히고 있다. 문법상 비슷한 어순을 갖는 한국에서 의미는 모르더라도 懸吐를 생략하고 소라이의 말로 從頭直下の 방식으로 읽고자 하면 읽을 수 있는 한문 독법과는 또 다른 일본의 사정을 엿볼 수 있다.

③에서는 중국어와 합치할 수 없는 어순상의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和訓이 발달한 것

12) 《譯文箋蹄初篇》, 전게 《徂徠先生全集》2卷, 4쪽. “此方學者, 以方言讀書, 號曰和訓. 取諸訓詁之義其實譯也. 而人不知其爲譯矣. 古人曰, 讀書千遍, 其意自見. 予幼時, 切怪古人方其義未見時, 如何能讀. 殊不知中華讀書, 從頭直下, 一如此方人念仏經陀羅尼, 故雖未解其義, 亦能讀之耳. 若此方讀法, 順逆廻環, 必移中華文字, 以就方言者, 一讀便解. 不解不可讀. 信乎和訓之名爲當. 而學者宜或易於爲力也. 但此方自有此方言語, 中華自有中華言語. 體質本殊, 由何脗合. 是以和訓廻環之讀, 雖若可通, 實爲牽強. 而世人不省, 讀書作文, 一唯和訓是靠. 卽其識稱淹通, 學極宏博, 倘訪其所以解古人之語者, 皆似隔靴搔痒. ……故學者先務, 唯要其就華人言語識其本本來面目”.

이지만, 和訓만을 고집할 경우 건강부회, 격화소양적인 한문 이해에 머무를 뿐이므로, 중국어로 한문을 읽는 새로운 학습법을 권장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중국어(崎陽之學)를 배우게 하여 口語(俗語)를 가르치고 중국어 발음(華音)으로 읽게 하고, 사회에서 통용되는 평이한 말(俚語)로 번역하되, 절대로 어순을 거꾸로 하여 읽는 和訓은 공부시키지 않는다”<sup>13)</sup>고 하는 학습법이다.

요컨대, 소라이는 漢文을 일본어와는 체질이 다른 외국어(중국어)라는 전제하에 일본식의 訓讀을 ‘譯’으로 재인식하면서 한문을 쉬운 일상어로 설명하는 ‘번역’의 발전을 장려하는 한편으로, 당시의 학계에서 거의 대부분의 학자가 당연하게 사용하였던 이른바 ‘順逆廻環’의 일본식 讀法을 부정한 것이었다.

이런 소라이의 漢文訓讀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그의 제자 다자이 순다이(太宰春台)가 계승한다. 순다이는 그의 訓讀에 관한 견해를 모은 《倭讀要領》에서 ‘倭訓’의 폐단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讀法은 중국어(漢語)를 번역하여 일본어(倭語)로 바꾸는 것을 중시하고 중국어를 취하여 일본어문장(倭文)이나 일본어시가(倭歌)에서 사용하고자 하였기에, 인명이나 지명을 제외하고 倭訓으로 읽는 한에서는 倭訓을 사용한 것이 된다. 그 때문에 中華의 書(중국의 經典)가 일본의 가나조시(國字草子, 평이한 가나로 쓰인 통속소설)와 같은 부류가 되었다. 얼핏 들을 때는 쉽고 재미있을지 몰라도, 단지 俗人들의 귀를 즐겁게 할 뿐으로 中華(성인의 학문)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 문장에 힘쓰고자 하는 사람은 힘써서 이 폐단을 제거해야 한다.<sup>14)</sup>

일본식 訓讀(倭訓)으로 ‘中華의 書’를 읽는다는 것은 그것의 가치를 일본의 통속소설 수준으로 떨어트리는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또 순다이는 그 폐단을 구체적으로 5가지, “하나는 倭音으로 읽으면 한자의 음이 혼동되고, 둘은 倭訓으로 읽으면 한자의 뜻이 혼동되고, 셋은 문장을 轉倒시켜 읽으면 句法과 字法을 모두 잃어버리고, 넷은 한문의 助語辭가 모두 없어져 버리고, 다섯은 句讀가 밝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며, 고생하여 읽는다고 할지라도 남들과 논의할 때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문장에서의 인용도 제대로 되지 않고, 결국 “文意에 통할 수 없게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sup>15)</sup>

13) 상동서, 9쪽. “先爲崎陽之學, 教以俗語, 誦以華音, 譯以此方俚語, 絕不作和訓廻環之讀”.

14) 《和讀要領》, 赤堀又次郎校訂, 《漢文讀方集成》, 東洋社, 1903년, 85~86쪽. “古來ノ讀法ハ, 漢語ヲ譯シテ倭語トナスコト貴ビ漢語ヲ取テ, 倭文倭歌ノ用トセントスル故ニ, 人名地名ノ類ヲ除テノ外ハ, 倭訓ニ讀ルハ限ハ, 倭訓ヲ用タル者ナリ. 故ニ中華ノ書, 此方ノ國字草子ノ如クニナリテ, ウチキ・タルトコロハ, ヤサシク面白キ様ナレドモ, 唯俗人ノ耳ヲ悅バシムルノミニテ, 中華ヲ學ブ者ノ爲ニハ其ノ益少ナシ. 文章ノ道ニ志サン者ハ, 務テ此弊ヲ除クベキナリ”.

15) 상동서, 83쪽. “倭語ノ讀ニテモ, 誦ヲバ成スベケレドモ, 用ニ立タザルコト五ツアリ. 一ツニハ倭音ニテ誦スレバ, 字音混同ス, 二ツニハ倭訓ニテ誦スレバ, 字義混同ス, 三ツニハ顛倒ノ讀ニテ, 句法字法

그러나, 이런 인식의 순다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익숙해져 있는 오랜 전통의 ‘倭訓’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語順을 顛倒하여 읽는 것은 일본의 습속으로 갑자기 고치기 어렵다”<sup>16)</sup>고 하며, ‘華音의 讀法’과 ‘倭語의 讀法’은 둘 중에서 하나라도 “없앨 수 없으니, 학자는 먼저 華音의 독법을 공부한 후 다음으로 倭語의 독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말<sup>17)</sup>로 ‘倭訓’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 파악은 이미 소라이도 내비치는 생각이었다. “중국어는 아직 세상에 널리 퍼지지 않았다. 때문에 시골에서 중국어에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차선책(二等法)을 생각했다. 먼저 이제까지의 예를 따라 四書, 小學, 孝經, 五經, 文選 등을 선정하여 일본의 독법(此方讀法)으로 가르치는 것이다.”<sup>18)</sup> 즉 당시의 일본에서 일반 사람들이 중국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此方讀法=倭訓의 교육을 인정한 것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순다이도 소라이의 입장을 공유한다.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대개 중국의 책을 읽는 것은 중국어 발음으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아래로 읽어서 그 의미를 얻는 것이 좋지만, 일본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기에 할 수 없이 倭語의 讀法을 하는 것이다”<sup>19)</sup>고 하여, 중국어 학습이 어려운 현실 상황에서 倭語의 讀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인정하였다.

중요한 것은 소라이와 순다이가 ‘二等法’, 혹은 ‘어쩔 수 없는 선택’ 등으로 제시하면서 간행한 그들의 《譯文筌蹄》나 《倭讀要領》은 그 자체로 일본에서 또 하나의 영향력 있는 漢文訓讀의 교과서로서 작용했다고 하는 점이다. 말하자면 訓讀을 부정하고 그것의 불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하여 내놓은 그들의 노력은 그 의도와는 반대로 일본 訓讀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일본에서 한문텍스트를 읽을 때의 漢文訓讀의 필수불가결한 중요성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순다이의 《倭讀要領》은 제목 자체가 시사하고 있고 또 그 자신이 “要領의 要는 옷에 비유하자면 허리(腰) 부분에 해당하며 領은 옷의 목덜미 부분이다. 옷을 들어 올릴 때 허리와 목덜미 부분을 집으면 전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학

皆失ス、四ツニハ助語辭皆遺漏ス、五ツニハ句讀明ナラズ。此五害アル故ニ、辛苦シテ語ンジ得テモ、僅ニ談論ノ助トナルノミニテ、援引スルニモオボツカナク、増テ文意ニ通ズルコトハ叶ヒガタキナリ”

16) 상동서, 85쪽. “顛倒ノ讀ハ、吾國ノ俗習ナレバ、俄ニ改ガタシ”.

17) 상동서, 82쪽. “<華音ノ讀トハ、中華ノ人ノ如ク、唐音ニテ、上ヨリ下ヘ順直ニ讀クダスナリ。倭語ノ讀トハ倭音倭訓ヲ用テ、上下顛倒シテ讀ムナリ。此二法偏廢スベカラズ。學者先華音ノ讀ヲ習テ、次ニ倭語ノ讀ヲ習フベシ”.

18) 《譯文筌蹄初篇》, 전게《徂徠先生全集》2卷, 9쪽. “然崎陽之學, 世未甚流布, 故又爲寒鄉無緣者, 定爲第二等法. 先隨例授以四書小學孝經五文選類, 教以此方讀法”.

19) 《和讀要領》, 전게《漢文讀方集成》, 2쪽. “凡中華ノ書ヲ讀ムハ、中華ノ音ヲ以テ、上ヨリ順下ニ讀テ、其義ヲ得ルヲ善トスレドモ、吾國ノ人ニシテ、華音ノ讀ヲ習フコト容易ナラネバ、已コトヲ得ズシテ、倭語ノ讀ヲナスナリ”.

문의 길도 要領을 구할 것에 힘써야 한다. 이제 要領을 얻어 밤낮으로 찾고 생각한다면 靈慧가 스스로 나타나 마침내 大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sup>20)</sup>고 설명하듯이, 일본의 漢文訓讀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자 저술한 것이었다.

순다이는 《倭讀要領》 본론 冒頭の ‘總說’에서 訓讀을 정확하게 누가 시작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일본 訓讀의 역사를 대체로 당시까지 3·400년으로 상정하면서, 고대의 이른바 博士家の 스가와라(菅原)氏와 오에(大江)氏, 중세 禪僧들의 訓讀을 거쳐, 근세의 에도 시대에 들어와 주자학의 新注를 중심으로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 1561~1619), 하야시 라잔(林羅山, 1583~1657),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 1618~1682)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訓讀이 등장하여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회고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순다이의 평가는 신랄하기 그지없다. 순다이는 근세의 漢文訓讀 수준에 대하여 “대체로 그 사람들은 句讀를 모르고 文法에 대한 이해도 없고 字義도 알지 못하며, 단지 倭語의 뜻으로 읽는 까닭에 文義를 그르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고 낮게 평가한다. 또 안사이에 대해서도 그들과 비교해서 조금 뛰어났지만, “그러나 안사이도 또한 문장의 도에는 어두웠고, 단지 門戶를 세우고자 하여 일본 訓讀에서 생략해서는 안 되는 助詞의 ‘데(에서)·니(에)·오(을/를)·하(은/는)’를 생략하였고, 華語도 倭語도 모두 틀려서 수준 낮은(鄙俚) 讀法밖에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여 대결의 자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sup>21)</sup> 본 발표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반복해 보자면, 이런 순다이의 訓讀에 대한 태도는 그것을 부정하고 멀어지고자 하는 의도와는 반대로 더 접근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현상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덧붙여서, 에도 시대에 나름의 訓讀論을 저술하여 訓讀의 의의를 강조한 다른 두 학

20) 상동. “要領トハ、要ハ腰ト同ジ、衣ノコシナリ、領ハ衣ノエリナリ。衣ヲ舉ルニ、腰ト領トヲ取レバ、全體皆舉ル意ナリ。サレバ學問ノ道モ、要領ヲ求ルコトヲ務ムベシ。既ニ要領ヲ得テ、日夜尋思スレバ、靈慧自發シテ、卒ニ大體ヲ得ルナリ”。

21) 관련하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倭讀トハ、倭語ニテ書ヲ讀ムナリ、倭語ノ讀ハ、何レノ世ヨリ始レルトイフコトヲ知ラネドモ、菅江二家ノ讀法、昔ヨリ傳ハレリ、古ハ皇朝ノ人、貴賤ト無ク皆學術アリシニ、王政衰テヨリ、文學ノ道、禪僧ニ傳ハリテ、三四百年ヲ歷タリ、是一變ナリ、近世慶長年中ヨリ、藤惺窩林羅山二先生生出テ、儒學ヲ士大夫ノ間ニ倡フ、元和太平ノ後、儒教漸海内ニ行ハレテ、農工商賈モ、孝弟忠信ノ道ヲ聞クニ預ル、是誠ニ國家明德ノ化ニシテ、二先生ノ功、多カラズトイハズ、但二先生宋儒ヲ尊信シ、新註ノ四書五經ヲ用テ、程朱ノ教ヲ弘メシニヨリテ、古學遂ニ廢レテ、宋儒ノ說、世ニ盛ニ行ハルハコト、今已ニ百年ナリ、是又一變ナリ、然ルニ、薩摩ノ僧文之四書ヲ讀ミ、羅山先生四書五經ヲ讀テヨリ、後來コレニ倣フ者數十家、各々其本アリテ世ニ行ハル、今其本ヲ觀レバ、諸家互ニ得失アリ、大抵其人句讀ヲ知ラズ、文法ヲ解セズ、字義を曉ラズ、只倭語ノ意ニテ讀ル故ニ、文義ヲ誤ルコト甚多シ。其中ニ山崎氏ノ本較レリ。闇齋先生心ヲ朱氏ノ書ニ潛メシニヨリテ、新註ノ旨ヲ得タルコト頗多シ。然レドモ其人亦文章ノ道ニ味クシテ、只門戶ヲ立ントノミシケル故ニ、省クマジキテニヲハフ省キ、華語ニモ倭語ニモ違テ、鄙俚ナル讀ヲナセリ” (상동, 1-2쪽). 藤原惺窩가 四書五經에 訓點을 부여한 것을 ‘惺窩點’, 林羅山の 加點을 ‘道春點’, 山崎闇齋의 加點을 ‘嘉點’이라고 하며, 그 외에 後藤芝山の 芝山點과 日尾荊山에 의한 ‘日尾點’이 유명하다.

자의 언설도 들어보자. 첫 번째 인용은 소라이보다 30살 정도 위의 학자로 만년에 주자학에 의문을 제시한 가이바라 에키켄(貝原益軒, 1630~1714)이 1703년에 저술한 《點例》의 서문의 일절이고, 두 번째 인용은 에도 후기의 학자로서 주자학과 소라이학을 절충한 히오 게이잔(日尾荊山, 1789~1859)이 1835년에 저술한 《訓點復古》의 서문에 보이는 글이다.

일본의 학문은 經傳의 本文과 注解를 잘 구분하여 訓點을 바르게 하고 틀림이 없음을 옳은 것으로 간주한다. 訓點이 혹 잘못되면 經傳의 의미도 또한 틀려지게 된다<sup>22)</sup>.

사람이 사람 되는 까닭은 道가 道 되는 까닭을 배우는 것뿐이다. 아아, 堯舜도 멀어지고 孔孟도 없으니 나는 장차 무엇을 배울 것인가? 聖賢의 경서와 주해일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과 일본은 지역이 다르고 글과 말도 같지 않다. 이에 訓點을 기다려서 그 뜻이 비로소 통하고 그 道가 비로소 밝아진다. 이로부터 본다면 訓點은 학자가 먼저 힘써야 할 곳으로 道義가 깃들여 있는 곳이다. 어찌 바르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대체로 訓點이 바르지 않으면 經傳에 통할 수 없고, 經傳에 통하지 못하면 道가 드러나지 않는다.<sup>23)</sup>

두 학자 모두 한문텍스트의 이해에서 訓讀(訓點)이 갖는 필수불가결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음은 보는 그대로이다.

이상과 관련하여 다시 소라이의 《譯文筌蹄》으로 돌아가 ‘번역’의 의의를 조금 더 살펴보자. 위에서 소라이는 訓讀을 ‘譯’으로 재인식하면서 외국어의 漢文을 일상의 쉬운 일본말로 ‘번역’할 것을 장려하였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다.

譯이라는 한 글자야말로 독서의 眞訣이다. 대개 책은 모두 문자로 쓰여 있으며, 문자는 즉 중국인의 언어이다. ……다만 중국과 일본의 말과 음이 같지 않은 까닭에 혹 어떤 사람이 기특한 발상으로 중국의 말을 잘 번역하여 이쪽 일본의 일상적인 말과 같이 한다면, 책을 잘 읽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 책(譯文筌蹄)을 펴내는 가장 중요한 의의가 된다.<sup>24)</sup>

22) 《點例》, 전계 《漢文讀方集成》, 1쪽. “わが國の學問は經傳の本文と注意をよく見わかつて, 訓點を正しくしてあやまるざるをよしとす. 訓點もしあやまりぬれば, 義理も又ちがへり”.

23) 《訓點復古》, 전계 《漢文讀方集成》, 5~6쪽. “人之所以爲人者, 學道之所以爲道是而已矣. 嗚呼堯舜邈矣, 孔孟逝矣, 吾將焉學. 其聖經賢傳乎. 雖然彼此異域, 文辭不同. 待訓點而其義始通, 其道始明. 由是觀之, 訓點是學者之先務, 而道義之寓也. 豈可不正哉. ……蓋訓點不正, 則經傳不通, 經傳不通, 則道不明”.

24) 《譯文筌蹄初篇》, 전계 《徂徠先生全集》2卷, 5~6쪽. “譯之一字, 爲讀書眞訣. 蓋書皆文字, 文字即華人語言. ……祇以中華此方, 語音不同, 故人作奇特想, 能譯其語, 如此方平常語言, 可謂能讀書者矣. 此是編開卷第一義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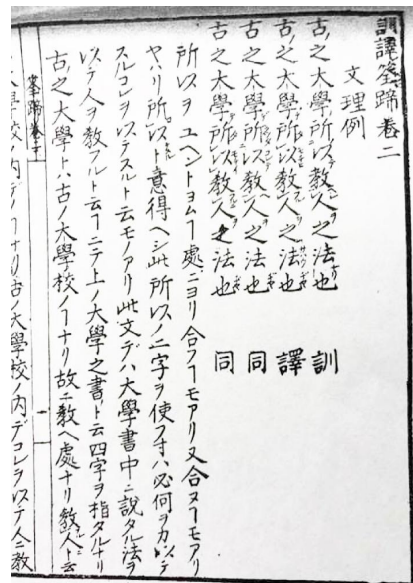
언어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자국말로 알기 쉽게 ‘번역’하는 것이 바로 독서의 에센스이고, 소라이 자신이 《譯文筌蹄》를 간행하는 일차적인 의의도 이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며, ‘번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다음과 말도 보인다.

지금의 일본어로 중국어를 이해할 때 예전에 비하여 더욱 많아지고 더욱 세밀해진 단어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중국어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다. 또한 일상적인 말은 평이해서 人情을 잘 나타낸다. 이런 단어들을 이용해서 중국의 문자를 번역한다면, 특별히 이상한 발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비열한 마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어서 성현의 경서와 주해도 모두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左傳》이나 《楚辭》, 《莊子》, 《史記》 등도 모두 어렵지 않게 되어, 마침내 역대의 고인들과 상대하여 토론하며 천고의 역사를 논하는 것도 이것에 의해 가능해 질 것이다. 이렇게 ‘譯’의 한 글자는 이익이 적지 않다. 누가 나를 보고 이상한 짓을 좋아한다고 하겠는가?<sup>25)</sup>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번역’으로 얻는 이익을 잘 묘사하고 있는 말일 것이다. 마지막 어구의 ‘孰謂吾好奇也哉’는 군도쿠(訓讀)를 당연시하는 세상과 대결하여 그것을 ‘번역’으로 재정의하면서 중국어공부의 새로운 학습법을 제시하는 자신의 학문적 방법론을 방어하는 말일 것이다. 소라이의 인식과 제안은 그만큼 충격적이었고, 세간의 비평도 상당한 것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고, 소라이가 말하는 ‘譯’은 현재 영문텍스트 등을 번역할 때처럼 영어원문을 생략하고 번역문만을 제시하는 형태는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sup>26)</sup> 소라이는 어디까지나 한문 원문을 열거한 후 거기에 전통적인 訓讀 방법에 따라 가에리텐(返り點)이나 오쿠리가나(送り假名) 등을 부가해 가는 방식을 고집한다.

소라이가 《訓譯示蒙》에서 ‘訓’과 ‘譯’의 차이를 나타내고자 《大學章句》의 첫 문장(古之大學所以教人之法也)을 들어 설명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 ‘원문 존중’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소라이는 ‘訓’과 ‘譯’의 가장 큰 차이를 ‘所以’를



<별첨 4 ‘訓’과 ‘譯’의 차이>  
(荻生徂徠, 《訓譯示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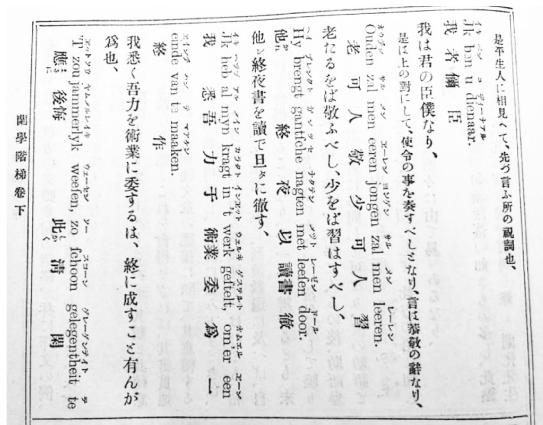
25) 상동서, 7쪽. “以今言而求於中華語, 其比古愈繁愈細者, 稍可與華言相近. 且俚俗者, 平易而近於人情. 以此而譯中華文字, 能使人不生奇特想, 不生卑劣心, 而謂聖經賢傳, 皆吾分內事. 左騷莊遷, 都不估屈, 遂與歷代古人, 交臂晤言, 尙論千載者, 亦由是可至也. 是譯之一字, 利益不尠. 孰謂吾好奇也哉”.

26) 田尻祐一郎, 《荻生徂徠》, 叢書日本の思想家, 明德出版社, 2008년, 92쪽.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두고 있는데<sup>27)</sup>, 그 처리를 원문 옆에 訓點을 이용하여 작은 글자로 첨부하는, 말하자면 ‘譯’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일종의 訓讀이 되는 셈이다. 오늘날의 한문 번역서에서도 주인공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訓讀의 끈질긴 생명력의 원천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譯’이라고 하더라도 訓點을 이용하여 漢字의 한 글자 한 글자에 일본어를 배당하여 읽어가는 원문 존중의 漢文訓讀의 방식은 앞에서 인용한 야나부(柳父)의 말처럼 일본이 서양언어와 마주하였을 때, 蘭學訓讀을 비롯하여 英文訓讀, 佛文訓讀 등의 번역에서도 계승되어 갔다. 漢文訓讀이 ‘번역용 문장어’의 기초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번역용 문장어’의 발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비록 소라이는 한문의 원문 존중의 자세를 고집하였지만, 에도 시대의 다른 유학자들을 보면 漢文訓讀을 응용한 이른바 ‘漢字假名混用文’의 저술 활동도 활발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언급한 가이



〈별첨 5 원문 존중의 漢文訓讀의 방식〉  
(《蘭學階梯》卷下成語(文明原流叢書第一, 國書刊行會, 239頁))

貝原益軒『和俗童子訓』

「凡そ、人となれるものは、皆天地の徳をうけ、心に仁・義・礼・智・信の五性を生まれつきたれば、其性のままに従へば、父子、君臣、夫婦、長幼、朋友の五倫の道、行はる。是人の、万物にすぐれて貴き如なり。ここを以て、人は万物の霊、と云へるなるべし。」

「教育勅語」

「我力臣民、克ク忠ニ、克ク孝ニ、億兆心ヲ一ニシテ……。進テ公益ヲ廣メ、世務ヲ開キ、常ニ国憲ヲ重シ、国法ニ遵ヒ、一旦緩急アレハ、義勇公ニ奉シ、以テ天壤無窮ノ皇運ヲ扶翼スヘシ。」

〈별첨 6 가이바라 에키켄(貝原益軒)〉

27) 訓點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직역해보자면, ‘訓’은 “옛날의 대학의 씨 사람을 가르치던 바의 법이다”, ‘譯’은 “옛날의 대학에서 사용하였던 사람을 가르치던 작법이다”, 혹은 “옛날의 대학에서 이것을 갖고 사람을 가르치던 작법이다”, “옛날의 대학에서 사람을 가르침에 사용하던 작법이다” 등으로 몇 가지 다른 번역을 들고 있다(《訓譯示蒙》, 전계《徂徠先生全集》2卷, 451쪽).

28) 子安宣邦, 《漢字論-不可避の他者》, 岩波書店, 2003년, 74쪽.

29) 東北帝國大學의 국어(일본어)학자였던 야마다 요시오(山田孝雄, 1873~1958)는 《國語の中に於ける漢語の研究》(寶文館, 1940년) 속에서 “漢語가 일본어에 侵入한 것은 현저한 事實”(序, 1쪽)이라고 하며, “이러한 때에 자국어(일본어)를 돌아보지 않고 외래어에 심취몰두하면 그 국어는 파멸 혹은 멸망하게 된다”(結語, 529쪽)고 하여 漢語를 비롯한 외국어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있었다.

바라 에키켄(貝原益軒)이 유명한데, 그것은 어쨌든 고야스 노부쿠니(子安宣邦)는 “나는 가나마지리분(仮名交じり文=혼용문)이라고 하는 日本語文의 성립은 이 한문텍스트의 訓讀化(和訓化)와 불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문의 訓讀(和讀)에서 일본어문이 탄생한 것이다”<sup>28)</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漢文訓讀에 바탕한 日本語文의 성립을 야나부와 같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일본어에 대한 ‘侵入’<sup>29)</sup>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메이지(明治) 시대에 발포된 유명한 <教育勅語>에 대한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1873~1961)의 비판(문법적 지적)이 상징적이다. <教育勅語>는 李退溪와도 연결

되는 儒學者 모토다 나가자네(元田永孚, 1818~1891)가 草案을 작성한 것으로 漢文假名混合文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sup>30)</sup>

쓰다는 <教育勅語>가 漢文訓讀體인 것을 지적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勅語의 文體가 이른바 한문의 訓讀風일뿐만 아니라, 문장의 거의 전부가 待耦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고전적 支那文, 즉 이른바 漢文의 통례인 修辭法이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勅語의 내용이 이 수사법에 의해 제약 받고 있는 형태조차 보인다. 勅語가 발포된 직후에는 그것을 그대로 한문 형태로 베껴 쓰는 경우조차 있었다. ‘一旦緩急アレバ’라는 말이 일본어 어법을 틀렸다는 것도 말해지고 있지만, 헌법(帝國憲法) 발포 때의 勅語에도 일본어의 語脈과 다른 곳이 있었다. 이것은 起草者가 國語學(일본어) 지식이 모자라서, 말하자면 漢學者의 계통에 속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sup>31)</sup>

쓰다는 그 자신이 유학과 한문학 등에 많은 연구성과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비롯한 중국사상과 그 바탕이 되는 한문·한자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지속하였고, 그것들은 일본문화의 발전에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저평가한다. 여기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이유를 더 추구하는 것은 본 발표의 방향과도 맞지 않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제국주의 시대의 무조건적인 國粹主義者와는 일선을 긋는 합리적인 지식인의 한 사람이었던 그의 한문·한자, 넓혀서는 漢文訓讀에 대한 반대의견을 하나 더 소개하는 것으로 간단하지 않은 漢文訓讀=번역의 역사적 배경을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일본인은 일본의 말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빨리 支那文字를 사용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른바 한문과 연결되어 있는 과거의 支那風의 학문적 방법과 관점은 현대문화의 기초인 현대의 학문정신 및 방법과 일치하지 않기에 한문을 일반적 교육과정에서 제거하지 안 되다는 것,…… 등을 말해 왔는데, 이것들은 오늘날 오히려 더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sup>32)</sup>

마지막으로 하나 더, 쓰다가 메이지 이후의 근대에 들어와 유교를 포함한 중국문화의 불필요성에 입각하여 漢文訓讀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고 한다면, 소라이와 순다이를 계승하는 입장에서 더 확실한 중국문화 이해를 위하여 한문훈독의 폐지를 주장한 학자들

30) <教育勅語>의 최종 문안 작성자는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 1843~1895)인데, 그도 모토다와 같은 熊本藩의 유학자 출신이다.

31) 津田左右吉, <教育に關する勅語について>, 《津田左右吉全集》21권, 岩波書店, 1981년. 초출은 1946년, 235쪽. 쓰다가 틀린 일본어라고 지적하는 ‘一旦緩急アレバ’는 순접의 확정조건이나 항상적인 조건을 표현하는 말이므로, ‘일단 긴급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혹은 ‘일단 긴급 상황이 있을 때에는 언제나~’ 등의 문맥에 맞지 않는 의미가 되고 만다는 것. 바르게 쓰려면 ‘アレバ’가 아니라, 순접의 가정조건인 ‘アラバ’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高橋陽一《くわしすぎる教育勅語》, 太郎次郎社エディタス, 2019년, 67쪽).

32) 《シナ思想と日本》, 岩波書店, 1947년, 序文.

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시게노 야스쓰구(重野安繹, 1827~1910), 아오키 마사루(青木正兒, 1887~1964), 구라이시 다케시로(倉石武四郎, 1897~1975) 등이다.<sup>33)</sup> 그 중에서 구라이시의 이른바 ‘漢文訓讀의 자반언어론’(漢文訓讀塩鮭論)을 소개한다.

《논어》든 《맹자》든 訓讀을 하지 않으면 기분이 안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공자나 맹자에게 일본인이 되어 주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문서적이 國書이고 한문이 국어였던 시대의 유풍이다. 중국의 책을 훌륭한 일본어로 번역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지만, 번역된 결과는 많은 적든 그 책 본래의 맛을 떨어트리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입체적인 것이 평면화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본래의 맛을 버리고, 평면화된 것에 길들여져서 그쪽이 오히려 좋게 느껴지게 되는 것은 지독한 마비 현상으로, 말하자면 (바다가 없는) 나가노(長野) 지방에서 자란 사람이 싱싱한 생선보다도 자반언어를 더 맛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sup>34)</sup>

요컨대, 일본의 한문텍스트 번역의 배경에는 중국어 直讀論, 번역으로서의 訓讀論 그리고 일본어 정체성 등과 맞물려 결코 간단치 않는 여러 사정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 3. 한문텍스트의 번역 상황--총서시리즈를 중심으로

메이지(明治) 이후 시대의 한편에서는 한자·한문 그리고 漢文訓讀 폐지론도 외쳐지고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한문텍스트의 근대적인 번역 사업도 점차로 위세를 키워가고 있었다. 이하, 十三經을 포함한 총서시리즈를 중심으로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몇 가지 주요한 작업을 소개하고자 한다<sup>35)</sup>.

#### 1) <漢文大系>

|     |                         |
|-----|-------------------------|
| 출판사 | 富山房                     |
| 간행년 | 1909~1916년(1970년대에 復刊)  |
| 내 용 | 전22권(부록1). 十三經 관계서는 7책. |

33) 陶徳民, <近代における<漢文直讀>論の由緒と行方問題>, 中村春作・市來津由彦・田尻祐一郎・前田勉編《訓讀論—東アジア漢文世界と日本語》, 勉誠出版, 2008년.

34) 倉石武四郎, 《支那語教育の理論と實際》, 岩波書店, 1941년, 44~45쪽.

35) 조사는 기본적으로 日本國立國會圖書館과 CiNii(國立情報學研究所의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筑波大學 付屬圖書館에서 제공하는 書誌 정보 및 해당 출판사의 해설 부분 등을 참조하였다.

日本國立國會圖書館 <https://www.ndl.go.jp/>

CiNii(Articles/Books) <https://ci.nii.ac.jp/>

筑波大學付屬圖書館 <https://www.tulips.tsukuba.ac.jp/lib/>

|     |                                                                                                                                                                                                                                                                                                       |
|-----|-------------------------------------------------------------------------------------------------------------------------------------------------------------------------------------------------------------------------------------------------------------------------------------------------------|
|     | 1(大學說/大學章句/中庸說/中庸章句/論語集說/孟子定本), 2(箋解古文眞寶(後集)/增註三體詩/箋註唐詩選), 3·4(唐宋八家文上/下), 5(十八史略/小學箋註/御註孝經/弟子職), 6·7(史記列傳上/下), 8(韓非子翼義), 9(老子翼/莊子翼), 10·11(春秋左氏會箋上/下), 12(毛詩/尚書), 13(列子/七書), 14(墨子問詁), 15(荀子), 16(周易/傳習錄傳), 17(禮記/禮器圖), 18(文章軌範/古詩賞析), 19(戰國策正解), 20(淮南子/孔子家語), 21(管子纂詁/晏子春秋), 22(楚辭/近思錄), 부록1권(각권색인) |
| 비 고 | 본격적인 현대어 번역이 아니라, 訓點을 부가한 것이지만,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시리즈이기에 소개한다. 欄外에 필요에 따라 假名混用文으로 보충설명을 싣고 있다.                                                                                                                                                                                                              |

## 2) <國譯漢文大成> <續國譯漢文大成>

|     |                                                                                                                                                                                                                                                                                                                                                                                                                                                                                                                                                                                                       |
|-----|-------------------------------------------------------------------------------------------------------------------------------------------------------------------------------------------------------------------------------------------------------------------------------------------------------------------------------------------------------------------------------------------------------------------------------------------------------------------------------------------------------------------------------------------------------------------------------------------------------|
| 출판사 | 國民文庫刊行會                                                                                                                                                                                                                                                                                                                                                                                                                                                                                                                                                                                               |
| 간행년 | 國譯漢文大成(1920~1924), 續國譯漢文大成(1928~1932)<br>(2000년에 日本圖書센터에서 1939~41年 간행의 《國譯漢文大成》全10卷을 底本으로 하여 20권짜리 총서로 복간)                                                                                                                                                                                                                                                                                                                                                                                                                                                                                            |
| 내 용 | <國譯漢文大成> 전40권. 十三經 관계서는 8책.<br>經子史部1(大學/中庸/論語/孟子/孝經), 2(易經/書經), 3(詩經), 4(禮記), 5·6(春秋左氏傳), 7(老子/列子/長子), 8(荀子/墨子), 9(韓非子/商子), 10(孫子/吳子/司馬法/尉繚子/六韜/三略/李衛公問對/鬼谷子/新語), 11(淮南子), 12(戰國策), 13~16(史記), 17(國語), 18(晏子春秋/公孫龍子/新書/), 19(管子), 20(呂子春秋)<br>文學部1(楚辭), 2~4(文選), 5(唐詩選), 6(三體詩), 7·8(唐宋八家文), 9(西廂記/琵琶記), 10(還魂記/漢宮秋), 11 (桃花扇), 12(晉唐小說), 13(剪燈新話/剪燈余話/宣和遺事), 14~16(紅樓夢), 17(長生殿/燕子箋), 18~20(水滸傳)<br><續國譯漢文大成> 전46권<br>經子史部1~16(資治通鑑), 17·18(資治通鑑目錄), 19·20(廿二史劄記), 21(宋名臣言行錄), 22(貞觀政要), 23·24(讀通鑑論)<br>文學部1~3(李太白詩集), 4~6(杜少陵詩集), 7·8(韓昌黎集), 9~12(白樂天詩集), 13~17(蘇東坡詩集), 18(陶淵明集/王右丞集), 19~22(高青邱詩集) |
| 비 고 | 全譯. 기본적으로 訓讀, 원문, 난자주해, 해설의 구성. 해설(혹은 해석/번역)은 각 권마다 조금씩 다른 체제로서, 釋義, 大義, 評論, 句釋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

日本圖書センター(센터) 해설 (<http://www.nihontoshosho.co.jp/2000/09/post-530.html>)



|     |                                                                                                                                                                                |
|-----|--------------------------------------------------------------------------------------------------------------------------------------------------------------------------------|
|     | 選), 85~92(史記世家/列傳), 93(文選文章編下), 94(論衡下), 95·96(貞觀政要), 97~109(白氏文集1~13), 110~112(詩經), 113(大戴禮記), 114(唐宋八大家文讀本7), 115(史記列傳6), 116(史記下十表2), 117~119(白氏文集), 120(史記列傳7), 別卷(漢籍解題事典) |
| 비 고 | 全譯. 원문, 訓讀, 通譯(현대어번역), 語釋(난자해설), 余說(文意)의 구성.                                                                                                                                   |

明治書院 해설 (<https://www.meijishoin.co.jp/news/n3343.html>)

##### 5) <中國古典文學大系>

|     |                                                                                                                                                                                                                                    |
|-----|------------------------------------------------------------------------------------------------------------------------------------------------------------------------------------------------------------------------------------|
| 출판사 | 平凡社                                                                                                                                                                                                                                |
| 간행년 | 1967~1975                                                                                                                                                                                                                          |
| 내 용 | 전60권. 十三經 관계서는 7책.<br>1(書經/易經), 2(春秋左氏傳), 3(論語/孟子/荀子/禮記), 4(老子/莊子/列子/孫子/吳子), 5(韓非子/墨子), 6(淮南子/說苑), 7(戰國策/國語/論衡), 8(抱朴子/列仙傳/神仙傳/山海經), 9(世說新語/顏氏家訓), 10~12(史記), 13(漢書/後漢書/三國志列傳選), 14(資治通鑑選), 15(詩經/楚辭),<br>(이하, 詩文, 小說類 등의 他書目은 생략) |
| 비 고 | 抄譯. 訓讀을 행하지 않고 현대어번역을 기본으로 한 구성.                                                                                                                                                                                                   |

##### 6) <中國古典新書/中國古典新書續編>

|     |                                                                                                                                                                                                                                                                                                                                                                                                                                                                                                                                                                                                                                                                                                                                                                                                                                                                                                                                                                                                                                                                        |
|-----|------------------------------------------------------------------------------------------------------------------------------------------------------------------------------------------------------------------------------------------------------------------------------------------------------------------------------------------------------------------------------------------------------------------------------------------------------------------------------------------------------------------------------------------------------------------------------------------------------------------------------------------------------------------------------------------------------------------------------------------------------------------------------------------------------------------------------------------------------------------------------------------------------------------------------------------------------------------------------------------------------------------------------------------------------------------------|
| 출판사 | 明德出版社                                                                                                                                                                                                                                                                                                                                                                                                                                                                                                                                                                                                                                                                                                                                                                                                                                                                                                                                                                                                                                                                  |
| 간행년 | 1967~현재(최신간 2006).                                                                                                                                                                                                                                                                                                                                                                                                                                                                                                                                                                                                                                                                                                                                                                                                                                                                                                                                                                                                                                                     |
| 내 용 | 中國古典新書100권. 十三經 관계서는 8책.<br>1·2(論語), 3(老子), 4(孫子), 5(公孫龍子), 6(榮根譚), 7(貞觀政要), 8(近思錄), 9(塩鐵論), 10(抱朴子), 11(墨子), 12(大學/中庸), 13(莊子), 14(十八史略), 15(蒙求), 16(韓非子), 17(漢書藝文志), 18(春秋左氏傳), 19(唐宋八家文), 20(白氏文集), 21·22(戰國策), 23(列女傳), 24(文選), 25(說苑), 26(朱子行狀), 27(國語), 28(列子), 29(緯書), 30(樂府), 31(竹窓隨筆), 32(小學), 33(晏子春秋), 34(管子), 35(三國志), 36(正蒙), 37(陰鷲錄), 38(晉書), 39(世說新語), 40(商子), 41(王陽明文集), 42(楚辭), 43(文中子), 44(後漢書), 45(孟子), 46(資治通鑑), 47(淮南子), 48(五代史), 49(古文眞寶), 50(吳子), 51(新唐書), 52(天主實義), 53(孔子家語), 54(居業錄), 55(宋名臣言行錄), 56(文心雕龍), 57(大戴), 58(太玄經), 59(五雜俎), 60(法言), 61(陸象山文集), 62(書譜), 63(史記), 64(元史), 65(新序), 66(畫論), 67(禮記), 68(五行大義), 69(傳習錄), 70(荀子), 71(牧民心鑑),<br>72(原人論), 73(易經), 74(茶經), 75(書經), 76(金史), 77(詩藪), 78(遼史), 79(呂氏春秋), 80(滄浪詩話), 81(大同書), 82(人天寶鑑), 83(呻吟語), 84(幽夢影), 85(周易參同契), 86(春秋繁露), 87(食經), 88(醉古堂劍掃), 89(六韜/三略), 90(伊川擊壤集), 91(孝經), 92(射經), 93(劉念台文集), 94(顏氏家訓), 95(論衡), 96(神仙傳), 97(詩經), 98(帝範/臣軌), 99(唐詩三百首), 100(朱子文集)<br>中國古典新書續編29권<br>1(李綱文集), 2(延平答問), 3(石鼓文), 4(諸葛孔明語錄), 5(食物本草), 6(馬王堆老子), 7(素書), 8(玉燭寶典), 9(王陽明靖亂錄), 10(三事忠告), |

|     |                                                                                                                                                                                              |
|-----|----------------------------------------------------------------------------------------------------------------------------------------------------------------------------------------------|
|     | 11(伊洛淵源錄), 12(醒世恒言), 13(陳白沙文集), 14(眞誥), 15(漢書列傳), 16(周易本義), 17(韓詩外傳), 18(素問/靈樞), 19(尉繚子), 20(華陽國志), 21(讀書錄), 22(後漢紀), 23(二十四詩品), 24(睡虎地秦簡), 25(耶律楚材文集), 26(風俗通義), 27(明夷待訪錄), 28(明史), 29(勸學篇) |
| 비 고 | 抄譯. 기본적으로 원문과 訓讀, 난자주해가 중심으로, 현대어번역은 각권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구성.                                                                                                                                 |

## 7) &lt;岩波文庫&gt;

|     |                                    |
|-----|------------------------------------|
| 출판사 | 岩波書店                               |
| 간행년 | 1927~현재                            |
| 내 용 | 十三經 관계서는 4책.<br>易經, 論語, 孟子, 孝經/曾子  |
| 비 고 | 全譯. 기본적으로 원문, 訓讀, 현대어번역, 난자주해의 구성. |

岩波文庫解説目録(단, 재고본이 중심)

(<https://www.iwanami.co.jp/files/mokuroku/bunko2020.pdf>)

이것들 외에도 여기에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많은 총서시리즈가 있으며, 또 개별적인 뛰어난 번역서·연구서도 물론 많이 존재한다. 더 구체적인 보고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본 발표의 주제와 관련해서 다음의 두 가지를 확인해 두고자 한다.

하나는 위에서 번잡함을 무릅쓰고 열거한 書目들을 일별해보면 알 수 있듯이,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중국의 文史哲을 망라하는 많은 번역서들이 세상에 나왔지만, 十三經으로 불리는 텍스트의 번역은 그 명성만큼은 아니며, 특정 경전에 치우쳐 있고 아직 번역을 기다리고 있는 책도 있다는 점이다. 7개의 총서시리즈에 한하여, 論語, 孟子, 春秋左氏傳, 易經(周易)의 4책이 7곳 모두에 실려 있으며, 書經(尙書)과 禮記가 6곳, 孝經이 5곳, 詩經(毛詩)이 4곳이며, 나머지 텍스트의 周禮, 儀禮, 春秋公羊傳, 春秋穀梁傳, 爾雅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개별적인 성과는 다음 절에서 소개).

또 하나는 平凡社의 <中國古典文學大系> 시리즈는 그 편집방침이 현대어번역 중심이기에 차치하더라도, 대부분의 번역서가 역시 ‘訓讀’을 중요하게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國譯漢文大成>의 ‘國譯’도 실질은 訓讀이며, 明德出版社의 <中國古典新書> 시리즈는 현대어번역은 생략하더라도 訓讀은 살리는 편찬인 점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十三經注疏의 번역 현황을 살펴보자.

#### 4. 十三經注疏의 번역 현황

조사는 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日本國立國會圖書館과 CiNii(國立情報學研究所의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筑波大學付屬圖書館에서 제공하는 書誌 정보 및 해당 출판사의 해설 부분 등을 참조하였고, 가능한 한 실물을 입수하여 체제·구성 등을 살펴보았다.

1) 《周易正義》

번역서는 없고 大學紀要 등의 잡지에 발표한 부분적 번역의 연재물이 있다.

① 宇野茂彦，〈周易正義序譯注〉，《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96，1986。

\* 訓讀과 주해의 순서로 구성.<sup>36)</sup>

② 野間文史,〈周易正義訓讀〉,《(廣島大學)東洋古典學研究》28~49, 2009~2020.

\* 28호<序·八論>(2009)부터 년1~2회의 발표로 49호<咸卦·恆卦>(2020)까지 이어지고 있는 연재물. 원문, 校訂本, 訓讀의 순서로 구성.<sup>37)</sup>



<별첨 8 野間文史, 《周易正義訓讀》>

③ <《周易正義》乾卦譯注稿>1~6 (東洋大學대학원 중국철학전공 대학원생 중심), 《白山中國學》14~19, 2008~2012.

\* 총6회의 연재물로, 원문, 校勘記, 訓讀, 현대어번역, 주해의 순서로 구성.

36) 宇野戊彦은 중국철학전문가, 中央大學 명예교수, 宇野精一가 父, 宇野哲人이 祖父.

37) 野間文史는 廣島大學 명예교수, 근년 五經正義, 春秋學 등의 경학분야에서 연구와 번역에 걸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서로 ≪五經正義の研究≫(研文出版, 1998), ≪十三經注疏の研究--その語法と傳承の形≫(研文出版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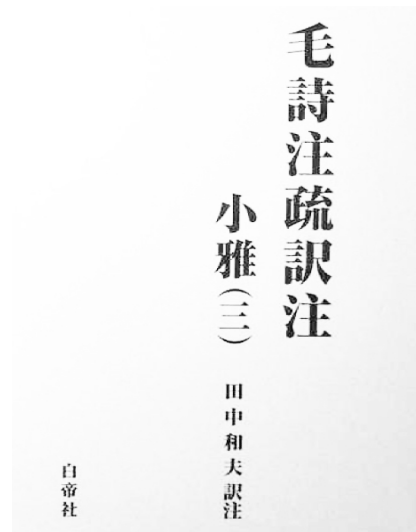
## 2) 《尙書正義》

일본의 중국철학·경학 분야의 대가인 吉川幸次郎 (1904~1980)에 의한 완역이 있다.

- ① 吉川幸次郎, 《尙書正義》1-4, 岩波書店, 1940~1943. (《吉川幸次郎全集》8~10재수록, 筑摩書房, 1970)

\* 訓讀을 채택하지 않고 현대어번역과 주해로 이루어진 구성. ‘正義’의 원문은 생략.

\* 訓讀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역자서문에서 荻生徂徠와 國學者의 本居宣長の 말을 인용하면서 “訓讀의 언어는 국어(일본어) 어법에서 볼 때 不純”하며, “너무 대략적이다. 일본어가 이렇게 발달한 오늘날, 支那語의 번역에도 적당한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책의 번역은 이런 의도도 포함하여 제공한 것이다”고 적고 있다.(동상 《全集》 8, 18쪽). 더불어, 吉川에 의하면 이 번역작업은 東方文化研究所의 經學文學研究室에서 《尙書正義》의 가장 신뢰할 만한 텍스트를 작성할 목적으로 진행 중이던 《尙書正義定本》의 餘業으로 출판된 것이라고 한다(동상서, 17쪽).



<별첨 9> 田中和夫, 《毛詩注疏譯注 小雅》, 白帝社

## 3) 《毛詩正義》

부분 번역이지만, 岡村繁와 田中和夫에 의한 번역서가 간행되어 있다.

- ① 岡村繁, 《毛詩正義譯注》1, 中國書店, 1986.

\* <毛詩正義序> <詩譜序> <周南召南譜> <周南關雎詁訓傳>(關雎序, 關雎)을 대상으로 번역하였다. 毛詩의 원문은 훈독, ‘正義’는 현대어번역의 구성.<sup>38)</sup>

- ② 田中和夫, 《毛詩注疏譯注 小雅》(一)(二)(三), 白帝社, 2010/2013/2019.

\* 《毛詩注疏譯注 小雅(一)》은 毛詩注疏卷九之一과 九之二, 《小雅(二)》는 卷九之三과 九之四, 《小雅(三)》은 卷十之一과 十之二를 번역하였다. 기본적으로 현대어번역을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訓讀도 병용하고 있다. 원문과 교감기, 주를 싣고 있다.<sup>39)</sup>

## 4) 《周禮注疏》

《周禮》의 본문과 鄭玄注를 번역한 책이 나와 있다.

38) 岡村繁(1922~2014)는 九州大學 명예교수.

39) 田中和夫는 宮城學院女子大學 명예교수. 毛詩연구서로 《毛詩正義研究》(白帝社, 2003)가 있다.

① 本田二郎, 《周禮通釋》上·下, 秀英出版, 1977·1979.

\* 周禮의 원문, (원문의)訓讀, 語釋(난자주해), 通譯(현대어번역), 鄭玄注의 訓讀 순으로 구성. 冒頭에 <欽定四庫全書總目周禮注疏四十二卷> <周禮正義序> <序周禮廢興>에 이어 孫詒讓의 <周禮正義書>를 訓讀體로 실고 있다.<sup>40)</sup>

② 大竹健介, <周禮正義(抄)解讀>, 《武藏大學人文學會雜誌》28-1, 1996.

<周禮正義注疏(抄)解讀承前>, 동잡지28-2, 1997.

\* <周禮正義序>와 注疏卷第一 등의 내용을 발췌하여 訓讀한 것.

### 5) 《儀禮注疏》

부분 번역서가 나와 있다.

① 蜂屋邦夫, 《儀禮士冠疏》,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研究報告, 汲古書院, 1984. 《儀禮士昏疏》, 상동, 1986.

\* 《儀禮士冠疏》는 儀禮疏卷第一~卷第三, 《儀禮士昏疏》는 儀禮疏卷第四~卷第六을 현대어번역하고, 주해를 실고 있다. 儀禮疏의 원문(句讀點 부가)은 책 뒷편에 게재.<sup>41)</sup>

② 池田末利, 《儀禮》1~5(別冊圖1~5), 東海大學出版會, 1974~1977.

\* 鄭玄의 注와 賈公彥의 疏 이하, 역대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면서 《儀禮》 전체를 완역한 것. 각권의 내용에 따른 別冊圖5권도 함께 간행되었다. 經(원문), 訓讀, 현대어번역, 주해의 순서로 구성.<sup>42)</sup>

### 6) 《禮記正義》

번역서는 없고 大學紀要 등의 잡지에 발표한 부분적 번역의 연재물이 있다.

① <禮記注疏檀弓篇譯注>1~23 (大阪市立大學禮記注疏研究班), 《中國學志》屯號(1988) ~ 无妄號(2010)

\* 《禮記》檀弓篇의 經, 注, 經傳釋文, 正義를 번역한 것. 번역은 經, 注·釋文, 正義의 순서로 제시하고, 각각 訓讀 후에 현대어번역을 실시하였다(단, 釋文은 현대어번역 생략).

② 末永高康, <禮記注疏釋注稿>1~12, 《(廣島大學)東洋古典學研究》38~49, 2014~2020.

40) 田二郎는 大東文化大學 중국학전공 출신. 孫詒讓의 《周禮正義》는 二松學舍大學附屬東洋學研究所에서 原田悅穂著《訓讀周禮正義》(1987~)로 출판하였다고 하는데, 확인하지 못하였다.

41) 蜂屋邦夫는 東京大學 명예교수. 汲古書院의 해설에 따르면 이 작업은 11년에 걸친 23명에 의한 성과라고 한다. <http://www.kyuko.asia/book/b10196.html>

42) 池田末利(1910~2000)는 廣島大學 명예교수. 野間文史의 스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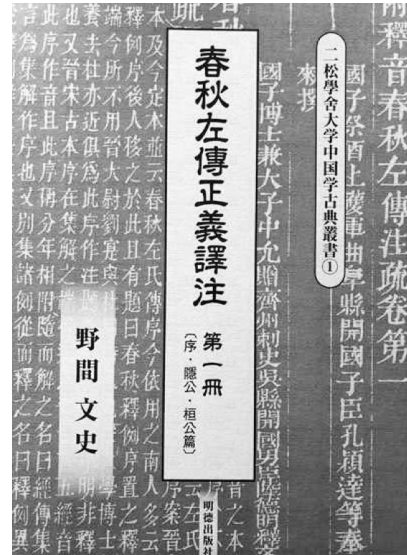
\* 38호<冠義第四十三(全)>(2014)부터 년1~2회의 발표로 49호<曾子問第七>(2020)까지 이어지고 있는 연재물. (발표자 미확인)

### 7) 《春秋左傳正義》

野間文史에 의한 완역본이 간행되어 있다.

- ① 野間文史, 《春秋左傳正義譯注》第一冊~第六冊, 二松學舍大學中國學古典叢書, 明德出版社, 2017~2019.

\* 《春秋正義》를 현대일본어로 번역하고 譯注를 행한 완역서이다. 번역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經文, 傳文, 注文을 첨가하고 있다. 經文과 傳文은 원문뿐이고, 注文에는 원문 뒤에 訓讀文을 실고 있다. 第一冊은 序/隱公/桓公篇, 第二冊은 莊公/閔公/僖公篇, 第三冊은 文公/宣公/成公篇, 第四冊은 襄公篇, 第五冊은 昭公篇, 第六冊은 定公/哀公篇.



<별첨 10> 野間文史, 《春秋左傳正義譯注》, 明德出版社

### 8) 《春秋公羊傳注疏》

부분번역이 출판되어 있다.

- ① 公羊注疏研究會, 《公羊注疏譯注稿 隱公元年—哀公十四年》, 汲古書院, 2007.

\* 1976년 발족한 公羊注疏研究會의 《春秋公羊解詁》 《公羊疏》의 會讀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이전 汲古書院에서 간행한 《公羊注疏譯注稿》1~6권 및 哀公十四年卷까지의 7책(1983~1992)을 합본한 것이다. 상단에 원문, 하단에 현대어번역문을 게재한 구성(원문은 중국식 標點法에 따라 句讀를 실시하였고, 거기에 일본식 訓讀點(返り点, 送り仮名)을 부가하였다).

### 9) 《春秋穀梁傳注疏》

부분번역이 출판되어 있다.

- ① 田中麻紗巳, 《春秋穀梁傳楊士勛疏》, 汲古書院, 2015.

\* 穀梁傳序와 隱公(卷一)부터 閔公(卷六)까지를 번역한 것. 疏는 원문 뒤에 訓讀과 현대어번역을 함께 제시하였고, 經·傳·注에 대해서는 원문 뒤에 訓讀만 제시하였다.<sup>43)</sup>

43) 田中麻紗巳는 東北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 출신. 注疏 번역은 아니지만, 范甯의 穀梁傳注12권 전부를 현대어 번역한 것으로 岩本憲司, 《春秋穀梁傳范甯集解》(汲古書院, 1990)가 있다.

## 10) 《論語注疏》

何晏《集解》의 완역본이 간행되어 있다.

① 渡邊義浩編, 《全譯論語集解》上/下, 汲古書院, 2020.

\* 《論語注疏》 중, 何晏의 集解 부분을 완역한 것으로, 句讀點을 부가한 原文, 校勘, 訓讀, 譯注(난자주해), 現代語譯, 參校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 11) 《孝經注疏》

잡지 연재물이 있다.

① 宮本勝他, <孝經注疏訓注>1~4, 《(北海道大學)中國哲學》14~18, 1985~1989.

\* 발표자 미확인.

## 12) 《爾雅注疏》

\* 없음(미발견?)<sup>44)</sup>

## 13) 《孟子注疏》

\* 없음(미발견?)

<별첨 11> 渡邊義浩 編,  
《全譯論語集解》上/下, 汲古書院, 2020.

이상으로 일본의 十三經注疏의 번역 현황을 살펴보았다. 완역본으로는 80여 년 전에 나온 吉川幸次郎의 《尙書正義》와 근년의 野間文史의 《春秋左傳正義譯注》 두 책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머지 부분적인 번역들의 대부분은 역자들의 고령화 등의 이유로 후속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짐작한다.

## 5. 맺는말

이상, 에도 시대 古文辭學의 방법론을 주장한 荻生徂徠와 太宰春台의 訓讀論을 대상으로 그들의 주장이 갖는 의미, 다음으로 일본에서의 한문텍스트의 전체적인 번역 현황, 그리고 현재까지의 十三經注疏의 번역 상황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제2절의 종래의 군도쿠(訓讀)에 대한 소라이 학파의 이의 제기는 근대의 이른바 支那學派에까지 영향을 미쳐 국어인 일본어에 대한 외국어라는 관점을 포함하여 訓讀, 나아가서 漢字·漢文의 폐지 혹은 지속의 논의를 야기하였으며, 한편에서 근대적 ‘번역’으로 발전하

44) 관련 연구논문으로는 野間文史, <邢昺《爾雅疏》について>(《廣島大學文學部紀要》52, 1992)가 있다.

는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한국과의 비교에서 생각해 보면, ‘군도쿠’를 둘러싼 문제는 아무래도 吏讀, 口訣에 이어 한글창제에 따른 諺解 등으로 한자·한문을 일찍부터 외국어로 인식해 온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번역서가 현실에서는 訓讀을 중요하게 채택하고 있음을 제3절에서 확인하였다. 또 하나는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중국의 文史哲을 망라하는 많은 번역서들이 세상에 나왔지만, 十三經으로 불리는 텍스트에 대한 번역은 그 명성만큼은 아니며, 특정 경전에 치우쳐 있고 아직 번역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제4절에서는 일본의 十三經注疏의 번역 현황을 대상으로, 완역본으로는 吉川幸次郎의 《尙書正義》와 野間文史의 《春秋左傳正義》 두 책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지금까지 번역·연구를 선도해온 중심적인 역자들의 고령화 등의 이유로 지속작에 대한 기대가 그리 크지 않음을 전망해 보았다. 또한 이 분야는 중국학 전공자 개인 혹은 소수의 그룹에 의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연구비도 개인 신청의 科學研究費助成事業에 의지하는 것이 많아 보인다. 인문학 자체의 입지도 갈수록 좁아지는 현실에서 번역작업의 안정적인 연구환경과 신진학자의 확보는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통문화연구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본다.

[주제발표 3]

## 韓國에서의 十三經注疏 影響과 譯註事業

崔 錫 起  
(경상대 명예교수)

1. 머리말
2. 十三經注疏의 經學史的 意味
3. 十三經注疏의 受容과 影響
4. 十三經注疏의 完譯과 向方
5. 맺음말

### <논문요약>

이 글은 中國經學史에서의 十三經注疏 成立과 經學史的 意味, 韓國에서의 十三經注疏 受容 및 影響, 韓國에서 十三經注疏 譯註事業의 現況과 展望 및 問題點과 向方 등을 논의한 것이다.

十三經注疏는 漢代, 魏晉南北朝, 隋唐代를 거쳐 北宋 때 만들어지고 南宋 때 合刊된 유교경전이다. 前漢의 今文學, 後漢의 古文學, 魏晉南北朝의 玄學的 解釋 등 變化와 屈曲을 거쳐 唐 太宗 때에 이르러 五經正義로 정리되고, 唐 玄宗 때에 《儀禮》, 《周禮》, 《春秋公羊傳》, 《春秋穀梁傳》 4經의 注疏가 더해져 九經注疏가 되었다. 여기까지는 三禮(禮記, 儀禮, 周禮)와 春秋三傳(左氏傳, 公羊傳, 穀梁傳)이 들어있지만, 孔子가 撰定한 五經 중심의 경전이다. 그러나 北宋 때 더해진 4經(論語, 孝經, 爾雅, 孟子)은 孔子의 後學들이 편찬한 책으로, 孔子가 찬정한 五經 중심의 체제에서 孔子 이후의 저술까지 포함한 것이다. 또 이 4종의 注疏는 九經注疏까지 지켜진 疏不駁注의 原則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經典 解釋의 變化된 認識을 반영하고 있다.

十三經注疏의 意義는 漢代의 訓詁와 唐代의 義疏를 選本 중심으로 統一시켜 定本化하고, 이를 合刊하여 後代 定本の 舊注로 자리 잡게 한 것이다. 한편 十三經注疏의 문제점은 今文學과 古文學의 箋注를 온전히 계승하지 못하고 玄學的 解釋이 介入되었으며, 《論語》·《孝經》·《爾雅》·《孟子》가 추가되어 五經 체제가 解體되었을 뿐만 아니라 疏不駁注의 原則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明나라 永樂帝 때 만든 四書五經大全은 顧炎武, 朱彝尊, 紀昀, 皮錫瑞, 蔣伯潛, 吳雁南

등 清代부터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이 宋元代 학자들의 저술을 剽竊하여 학술적 가치가 없다고 酷評한 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三國時代부터 五經을 수입하여 교육하였는데, 《論語》·《孝經》·《周禮》 등이 五經과 함께 重視되었다. 요컨대 唐代의 五經正義와 九經注疏 및 宋代의 十三經注疏가 그대로 通行된 것은 아니다. 高麗 末 元나라 수도 燕京에서 程朱學이 유입되고, 朝鮮 世宗 때 七部大全이 유입되어 5백여 년 이상 교과서로 읽혔다. 이런 풍조 속에서 十三經注疏는 거의 외면당하였다.

17세기 禮訟論爭 등을 거치면서 일부 학자들이 十三經注疏를 참조하였으나 《禮記》와 《儀禮》에 그치고 十三經으로 확대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에 이르면 十三經注疏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斷絶되었다. 18세기 崔錫鼎과 李瀾, 19세기 正祖·丁若鏞·成海應·洪奭周·金正喜·李圭景 등 소수의 학자들이 十三經注疏로 시선을 돌렸으나 그 전통도 계승되지 못하고 단절되었다.

전통문화연구회에서 十三經注疏를 完譯하는 譯註事業은 한국경학의 전통 속에서 보면 매우 획기적인 기획이고 의미심장한 일이다. 다만 보다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번역이 되기 위해서는 번역전문가, 원로학자, 전문연구자, 운문교정자가 참여하는 協同研究翻譯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協同研究翻譯會議(가칭)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번역문은 학술적 용도로 번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可讀性을 강조하여 한문 문장구조의 기본형식을 허물 필요는 없다. 그리고 舊注의 전통이 단절되고 新註만 학습한 번역자들이 新註에 의거해 해석하기가 쉽기 때문에 注와 疏의 意味, 字義 파악, 新註와의 比較檢討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編輯出版이 章과 節을 細分化하고, 注와 疏에 譯者註가 개입되어 한 章이나 한 段落의 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런 점은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十三經注疏를 完譯하는 일은 학술적 의미가 매우 큰데, 活用度를 높이고 研究를 促進시킬 수 있는 후속 조치와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1. 머리말

동아시아에서 서적을 분류할 적에 經, 史, 子, 集으로 나누고 經部를 제일 앞에 둔 것은 유교경전이 가장 중시되었음을 의미한다. 經은 일반적으로 常道를 의미하며, 孔子가 撰定한 六經을 가리킨다. 이 六經이 傳授되고 解釋되어 내려온 역사가 經學史이다.

동아시아 경학사는 시대적 이념에 따라 漢代의 今文學과 古文學의 경쟁, 宋代의 義理를 위주로 한 해석과 같이 轉變되면서 내려왔다. 또 시대에 따라 중시하는 경전이 달랐으며, 그 범위도 五經, 九經, 十三經, 四書五經으로 달라졌다. 해석방법도 漢·唐代에는

訓詁學·義疏學이 유행하고, 宋·元代에는 義理學이 유행하고, 清代는 考證學이 유행하였다. 漢·唐代的 주석을 집성한 것이 十三經注疏의 舊注이며, 宋·元代 주석을 집성한 것이 四書五經大全의 新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朝鮮 世宗 이후 사서오경대전을 교과서로 삼아 학습하다 보니, 십삼경 주소는 아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17세기 禮訟이 일어나면서 소수 학자들이 古經으로 시선을 돌려 舊注를 참고하였으나,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清代 학자들처럼 중시하지 않았다. 이런 풍토는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학계의 안일한 인식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전통문화연구회에서 十三經注疏를 완역하겠다는 목표 아래 譯註事業을 시작한 일이다. 전통문화연구회에서는 동양고전 역주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十三經注疏譯註 특별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최초로 십삼경주소를 완역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십삼경주소 역주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십삼경주소의 가치와 의의를 알리기 위해 문명사적 의의와 번역의 의의를 논하고<sup>1)</sup>, 역주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논한 연구<sup>2)</sup>가 이어져 십삼경주소에 대한 인식이 한층 제고되었다. 그러나 십삼경주소에 대한 이해에 치중해 중국경학사 속에서 그 위상과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였으며, 한국경학사 속에서 십삼경주소의 영향관계를 논한 것도 미비한 면이 없지 않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십삼경주소의 성립과 경학사적 의미 및 한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에서 십삼경주소 역주사업의 현황과 전망 및 문제점과 향후 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십삼경주소의 경학사적 의의와 역주사업의 중요성이 한층 새롭게 인식되고 제고되기를 기대해 본다.

## 2. 十三經注疏의 經學史的 意味

### 1) 經學의 歷史와 轉變

#### (1) 孔子와 六經

經學이란 訓詁, 義理, 考據 등의 방법으로 유교경전을 해석하고 그 意味를 窮究하여 闡

1) 진호근, <유가철학 원전전송의 문명사적 의의-십삼경주소의 성립과 전송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제26집,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5.

2) 심경호, <十三經注疏 번역의 필요성과 방법-부:전통문화연구회의 사례 검토>, 《고전번역연구》 제9집, 한국고전번역학회, 2018.

明하는 학문이다. 유교경전은 孔子가 撰定한 六經으로부터 비롯되어 그 범위가 시대에 따라 다르게 演變되었다. 유교경전은 漢代 五經博士를 두면서 ‘經’으로 일컬어진 것으로 보는데, 《莊子》와 《荀子》에 ‘經’이라는 글자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전국시대부터 經이라 칭한 것을 알 수 있다. 經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常道로 보는 설과 絲[絲]로 竹簡을 엮은 冊으로 보는 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sup>3)</sup>

육경은 孔子가 撰定한 것인데 두 가지 시선이 있다. 하나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형성된 것으로 한 시대 한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는 공자가 私學을 창설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만든 교재라는 것이다. 전자는 역사성을, 후자는 孔子에 중점을 두는 관점이다. 이는 후대 今文學과 古文學의 相異한 시각으로 나타난다.

## (2) 前漢의 五經傳習과 今文學

중국경학은 前漢의 今文學, 後漢의 古文學, 宋代의 宋學, 이 세 학파가 나타나 興衰하면서 代替하다가 清代에 竝起했으며, 각 시대의 학풍에 따라 求是, 疑古, 考證의 풍조가 흥성했다고 보고 있다.<sup>4)</sup> 漢代 訓詁學은 求是를, 宋代 義理學은 疑古를, 清代 考據學은 考證을 위주로 하였는데, 이는 전대의 학풍에 대한 반성과 당대의 요구에 의해 출현한 것이다.

經學은 前漢 때 형성되었다. 董仲舒, 司馬遷, 叔孫通 등이 秦政의 폐해를 指斥하고 仁政·王道 등을 강조하면서 유가사상이 보편적 이념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惠帝 때 秦의 禁書令을 없애자 유교경전이 전수되기 시작하였으며, 文帝 때 博士官 제도를 도입하여 《魯詩》·《韓詩》에 박사를 두었고, 景帝 때 《齊詩》에도 박사를 두었다. 그리고 武帝 때 董仲舒가 ‘罷黜百家 表章六經’을 상소하고, 公孫弘이 박사제도를 건의하여 五經博士를 두게 되었다.<sup>5)</sup>

武帝 建元 5년(B.C. 136) 처음으로 오경박사를 두었는데, 詩에는 申培의 《魯詩》와 韓嬰의 《韓詩》와 轅固의 《齊詩》, 書에는 歐陽生의 《尙書》, 易에는 楊氏(楊何)의 《易經》, 禮에는 后氏(后倉)의 《禮經》, 春秋에는 公羊高의 《公羊春秋》 등 7家の 박사를 세웠다. 이때부터 六經 중 樂經이 빠지고<sup>6)</sup> 五經 체제가 성립되었으며, 《詩經》에만 3家の 박사가 세워졌다.

3) 吳雁南 外 主編, 《中國經學史》, 五南圖書出版股份有限公司, 2005, 3쪽 참조.

4) 上同, 6~9쪽 참조.

5) 皮錫瑞 著, 李鴻鎮 譯, 《中國經學史》, 東華출판공사, 1984, 49~50쪽 참조.

6) 前漢 때 六經을 복원할 때 樂經은 이미 失傳되어 전하지 않았다는 설이 많은데, 陳延傑은 《經學概論》(商務印書館, 중화민국19년)에서 邵懿辰의 《經學通論》에 “樂無本經也”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악경은 본래 전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宣帝 때 施雠와 孟喜가 전한 《易經》이 학관에 세워지고, 石渠閣會議를 거친 뒤 梁丘賀의 《易經》과 大夏侯와 小夏侯의 《尚書》와 《穀梁春秋》가 학관에 세워졌다. 그리하여 宣帝 때에는 詩에 《齊詩》와 《魯詩》와 《韓詩》, 書에는 歐陽生과 夏侯勝과 夏侯建이 전한 《尚書》, 易에는 梁丘賀와 施雠와 孟喜가 전한 《易經》, 禮에는 后倉이 전한 《禮經》, 春秋에는 公羊高가 전한 《公羊春秋》와 穀梁赤이 전한 《穀梁春秋》 등 12家に 박사가 세워졌다. 이후 元帝 때 京房의 《易經》이 박사에 세워져 13家の 박사가 있게 되었다.<sup>7)</sup>

前漢의 경학은 대부분 齊와 魯 지역에 淵源을 두고 있는데, 각 경전별로 전수한 내력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詩를 전한 사람은 魯人 申培, 齊人 轅固, 燕人 韓嬰, 趙人 毛公 등 모두 4인데 申培가 전한 《魯詩》와 轅固가 전한 《齊詩》와 韓嬰이 전한 《韓詩》는 今文이고, 毛公의 《毛詩》는 古文이다. 《魯詩》는 申培가 荀卿의 제자인 浮丘伯에게 배워 전한 것으로 文帝 때 박사가 되었다. 韓嬰이 전한 《韓詩》도 文帝 때 박사에 세워졌는데, 韓嬰은 燕과 趙 사이에서 이를 전수했다. 轅固가 전한 《齊詩》는 景帝 때 박사에 세워졌다. 《毛詩》의 전수는 子夏로부터 大毛公으로 전해지는 두 계통이 있는데, 前漢 때에는 박사에 세워지지 못하였다.

書를 전한 사람은 濟南人 伏勝으로, 秦나라 때 書博士이었다. 그는 焚書 때 벽 속에 《尚書》를 숨겼는데, 漢初에 수십 편을 잃어버리고 29편만 수습하여 齊와 魯 지역에서 전수하였다. 伏勝이 전한 것을 《尚書大傳》이라 한다. 文帝 때 《尚書》에 능통한 자를 찾았는데, 伏勝은 고령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문인 晁錯이 대신하였다. 晁錯의 제자 중 張生과 歐陽生이 저명하여 《今文尚書》를 전했는데 張生의 문하에서는 夏侯勝과 夏侯建이, 歐陽生의 문하에서는 歐陽高가 전한 《尚書》가 박사에 세워졌다.

易은 卜筮의 서적으로 焚書에 포함되지 않아 끊어지지 않고 전해졌다. 前漢 초 易學大師는 田何로, 그의 문하에서 수학한 王同, 周王孫, 丁寬, 服生은 모두 易傳이 있었다. 오경박사를 설치할 때 王同의 문인 楊何의 易傳이 박사에 세워졌으며, 宣帝 때 丁寬의 문인 田王孫의 문하에서 施雠와 孟喜가 전한 易傳과 楊何의 문인 梁丘賀가 전한 易傳이 박사에 세워졌다. 그리고 元帝 때에는 楊何의 문인 京房의 易傳도 박사에 세워졌으나 오래지 않아 폐지되었다.

禮는 전한 초 魯人 高堂伯이 《士禮》 17편을 전했는데 이것이 후세의 《儀禮》다. 이와는 별도로 魯나라 徐生이 文帝 때 禮官大夫가 되었는데, 그의 문인 중 瑕丘 蕭奮이

7) 吳雁南 外 主編, 《中國經學史》, 五南圖書出版股份有限公司, 2005, 57쪽 참조. 皮錫瑞는 《禮經》에 后倉의 문인 戴德과 戴聖이 박사가 되고, 《公羊春秋》에 嚴彭祖와 顏安樂이 박사가 되어 전한 때 오경박사는 모두 14家라고 하였다.(皮錫瑞 著, 李鴻鎮 譯, 《中國經學史》, 東華출판공사, 1984, 51~52쪽 참조)

가장 저명하였다. 武帝 때에는 高堂生の 禮가 박사에게 세워졌고, 宣帝 때에는 蕭奮의 재전 문인 后倉이 전한 禮가 박사에게 세워졌다. 戴德, 戴聖, 慶普 등은 蕭奮의 禮를 전해 받은 后倉의 문인이다. 戴德이 기록하여 전한 85편이 《大戴禮記》이고, 戴聖이 기록하여 전한 49편이 《小戴禮記》로 지금 전하는 《禮記》이며, 慶普가 전한 49편의 《禮記》가 별도로 있었다.<sup>8)</sup> 이 가운데 前漢 말 戴德과 戴聖의 《禮記》가 박사에게 세워졌고, 慶普의 《禮記》는 학관에 서지 못하였다.

전한 초 《춘추》에는 公羊學, 穀梁學, 左氏學, 鄒氏學, 夾氏學 등이 있었는데, 추씨학과 협씨학은 전하지 못하였다. 좌씨학은 張蒼이 전수받아 賈誼에게 전했는데, 전한 때는 박사에게 세워지지 못하였다. 전한 때는 공양학과 곡량학이 성행하였다. 《公羊春秋》는 子夏로부터 公羊高-公羊平-公羊敬-公羊壽를 거쳐 胡毋子都에게 전해져 景帝 때 박사에게 세워졌으며, 董仲舒와 公孫弘이 전해 받아 제나라 지역에서 성행하였다. 《穀梁春秋》는 子夏로부터 穀梁赤에게 전해지고 다시 荀卿에게 전해져 浮丘伯-申培-瑕丘江公으로 전수되었는데 魯나라 지역에서 성행하였다. 武帝 때 《公羊春秋》가 박사에게 세워지고, 宣帝 때 《穀梁春秋》도 박사에게 세워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한 때에는 詩에 3家, 書에 3家, 易에 4家, 禮에 2家, 春秋에 2家, 총 14家の 오경박사가 學官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sup>9)</sup>

### (3) 後漢의 古文經學과 今古文統一

古文經學은 前漢 말에 흥기하여 後漢 때 성행했다. 전한 때에는 今文經學이 官學의 지위에 있었고 고문경학은 私學의 지위에 있었다. 금문경학과 고문경학의 分岐는 文字가 달랐던 데서 기인한다. 今文은 漢代 통용된 隸書로 된 글이고, 古文은 秦 이전에 사용한 籀文(大篆, 小篆)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王國維는 전국시대 동방6국에서 통용되던 글자는 秦의 籀文과 다른 것으로, 古文은 籀文이 아니고 동방6국에서 쓰던 문자였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0)</sup>

전한 때 이미 고문으로 된 경전이 다수 출현하였는데<sup>11)</sup>, 금문학이 官學으로 유행하는

8) 蔣伯潛·蔣祖怡 著, 최석기·강정화 譯註, 《유교경전과 경학》, 경인문화사, 2002, 145~158쪽 참조.

9) 《後漢書》 <儒林列傳>에 의하면 광무제가 즉위하여 王莽 때의 박사제도를 폐지하고 宣帝와 元帝 때의 박사제도를 회복하였는데, 易에는 施雠와 孟喜와 梁丘와 京坊의 《역경》, 書에는 歐陽生과 大夏侯와 小夏侯가 전한 《상서》, 詩에는 《齊詩》와 《魯詩》와 《韓詩》, 禮에는 大戴과 小戴가 전한 《예기》, 春秋에는 嚴氏(嚴彭祖)와 顏氏(顏安樂)의 《공양춘추》 등 모두 14박사를 세웠다고 하였다. 이 설은 《곡량춘추》는 박사에게 세워지지 않고 《공양춘추》만 2家が 박사에게 세워졌다고 보는 관점인데, 皮錫瑞의 설도 이와 같다.

10) 吳雁南 外 主編, 《中國經學史》, 五南圖書出版股份有限公司, 2005, 82쪽 참조.

11) 上同, 83~84쪽 참조.

풍조 속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전한 말 劉歆이 고문을 중시하기 전까지는 고문학에 관심을 두지 않아 금문학과 고문학의 대립도 없었다. 금문학과 고문학은 文字가 다르고 篇目도 달랐다. 공자를 대하는 태도도 今文家は 孔子를 철학자, 정치가, 교육자로 보는 반면, 古文家は 三代之 文화를 收藏하고 保存한 사람으로 본다. 六經에 대해서도 금문가는 공자가 지은 것으로 보는 반면, 고문가는 三代之 典章制度和 政治格言을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연구방법도 금문가는 微言大義를 闡明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고문가는 名物訓詁와 典章制度에 중점을 둔다.

전한의 고문학자는 張蒼, 賈誼, 孔安國, 司馬遷 등이 대표적이며, 전한 말 고문경학을 발전시킨 인물은 劉向과 劉歆 부자다. 哀帝가 별세한 뒤 王莽이 정권을 장악하였을 때, 劉歆이 중용되어 고문경학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당시 고문학인 《毛詩》, 《逸禮》, 《古文尚書》, 《周禮》가 학관에 세워지고 박사를 설치하였다.<sup>12)</sup>

전한 말 哀帝, 平帝 때 讖緯說이 유행하여 유학이 종교화되고 금문경학이 神學과 뒤섞이자, 揚雄과 桓譚 등 고문가들이 이를 비판하면서 금문경학과 대립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후한 광무제 때에는 이미 금문경학과 대등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章帝가 建初 4년(79) 白虎觀會議를 개최하여 五經同異를 변박하게 함으로써 고문경학은 금문경학을 압도하기 시작했다.<sup>13)</sup> 후한 和帝 이후 금문경학은 급속히 쇠퇴하여 저명한 인물은 《春秋公羊解詁》를 지은 何休(128~182) 밖에 없다. 반면 후한의 저명한 고문경학가로는 杜林, 鄭衆, 衛宏, 賈逵, 許慎, 馬融, 服虔, 盧植, 鄭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鄭玄(127~200)은 경학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정현의 字는 康成으로 山東省 高密 출신이다. 태학에 들어가 학업을 익힌 뒤 馬融의 문하에 나아가 의문점을 질의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何休의 금문학을 비판하며 저술에 전념하였다. 정현은 경전을 연구하는 태도가 근엄하고 학풍이 순후하고 實事求是를 추구하였다. 정현의 학문성향은 금문학과 고문학에 대한 門戶를 타파하고, 考據의 방법으로 경전을 정리하고 문자를 교감하며, 금문경학의 번잡하고 誣妄한 章句를 산삭하고, 因聲求義의 훈고방법을 제시하며, 三禮의 연구에 힘을 기울인 것으로 요약된다. 후한의 고문가들은 금문학설을 채용하지 않았는데, 정현은 금문을 먼저 배우고 고문을 뒤에 익혀 衆說을 두루 수집해 금문과 고문을 관통해 스스로 一家의 학문을 이룩하였다. 특히 문호의 설에 얽매이지 않고 의리를 천명한 점에서, 또 전한의 금문학과 후한의 고문학을 하나로 통일시켰다는 점에서 경학사적 의미가 크다.<sup>14)</sup>

12) 上同, 84~91쪽 참조.

13) 上同, 103~105쪽 참조.

14) 上同, 114~117쪽 참조.

#### (4) 唐代의 五經正義와 九經注疏

魏晉南北朝 시대의 경학은 三國・西晉代의 경학과 南北朝代의 경학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후한 말 鄭玄이 금문학과 고문학을 통일하여 집대성하자, 그의 문인들이 朝野에 두루 퍼져 학계를 지배하였다. 그러다 삼국시대 魏나라 王肅(195~256)이 鄭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王肅은 정치적으로 司馬氏의 편에 있었고, 학술적으로는 賈逵와 馬融의 고문경학을 좋아하고 鄭學을 좋아하지 않았다. 왕숙은 고문경전을 다수 注解하고 《聖證論》, 《孔子家語》, 《孔叢子》 등을 저술하였는데, 곳곳에서 鄭玄을 정면으로 批判하였다.<sup>15)</sup>

王肅이 鄭學과 대립하면서 兩漢의 금문학과 고문학이 모두 쇠퇴하였고, 또 《莊子》, 《老子》, 《周易》 등의 연구가 유행하는 潮流에 의해 玄學으로 기울었다. 王弼은 《周易》과 《老子》를 注解하였고, 《論語集注》를 지은 何晏은 《周易》과 《老子》를 숭상하였다. 이들은 道家의 학설로 유교경전을 해석하였다.<sup>16)</sup> 이 시기에는 王肅이 주해한 《毛詩》, 《尚書》, 《周易》, 《孝經》, 三禮 등이 통용되었으며, 鄭玄이 주해한 三禮도 전승되었다. 그러나 금문경학은 何休가 주해한 《春秋公羊解詁》만이 전하였을 뿐, 나머지는 모두 散失되었다.<sup>17)</sup>

남북조 시대에는 남방은 魏・晉의 학풍을 계승한 반면, 북방은 後漢의 학풍을 계승하였다. 《毛詩》와 三禮는 남조・북조 모두 鄭玄의 주해가 통행했으나, 남조에는 王肅의 《周易》과 杜預의 《春秋左氏經傳集解》와 何休의 《春秋公羊解詁》가 통행하고, 북조에는 鄭玄의 《周易》과 《尚書》 및 服虔의 《春秋左氏傳》이 통행하였다.<sup>18)</sup>

이 시기 僞《古文尚書孔傳》이 나타났는데, 이는 당시 유행하던 鄭玄의 注本과 다른 것이었다. 이 책은 저자를 王肅으로 보는 설도 있고, 鄭衆으로 보는 설도 있고, 梅賾으로 보는 설도 있다. 이 책은 豫章內史 梅賾이 隸書로 써서 조정에 바쳤는데, 얼마 뒤 豫章太守 范寧이 당시 유행하는 楷書로 바꾸어 썼으며, 모두 58편으로 鄭玄의 注本보다 24편이 나 더 많다.<sup>19)</sup> 이것이 후대 《僞古文尚書》로 일컬어지는 책인데, 皮錫瑞는 王肅의 僞作으로 보았다.<sup>20)</sup>

隋・唐에 이르러 남북이 통일된 뒤, 경학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唐太宗은

15) 上同, 139~141쪽 참조.

16) 上同, 142~144쪽 참조.

17) 이종호 편, 《유교경전의 이해》, 263~264쪽 참조.(范文瀾의 《經學講演錄》 <제2장 금문경학과 고문경학의 투쟁>)

18) 上同, 264쪽 참조.

19) 吳雁南 外 主編, 《中國經學史》, 五南圖書出版股份有限公司, 2005, 153쪽 참조.

20) 皮錫瑞 著, 李鴻鎮 譯, 《中國經學史》, 東華출판공사, 1984, 125~126쪽 참조.

유학에 門戶가 많고 章句가 번잡하다는 이유로 孔穎達과 顏師古 등에게 조칙을 내려 五經義訓을 정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공영달은 五經正義를 편찬하고, 안사고는 五經定本을 정하였다. 貞觀4년(630)에 五經定本 撰定을 개시하여 貞觀16년(642) 五經正義 170권을 완성하였다. 오경정의가 편찬된 뒤 비평이 잇따라 高宗 永徽4년(653)에야 정식으로 천하에 반포하였다.

《周易正義》는 총 14권으로 王弼의 注를 중주로 하였으며, 《尙書正義》 총 20권으로 孔安國傳으로 알려진 《僞古文尙書》를 저본으로 하였으며<sup>21)</sup>, 《毛詩正義》는 총 40권으로 鄭玄의 注를 저본으로 하였으며, 《禮記正義》는 총 70권으로 鄭玄의 注를 저본으로 하였으며, 《春秋正義》는 총 36권으로 杜預의 《春秋左傳集解》를 중주로 하였다.<sup>22)</sup>

오경정의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疏不駁注’의 방법이다. ‘소불박주’는 오로지 傳注를 위해 지은 疏解다. 즉 어떤 注本을 저본으로 選定하면 반드시 原注를 守護하여 糾正을 가하지 않았다. 이는 漢代의 경학적 전통을 준수한 것이다. 한대의 경학은 師法과 家法을 중시하여 이를 위배하는 자는 박사로 세울 수 없게 하였다. 오경정의를 찬수한 목적이 유학에 門戶가 많고 章句가 번잡하였기 때문이니, 一家를 精選해 正宗으로 삼고 異說을 배척하는 精選注家와 疏不駁注는 경학을 통일시키기 위한 대원칙이었던 것이다.<sup>23)</sup>

오경정의의 특징은, 南學과 北學이 공존하는 체계를 형성한 점, 번잡한 章句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士子가 傳習하는 데 간명한 文本을 제공한 점, 義疏에서도 義理에 대해서는 取捨한 것이 있다는 점이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오경정의는 漢代로부터 隋·唐代까지의 서로 다른 설을 포괄하여 정리하고 남학과 북학을 공존하게 한 장점이 있지만, 내용이 번잡하여 一家의 설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사람이 한 경전을 나누어 정리하여 統一性이 부족하고, 讖緯說을 취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는 등 상이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sup>24)</sup>

唐 玄宗 開元16년(728) 국자좨주 楊瑒(창)이 《周禮》, 《儀禮》, 《春秋公羊傳》, 《春秋穀梁傳》 등 4경을 전습하는 士子를 우대하자고 주청해 明經考試에 이 4종의 경전이 더해 九經이 되었다. 그러니까 《詩經》, 《尙書》, 《周易》과 三禮(《예기》, 《의례》, 《주례》) 및 春秋三傳(《춘추좌씨전》, 《춘추공양전》, 《춘추곡량전》)이 九經이 된 것이다. 《周禮》와 《儀禮》는 賈公彥의 疏를, 《春秋公羊傳》은 徐彥의 疏를, 《春秋穀梁傳》은

21) 《상서》는 伏勝이 전한 《금문상서》, 孔壁에서 나온 《고문상서》, 張霸의 《百兩篇》, 杜林의 《漆書》, 梅賾이 올린 《위고문상서》 등이 있다. 당대 孔穎達은 《尙書正義》를 편찬할 적에 梅賾이 올린 《위고문상서》를 孔安國傳이라 여겨 채용하고, 馬融과 鄭玄이 注한 《칠서》는 위서로 보았다. 그러나 청대 閻若璩, 惠棟은 이와 반대로 보았으며, 劉逢祿, 宋翔鳳, 魏源은 공안국전과 《칠서》 모두 僞書로 보았다.(陳延傑, 《經學概論》, 商務印書館, 中華民國 19년(1930), 91쪽 참조)

22) 吳雁南 外 主編, 《中國經學史》, 五南圖書出版股份有限公司, 2005, 193~194쪽 참조.

23) 上同, 192~195쪽 참조.

24) 上同, 195~196쪽 참조.

楊士勛의 疏를 採用하였다.

賈公彥의 《周禮注疏》는 鄭玄의 주를 저본으로 鄭學을 발휘한 것인데, 후대 朱熹는 《周禮注疏》를 경전 중 제일 좋다고 호평하였다.<sup>25)</sup> 《儀禮注疏》는 鄭玄 이전에는 注本이 없었는데, 鄭玄이 주를 낸 뒤 위진남북조 때 일부 학자들이 鄭注에 義疏를 냈다. 徐彥의 《春秋公羊傳疏》는 何休의 《春秋公羊解詁》를 저본으로 하였다. 楊士勛의 《春秋穀梁傳疏》는 范寧의 《春秋穀梁集解》를 저본으로 해설한 것이다. 이 4종의 注疏가 五經正義에 더해져 九經注疏가 되었다.

## 2) 十三經注疏와 四書五經大全

### (1) 宋代 十三經注疏 合刊

唐 文宗 開成年間(836~839) 十二經을 둘에 새김으로써 九經에 《論語》, 《爾雅》, 《孝經》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南宋 光宗 紹熙年間(1190~1194) 《孟子》가 편입되어 十三經이라는 칭호가 생겨났다. 唐末·宋初에 이 4경이 經의 지위를 얻은 것은 五經 체제에 변화가 생긴 것을 의미한다. 즉 孔子가 撰定한 五經에 공자 이후의 저술까지 經의 반열에 올린 것이다.

이 十三經에 대해 근대의 蔣伯潛은 《주역》, 《상서》, 《시경》, 《주례》, 《의례》, 《춘추》 6경만을 經으로 보고, 《예기》, 《효경》, 《이아》, 《논어》는 記로, 《춘추》의 三傳은 傳으로, 《맹자》는 諸子로 보았다. 그는 傳은 經의 뜻을 전하여 기술한 것으로 보았고, 記는 공자 제자 및 후학들이 기록한 것으로 보았다.<sup>26)</sup>

북송 초 眞宗 때 邢昺과 孫奭은 群經의 義疏를 교정하여 注疏本을 편찬하였는데, 邢昺은 《孝經注疏》, 《論語注疏》, 《爾雅注疏》를 편찬하고, 孫奭은 《孟子注疏》를 편찬하였다. 《효경주소》는 唐 玄宗이 注를 내고 元行沖이 疏를 내어 학관에 세운 注疏本을 개정한 것이며, 《논어주소》는 남조 梁나라 때 皇侃의 《論語疏》를 저본으로 개정한 것이며, 《이아주소》는 晉 郭璞의 注를 저본으로 한 것이며, 《맹자주소》는 漢나라 때 趙岐의 注를 저본으로 한 것인데 阮元的 <孟子校勘記序>에는 손석이 音義만을 짓고 疏는 짓지 않았다고 하였다.<sup>27)</sup> 이렇게 하여 北宋 眞宗 咸平年間(998~1003) 十三經注疏가 완성되었다.

25) 上同, 198~199쪽 참조.

26) 蔣伯潛 蔣祖怡 著, 최석기·강정화 譯註, 《유교경전과 경학》, 경인문화사, 2002, 17~18쪽 참조.

27) 陳延傑, 《經學概論》, 商務印書館, 중화민국 19년(1930), 119~121쪽 참조.

南宋 光宗 때 처음으로 合刊本이 나타났는데, 岳珂의 《九經三傳沿革例》에 실린 세칭 ‘宋十行本’이 가장 오래된 판본이다. 이 판본을 명나라 嘉靖年間に 重刻한 것이 閩本이고, 萬曆年間に 閩本을 重刻한 것이 明監本이다. 청대 阮元은 宋十行本の 11경에 北宋 때 單疏本인 《의례주소》와 《이아주소》를 더해 重刻하고 <十三經注疏校勘記>를 지었다.<sup>28)</sup>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十三經注疏는 孔穎達 등이 칙령을 받아 642년 五經正義 170권을 편찬하고, 이어 玄宗 때 楊場이 《주례》, 《의례》, 《춘추공양전》, 《춘추곡량전》 등 4경을 明經考試에 더해 九經注疏가 완성되고, 宋 眞宗 때 邢昺과 孫奭이 群經의 義疏를 교정하여 注疏本을 편찬하면서 《孝經注疏》, 《論語注疏》, 《爾雅注疏》, 《孟子注疏》가 더해져 十三經注疏가 완성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注疏本名    | 卷數 | 注家                | 疏家         | 五經         | 九經         | 十三經   |
|---------|----|-------------------|------------|------------|------------|-------|
| 周易正義    | 10 | 魏 王弼 注<br>晉 韓康伯 注 | 唐 孔穎達 等 正義 | 五經正義       | 九經注疏       | 十三經注疏 |
| 尚書正義    | 20 | 漢 孔安國 傳           | 唐 孔穎達 等 正義 |            |            |       |
| 毛詩正義    | 20 | 漢 毛亨 傳<br>漢 鄭玄 箋  | 唐 孔穎達 等 正義 |            |            |       |
| 禮記正義    | 63 | 漢 鄭玄 注            | 唐 孔穎達 等 正義 |            |            |       |
| 春秋左傳正義  | 60 | 晉 杜預 注            | 唐 孔穎達 等 正義 |            |            |       |
| 周禮注疏    | 42 | 漢 鄭玄 注            | 唐 賈公彥 疏    | 4經注疏<br>추가 |            |       |
| 儀禮注疏    | 17 | 漢 鄭玄 注            | 唐 賈公彥 疏    |            |            |       |
| 春秋公羊傳注疏 | 28 | 漢 何休 注            | 唐 徐彥 疏     |            |            |       |
| 春秋穀梁傳注疏 | 20 | 晉 范寧 注            | 唐 楊士勛 疏    |            |            |       |
| 論語注疏    | 20 | 魏 何晏 注            | 宋 邢昺 疏     |            | 4經注疏<br>추가 |       |
| 孝經注疏    | 9  | 唐 玄宗 注            | 宋 邢昺 疏     |            |            |       |
| 爾雅注疏    | 11 | 晉 郭璞 注            | 宋 邢昺 疏     |            |            |       |
| 孟子注疏    | 14 | 漢 趙岐 注            | 宋 孫奭 疏     |            |            |       |

공영달 등이 五經正義를 편찬하면서 가장 중시한 ‘疏不駁注’의 원칙은 九經注疏까지 잘 지켜졌으니, 이는 師法과 家法을 중시한 漢代의 經學精神을 계승한 것이다. 그러나 북송 진종 때 추가된 邢昺과 孫奭이 편찬한 注疏는 師法을 준수하지 않고 義理를 천명한 점도 있어<sup>29)</sup>, ‘疏不駁注’의 원칙이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다.

십삼경주소의 注疏는 漢代 금문경학과 고문경학의 箋注를 온전히 계승하지 못했고, 魏晉 시대의 玄學的 해석이 개입되었으며, 《논어》, 《맹자》, 《효경》, 《이아》 등이

28)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周易正義》(十三經注疏整理本), 북경대학출판사, 2000, 李學勤 序, 2~3쪽 참조.

29) 吳雁南 外 主編, 《中國經學史》, 五南圖書出版股份有限公司, 2005, 220~221쪽 참조.

편입되어 오경 중심의 체계가 해체되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漢代의 訓詁와 唐代의 義疏를 選本 중심으로 통일시켜 定本化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그리고 이를 합간하여 간행함으로써 후대 定本の 舊注로 자리 잡게 한 것도 그 의의가 적지 않다.

## (2) 宋代 義理學的 解釋

송대 유학의 선구는 唐代 韓愈(768~824)이다. 한유는 형식미만 추구하는 부화한 글을 배척하고 ‘文은 道를 실어야 한다.’는 文以載道論을 제창하였으며, 儒家의 道統을 강조하고 《論語筆解》를 저술하는 등 崇儒斥佛의 기치를 높이 세운 유학자다. 한유의 정신을 이은 인물이 李翱(772~841)인데, 《중용》의 사상을 발휘한 《復性書》에서 性, 情, 誠 등을 논하였다.

宋初三先生으로 일컬어지는 胡瑗, 孫復, 石介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도교를 배척하여 理學의 선구로 불리며, 다음 시대 范仲淹, 歐陽修, 李覯, 劉敞, 蘇洵 등은 文以載道の 功利派로 일컬어진다. 이들은 전대의 주석에 얽매이지 말고 경문의 本旨와 義理를 밝히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였으니, 곧 義理發明을 위주로 한 宋學의 정신을 개척한 것이다.

송대 사대부들은 經世致用의 제도개혁을 주창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王安石의 新法이다. 왕안석은 傳注에 구애되지 않고 眞理를 탐구하자는 목적으로 경전을 새롭게 해석하여 三經新義를 저술하였다. 그는 삼경신의 가운데서도 《주례》를 가장 중시하였다. 동시대 司馬光是 道에 의거해 古로써 今을 관통하는 관점으로 경전과 史書를 연구하였다. 蘇洵의 아들 蘇軾과 蘇轍도 家學을 바탕으로 경전해석서를 저술하였다.

司馬光과 동시대에는 北宋五君子로 일컬어지는 周敦頤, 邵雍, 張載, 程顥, 程頤 등이 활동하였다. 주돈이는 <太極圖說>과 《通書》를 지었고, 장재는 《橫渠易說》, <西銘> 등을 지었다. 정호와 정이 형제는 理學을 창도하였다. 정호는 왕안석의 신법에 반대하여 지방관으로 나갔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 정이는 벼슬을 단념하고 학문에 전념하였으며, 천거로 경연관이 되었는데 당쟁으로 인해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뒤로는 저술에 집중하였다.

漢代의 訓詁學은 今文과 古文이 서로 다른 점에 주목하여 訓詁에 치중하면서 감히 자신의 견해를 개진하지 않았다. 그래서 차라리 孔孟의 오류를 지적할지언정 服虔·鄭玄의 설에 대해 잘못을 말하려 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른바 師說과 家法을 중시하는 한대 경학자들의 학문정신이다. 반면 宋代의 義理學은 義理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으로써 傳注에 따라 해석하지 않고 經文에 나아가 의리를 탐구하였다. 그리하여 疑古와 懷疑에 과감하였다.

程頤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중시하였는데, 주희가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여 이 4종의 경서를 四書라 명명하고 《大學章句》, 《中庸章句》, 《論語集註》, 《孟子集註》 등 새로운 해석서를 저술하였다. 이는 孔子-曾子-子思-孟子로 이어지는 道統을 중시한 것이다. 그는 이 외에도 《周易本義》, 《易學啓蒙》, 《詩集傳》, 《儀禮經傳通解》, 《資治通鑑綱目》 등 수많은 저술을 남겨 송학을 집대성한 인물로 일컬어진다.

주희와 동시대 陸九淵은 心學을 제창하여 存心, 養心, 求放心 등을 강조하며 “우주가 바로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바로 우주이다.”라고 하는 唯心論을 내세웠다. 그는 “六經注我 我注六經”이라 하였으며, 주희와 鵝湖寺에서 학술논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육구연의 심학은 명대 王守仁에 이르러 致良知, 心即理, 知行合一을 주장하는 陽明學으로 발전하였다.

### (3) 明初 四書五經大全 刊行

元代에는 주자학이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 明初 과거제도를 회복하면서도 주자학을 위주로 하여, 四書는 朱熹의 章句와 集註를, 《주역》은 程傳과 本義를, 《시경》은 주희의 《시집전》을, 《상서》는 蔡沈의 《書集傳》과 송대 夏僎의 《夏氏尚書詳解》를, 《춘추》에는 좌씨전과 공양전과 곡량전과 胡安國傳 및 송대 張洽의 集註를, 《예기》는 陳澧의 《禮記集說》을 채용하였다.

명 태조의 넷째 아들 朱棣가 조카 建文帝를 제거하고 제3대 황제(永樂帝)로 즉위하였다. 그는 정국을 안정시킨 뒤 2천여 명의 학자를 동원하여 四書大全, 五經大全, 性理大全 등을 편찬해 유교사상을 통일시켰다. 영락제는 1414년 한림원 학사 胡廣, 시강 楊榮과 金幼孜 등에게 조칙을 내려 大全을 편찬하게 하였는데, 1년 뒤인 1415년 七部大全이 만들어졌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冊名   | 卷數 | 採用書籍                                                                    | 비고                       |
|------|----|-------------------------------------------------------------------------|--------------------------|
| 周易大全 | 24 | 元 董楷의 《周易傳義附錄》<br>元 董眞卿의 《周易會通》<br>元 胡一桂의 《周易本義附錄纂疏》<br>元 胡炳文的 《周易本義通釋》 | 모두 程頤의 易傳과 朱熹의 本義를 위주로 함 |
| 書傳大全 | 10 | 宋 蔡沈의 《書集傳》<br>(陳櫟의 《尚書集傳纂疏》와 陳師凱의 《書蔡傳旁通》에서 抄錄)                        | 蔡沈의 《書集傳》을 위주로 함         |
| 詩經大全 | 20 | 元 劉瑾의 《詩傳通釋》을 저본으로<br>가감하면서 그 例를 조금 변경                                  | 朱熹의 《詩集傳》을 위주로 함         |
| 禮記大全 | 30 | 元 陳澧의 《禮記集說》                                                            | 陳澧의 《禮記集說》을 종주로 함        |

| 冊名   | 卷數 | 採用書籍                                                                                                                | 비고                   |
|------|----|---------------------------------------------------------------------------------------------------------------------|----------------------|
| 春秋大全 | 70 | 元 汪克寬의 《春秋纂疏》                                                                                                       | 胡安國의 胡氏傳을 종주로 함      |
| 四書大全 | 36 | 元 倪士毅의 《四書輯釋》                                                                                                       | 倪士毅의 《四書輯釋》을 가감하여 만듦 |
| 性理大全 | 70 | 宋 周敦頤의 <太極圖說>, 《通書》<br>宋 張載의 <西銘>, 《正蒙》<br>宋 邵雍의 《皇極經世書》<br>宋 朱熹의 《易學啓蒙》, 《家禮》<br>宋 蔡元定の 《律呂新書》<br>宋 蔡沈의 《洪範皇極內篇》 등 | 宋儒 120家の 설 採錄        |

이처럼 四書大全과 五經大全은 거의 元代 학자들이 만든 책을 저본으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편찬한 것이다. 즉 원칙을 세워 편찬한 것이 아니고 정주학 계열의 주석서를 택해 약간의 수정을 가해 만든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없다는 혹평을 받는다.

淸初 顧炎武는 “《춘추대전》은 元人 汪克寬의 《胡傳纂疏》를 완전히 답습했는데, 단지 그중에 ‘愚按’ 2자를 ‘汪氏曰’로 고치고 ‘廬陵李氏’ 등 한두 조를 첨가한 것뿐이다. 《시경대전》은 원대 劉瑾의 《詩傳通釋》을 완전히 답습했는데, 그중에 ‘愚按’ 2자를 ‘安成劉氏曰’로 바꾸었을 뿐이다. 나머지 《주역》, 《서경》, 《예기》는 후인들이 모두 舊書를 보지 못했으나 또한 반드시 전인의 책을 인습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다. -중략- 이미 만들어진 책을 취해 한 차례 베껴서 위로는 조정을 기만하고 아래로는 士子를 속였으니, 唐·宋 이래로 이런 일이 있었던가……아, 경학이 폐지된 것은 실로 이로부터 비롯되었다.”<sup>30)</sup>라고 하였다.

紀昀의 《四庫全書總目提要》에는 청대 朱彝尊의 《經義考》의 설을 인용하여 “《주역대전》은 董楷·董眞卿·胡一桂·胡炳文 四家の 책을 割裂하여 주워 모아 만들었고, 《書傳大全》 역시 陳櫟의 《尚書集解纂疏》, 陳師凱의 《書蔡傳旁通》을 표절한 것이며, 《예기대전》은 諸儒의 설 42가를 채용하고 陳澧의 《禮記集說》을 주로 한 것인데, 진호의 책이 學官에 列立된 것은 이 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였다.<sup>31)</sup>

皮錫瑞도 顧炎武와 朱彝尊의 설을 인용하면서 明代에 따른 것은 元人의 遺籍이었기 때문에 천박 고루함이 더욱 심하였다고 하였으며<sup>32)</sup>, 蔣伯潛 역시 고염무, 기윤, 주이준 등의 설을 인용하면서 피석서와 유사한 비평을 가하였다.<sup>33)</sup> 范文瀾도 大全本이 반포된 이후 주

30) 顧炎武, 《日知錄》 권18, <四書五經大全>. “春秋大全則全襲元人汪克寬胡傳纂疏 但改其中愚按二字 爲汪氏曰 及添廬陵李氏等一二條而已 詩經大全則全襲元人劉瑾詩傳通釋 而改其中愚按二字 爲安成劉氏曰 其三經 後人皆不見舊書 亦未必不因前人也 -중략- 而僅取已成之書 抄謄一過 上欺朝廷 下誑士子 唐宋之時 有是事乎 -중략- 嗚呼 經學之廢 實自此始”

31) 皮錫瑞 著, 李鴻鎮 譯, 《중국경학사》, 동화출판공사, 225~227쪽 참조.

32) 同上, 227~228쪽 참조.

회의 주석만을 읽는 학계 분위기를 지적하였고<sup>34)</sup>, 吳雁南 등이 主編한 《中國經學史》에서도 明代의 七部大全是 元人の 著作을 전부 초록한 것으로 조금도 학술적 가치가 없다고 하였다.<sup>35)</sup>

이상에서 십삼경주소의 성립 이전의 경학사적 轉變 및 明初 사서오경대전의 편찬까지 이어진 송·원대의 의리학적 해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경학사 속에서 십삼경주소의 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요약하자면 십삼경주소는 유교경전을 십삼경으로 정립하고 漢·唐代의 훈고학적 注疏를 각 경전별로 精選하여 편찬함으로써 舊注를 없어지지 않게 했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 3. 十三經注疏의 受容과 影響

#### 1) 四書五經大全 유입 이전

한국경학은 삼국시대부터 문헌에 나타난다. 고구려는 嬰陽王 11년(600) 太學博士 李文眞에게 명하여 古史를 정리해 《新集》을 만들었다고 하니<sup>36)</sup>, 태학에 박사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백제는 聖王 때인 541년 南朝 梁나라에 毛詩博士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sup>37)</sup>으로 보아, 이즈음에 《모시》가 전해져 비로소 시경박사를 두었던 듯하다. 신라는 765년 恭讓王이 태학에 거동해 박사에게 《상서》를 강의하게 했으며<sup>38)</sup>, 788년 4월 元聖王이 讀書三品科를 설치하고 五經 등을 교수하였다.<sup>39)</sup> 신라시대 경전공부는 아래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教授法은 《周易》, 《尚書》, 《毛詩》, 《禮記》, 《春秋左氏傳》, 《文選》으로 나누어 학업을 익혔다. 博士와 助教 1명이 혹 《예기》, 《주역》, 《논어》, 《孝經》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혹 《春秋左傳》, 《毛詩》, 《논어》, 《효경》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혹 《상서》, 《논어》, 《효경》, 《문선》으로 가르치기도 하였다. 제생은 독서하여 3품으로 관직에 나아갔는데, 《춘추좌씨전》과 《예기》와 《문선》을 읽고 그 뜻에 능통하고 아울러 《논어》와 《효경》에 밝은 자는 상급으로 삼고, <曲禮>와 《논어》와 《효경》

33) 蔣伯潛 蔣祖怡 著, 崔錫起 姜貞和 譯註, 《유교경전과 경학》, 경인문화사, 395~396쪽 참조.

34) 이종호 편, 《유교경전의 이해》, 288쪽 참조. (范文瀾의 《經學講演錄》 <제4장 명·청의 경학>)

35) 吳雁南 外 主編, 《中國經學史》, 五南圖書出版股份有限公司, 2005, 350쪽 참조.

36) 金富軾, 《三國史記》 권20, <高句麗本紀> 第八, 영양왕 11년 春正月조 참조.

37) 上同, 권26, <百濟本紀> 第四, 聖王 19년조 참조.

38) 上同, 권9, <新羅本紀> 第九, 恭讓王 원년조 참조.

39) 上同, 권10, <新羅本紀> 第十, 元聖王, 4년조 참조.

을 읽고 그 뜻에 능통한 자는 중급으로 삼고, <곡례>와 <효경>을 읽고 그 뜻에 능통한 자는 하급으로 삼았다.<sup>40)</sup>

이를 보면 <주역>, <상서>, <모시>, <예기>, <춘추좌씨전> 등 五經에 <논어>와 <효경>을 더하여 7經이 유교경전으로 읽혔음을 알 수 있다. 또 薛聰(655~?)은 우리말로 九經을 訓讀하면서 후생을 훈도하였다고 하니<sup>41)</sup>, 당시 구경이 필독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구경은 唐 玄宗 때 九經注疏의 구경이 아니라, 오경에 <논어>와 <효경> 및 <주례>와 <의례>가 더해진 구경으로 추정된다.

고려 睿宗 때에는 七齋를 설치하여 교육하였는데, 麗澤齋는 <周易>, 待聘齋는 <尙書>, 經德齋는 <毛詩>, 求仁齋는 <周禮>, 服膺齋는 <戴禮>( <禮記> ), 養正齋는 <春秋>, 講藝齋는 武學을 익히는 곳으로 하였으니<sup>42)</sup>, <周禮>와 <禮記>가 포함된 육경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태학의 교육제도는 仁宗 때 완비되었는데, 國子學과 大學과 四門學이 모두 경학을 위주로 하였다. 학생들은 <논어>와 <효경>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주역>, <상서>, <주례>, <예기>, <모시>, <춘추좌씨전>, <춘추공양전>, <춘추곡량전> 등 8經 중에서 1경을 택해 전공하게 하였다.<sup>43)</sup> 이를 보면 당나라 때의 九經 또는 북송 때의 十二經과는 달리 <논어>와 <효경>을 제일 중시하고, 오경과 함께 <주례>를 중시한 것을 알 수 있다. 文宗과 肅宗 때의 기록에 ‘九經’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나라 후기에 만들어진 九經注疏의 九經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고려사>에는 ‘十三經’이라는 어휘가 등장하지 않으니 남송 때 만들어진 십삼경주소는 고려에 바로 전해지지 않은 듯하다.

南宋이 망하고 元나라가 통일한 시기는 고려 忠烈王 때인 1279년이다. 安珦은 충렬왕을 따라 燕京에 다녀왔는데, 만년에 朱熹의 초상을 걸어놓고 우러러 사모했다고 하니, 연경에서 朱子學을 접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白頤正이 忠宣王을 따라 연경에 가서 程朱學 서적을 구입해 돌아왔다. 李齊賢과 朴忠佐가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배움으로써 정주학이 비로소 고려에 전해지게 되었다.<sup>44)</sup> 이제현은 충선왕을 따라 연경에 가서 석학들과

40) 上同, 권38, <雜志第七-職官上>. “教授之法 以周易尙書毛詩禮記春秋左氏傳文選 分而爲之業 博士若助教一人 或以禮記周易論語孝經 或以春秋左傳毛詩論語孝經 或以尙書論語孝經文選 教授之 諸生 讀書以三品出身 讀春秋左氏傳若禮記若文選而能通其義 兼明論語孝經者爲上 讀曲禮論語孝經者爲中 讀曲禮孝經者爲下”

41) 上同, 권46, <列傳> 第六, 薛聰 조. “以方言讀九經 訓導後生”

42) 金宗瑞 등, <高麗史> 권74, <志-選舉二-學校>. “<睿宗>四年七月 國學置七齋 周易曰麗澤 尙書曰待聘 毛詩曰經德 周禮曰求仁 戴禮曰服膺 春秋曰養正 武學曰講藝”

43) 上同. “凡經 周易尙書周禮禮記毛詩春秋左氏傳公羊傳穀梁傳 各爲一經 孝經論語 必令兼通 諸學生課業 孝經論語 共限一年 尙書公羊穀梁傳 各限二年半 周易毛詩周禮儀禮 各二年 禮記左傳 各三年”

44) 金宗瑞 등, <高麗史> 권106, <列傳-白頤正>. “時程朱之學, 始行中國, 未及東方, 頤正在元, 得而學

교유하며 정주학을 섭렵하고 돌아와 彫蟲篆刻之徒를 배제하고 經明行修之士를 양성하자는 문교정책을 건의하였다.

李齊賢이 전한 程朱學은 李穀을 통해 그의 아들 李穡에게 전해졌다. 이색은 공민왕 때 성균관 대사성으로 문교정책을 담당하며 인재를 양성하였는데, 그의 문하에서 金九容, 鄭夢周, 鄭道傳, 朴尙衷, 朴宜中, 李崇仁, 權近, 河崙, 吉再 등 여말선초의 명유들이 배출되었다.

이 가운데 權近은 우리나라에서 경학연구 성과를 최초로 낸 인물로 경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는 《주역》, 《시경》, 《서경》, 《예기》, 《춘추》에 대해 자신의 견해로 해석한 《五經淺見錄》과 《대학》, 《중용》, 성리설 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入學圖說》을 저술했는데, 모두 說經論學하는 經說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입학도설》에 실린 《대학》과 《중용》에 대한 설을 보면, 남송 말부터 원대로 이어지는 주자학과 내부의 학설을 소화한 바탕 위에 자신의 독자적인 설을 개진하고 있어 주목된다.<sup>45)</sup> 권근은 五經 중심으로 경전을 해석하고 있어 후대처럼 사서삼경 체제로 경학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

## 2) 四書五經大全 유입 이후

四書大全과 五經大全은 세종 1년(1419) 조선에 유입되어<sup>46)</sup> 각 도에서 관찰사가 간행해 올렸다. 이 책이 교과서가 되어 5백 년 동안 불변의 권위를 누리며 통행되었다. 이 가운데 《춘추대전》은 胡安國의 《春秋胡氏傳》을 위주로 한 것으로 널리 읽히지 못하고 《춘추좌씨전》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예기대전》도 朱熹가 《의례》를 禮經으로 보아 《예기》와 합해 《儀禮經傳通解》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16세기에 이르러서는 四書三經 체제로 정착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주희가 저술한 《小學》과 四書集註 등을 통해 新儒學을 익히는 시기로, 독서의 범위가 四書大全, 五經大全 및 《性理大全》, 《小學》, 《近思錄》, 《心經》, 《朱子語類》, 《朱子全書》, 《春秋左氏傳》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15세기 후반부터 《소학》이 중시되고, 16세기에 이르러 《大學》이 학문의 근본으로 중시되면서 四書 중심의 주자학적 경학체제가 정착되었다. 그리하여 十三經注疏는 禮를 논할 때 가끔 인용할 뿐 세인의 이목을 끌지 못하였다.

그러다 17세기에 이르러 古本の <大學>을 저본으로 독자적인 해석을 시도한 사람들이

之, 東還, 李齊賢朴忠佐, 首先師受”

45) 최석기, 《한국경학의 연구 시각》, 보고서, 2020, 139~142쪽 참조.

46) 實錄廳, 《世宗實錄》 권1, 세종 1년 12월 7일(정축)조.

십삼경주소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고, 禮學을 연구한 몇몇 학자들이 十三經注疏를 참조했다. 또 禮訟論爭이 일어나면서 근기남인계의 許穆, 尹鑄 등이 《禮記正義》, 《儀禮注疏》 등 古經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어 비로소 십삼경주소에 관심이 증폭되었다. 그러나 《예기정의》, 《의례주소》 등 禮學에 집중되고 十三經 전체로 관심을 돌리지는 못하였다.

17세기 말 西人이 崇正學·闢異端의 기치를 높이 세워 주자학으로의 획일화를 피하자, 근기남인계와 소론계 학자들이 십삼경주소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소론계의 崔錫鼎(1646~1715)과 근기남인계의 李瀾(1681~1763)이다. 최석정은 崔鳴吉의 손자로 朴世采를 중용하였다. 그는 예학을 연구하여 18권 5책의 《禮記類編》을 편찬하였는데, 원문의 章句가 혼돈을 주거나 일탈된 것을 세밀하게 바로잡아 놓았으며, 여러 단락으로 나누어진 것을 한데 모아 한 장으로 편찬한 것이 특징이다.<sup>47)</sup> 또 先儒의 해석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견해로 개정하거나 산삭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노론계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709년(숙종 35) 2월 성균관 齋任 李秉鼎 등이 《예기유편》의 문제점을 논박하였는데, 그 요지는 주희의 集註와 章句가 천하의 常經인데 선현을 깔보고 멋대로 뜯어고쳐 尹鑄와 朴世堂의 뒤를 이었다는 것이다.<sup>48)</sup> 이후 1년여 동안 최석정을 탄핵하며 죄를 주자고 청하는 상소가 빗발쳤다. 최석정의 《예기유편》 중 <대학>·<중용>을 해석한 부분을 보면, <대학>의 경우 주희가 전 제4장(本末章)으로 본 것을 없애 전 제3장에 붙인 것, <중용>의 경우 分節과 요지파악이 주희의 설과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최석정은 1709년 6월 3일 변론하는 冊子를 올렸고<sup>49)</sup>, 숙종은 최석정을 벌하지 않았다. 이 기사 뒤에 붙은 史論을 보면 노론계가 주자학으로의 획일화를 피하던 정황을 알 수 있다.

최석정은 남보다 매우 총명하여 일찍이 道問學에 專心하지 않았지만 十三經에 매우 해박하고 諸子百家에 널리 통하여 자못 俗儒들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더욱 禮學에 공력을 들여 편집한 禮書가 分類하여 뽑아놓은 것에 가깝기는 하지만, 차례가 정돈되어 禮家에 큰 도움이 있다. 혹 章句를 나누거나 옮기기도 했지만, 모두 선유들의 緒論을 따른 것으로 애초 경솔한 생각으로 杜撰한 것은 아니다. -중략- 단지 최석정이 士流의 영수가 되어 바야흐로 신임을 받아 등용되니, 黨人들이 기필코 이를 빌미로 모함하여 奇貨를 얻은 듯이 서로 疏章을 올려 주자를 호위하는 것으로 自處하면서 곧장 異端으로

47)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예기유편> 참조.

48) 實錄廳, 《肅宗實錄》 권47, 숙종 35년 2월 16일(무오)조 참조.

49) 實錄廳, 《肅宗實錄》 권47, 숙종 35년 6월 3일(임인)조 참조.

공격하기를 마치 洪水나 猛獸의 화가 급박한 것처럼 하고 있다. 식자가 보기에는 先聖을 핑계로 黨同伐異하는 것으로 비쳐질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그 불경스러움이 더욱 크다. 무릇 학자가 자신의 작은 지혜를 믿고 선유를 업신여기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지만, 의문을 筭記하는 것은 실로 묻고 배우는 데 유익함이 있으니 선현들도 일찍이 금하지 않았던 것이다.<sup>50)</sup>

이 사론을 보면 18세기 초 노론과 소론이 분열되는 시점에서 당파적 시각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李瀼이 “서인의 학문은 오로지 ‘謹守規矩’ 네 글자를 세상을 경영하는 데 병폐가 없는 斷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식이 끝내 매우 노망하다.”<sup>51)</sup>고 하면서 주희의 설만을 맹목적으로 존송하는 학풍을 비판한 것처럼, 오로지 黨論에 따라 사소한 흠이라도 찾아내 상대방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드러나 있다. 위 인용문 가운데 ‘최석정이 십삼경에 매우 해박하였다.’는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그가 사서오경대전의 新註는 물론 십삼경주소의 舊註를 참고하여 예학을 연구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李瀼은 箋註는 路脈을 인도해주는 것에 불과할 뿐 그 경지에 도달해 마음으로 통하는 것은 오로지 독자에게 달려있다고 하였다.<sup>52)</sup> 그리고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은 나중에 그 길을 찾아갈 수 없지만, 묻고 물어서 어렵사리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은 그 길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비유를 하면서, 訓詁를 삼가 지키기만 하는 것은 마음으로 自得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sup>53)</sup> 이익은 선현의 주석을 따라 그대로 해석하기만 하는 독서가 아니라, 經文의 本旨를 스스로 자득하는 것을 중시하였고, 의리발명을 위해 懷疑를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舊說 가운데 따를 것은 따르는 不苟新, 구설과 다른 견해가 있을 경우 구설을 고치는 不苟留, 사소한 장점이라도 버리지 않고 취하는 不苟棄의 태도를 취하였다.<sup>54)</sup>

李瀼은 사서삼경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해석을 시도하였는데, 필자가 그의 《詩經疾書》

50) 實錄廳, 《肅宗實錄-補闕正誤》 권47, 숙종 35년 6월 3일(임인)조. “錫鼎聰明絶人 雖未嘗專意於問學而博極十三經 傍及諸子 殆非俗儒所及 尤用力於禮學 所編禮書 雖近類抄 而撰次整齊 大有補於禮家 雖或分移章句 而亦皆遵依先儒緒論 初非率意杜撰 其於朱夫子 亦極致隆歸重 未嘗有一言礙逼 則顧安有吳楚僭王之嫌 而惟其筵奏一着 終涉率易 若以此咎其僭越 則夫誰曰不可 而只以錫鼎爲士流領袖 方彼嚮用 黨人必欲藉此擠之 如得奇貨 章交公車 自處以衛護朱子 而直以異端 攻錫鼎 眞若有洪水猛獸之禍 殊不知自識者觀之 憑藉先聖 以濟黨伐 其不敬尤大矣 夫學者之挾其小智 凌駕先儒 固爲不韙 而至於筭記疑難 實有益於問學 亦先賢之所未嘗禁”

51) 安鼎福, 《順菴集》 권16, 잡저, <函丈錄>. “西人學問 專以謹守規矩四字 爲涉世無病敗之斷案 故知識終甚鹵莽”

52) 李瀼, 《星湖僊說》 권27, 經史門, <窮經>. “箋註者 不過導而指示其路脈 及足到心通 則在讀者矣”

53) 李瀼, 《星湖先生文集》 권32, 序, <論語疾書序>. “比如 人趨百里之程 其一人 則需以車騎 導以僊騶 一日便到 其一人 探探旁蹊 艱難而始達 後使之更趨焉 則其探探者 認得分明 不比導行者之或迷於歧衢也 以此知謹守訓詁之非心得者也”

54) 崔錫起, 《한국경학의 연구 시각》, 보고사, 2020, 387~389쪽 참조.

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주희의 《詩集傳》을 따르지 않고 十三經注疏의 舊注를 따른 것이 過半이나 된다.<sup>55)</sup> 이익의 《星湖僊說》과 《星湖全集》에는 십삼경주소의 설을 인용한 것이 약 90여 곳 보이니, 이는 大全本의 주석만을 보지 않고 舊注를 함께 보았음을 말해준다. 요컨대 조선후기 주자학으로 경도된 시기에 본지탐구에 목표를 두고 의리를 밝명하려 했던 이익에 이르러 사서삼경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舊注와 新註를 모두 참고하면서 독자적인 해석이 나타난 것이니, 이는 조선경학사에서 한 획을 긋는 주목할 만한 분기점이라 하겠다.

이후 청대 考證學이 유입되어 正祖, 洪奭周, 成海應, 丁若鏞, 金正喜 등이 漢宋不分을 외치면서 舊注를 아울러 채용하였다. 正祖(1752~1800)는 抄啓文臣 등에게 직접 책문을 내어 시험하였는데, 그 가운데 1790년 十三經 전반에 대해 질문한 것<sup>56)</sup>이 있다. 그리고 그 책문에 抄啓文臣 丁若鏞(1762~1836)이 답변한 對策<sup>57)</sup>이 있어 당시 십삼경주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정조가 십삼경에 대해 질문한 것은 수십 가지로 다 거론하기 어렵다. 그 중에 십삼경 전체에 대해 질문한 것과 그에 대한 정약용의 답변을 한두 가지 간추려 살펴보기로 한다.

▶ 정조 질문 : 도서목록의 總經類에 十三經이 첫 머리에 있으니, 이는 도덕의 풀무이며 文藝의 淵海이다. 그 傳授된 源流와 箋註의 得失을 모두 상세히 말할 수 있겠는가?

▶ 정약용 답변 : 신은 삼가 생각하건대, 경전을 해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傳聞이고, 둘째는 師承이고, 셋째는 意解입니다. 자기의 意思로 해석하는 것은 천백 년 뒤에 출생하였더라도 천백 년 앞 시대로 뛰어올라 의거할 수 있으니, 주자가 《대학》에 대해 곧장 단정하여 “經一章은 孔子의 말씀이고, 傳十章은 曾子의 의도이다.”라고 한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는 절대로 傳聞이나 師承의 옛날 해석에 의지한 것이 아니고, 엄숙히 자기의 의사로 결정한 것이니, 참으로 時世의 古今에 관계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과 사승은 옛날에 가까운 것으로 으뜸을 삼지 않을 수 없으니, 어째서일까요? 風謠와 習俗이 서로 근사한 것은 민간인의 마을에서 얻은 것일지라도 오히려 상고할 만한 점이 있기 때문이며, 사제지간에 전해주고 받으며 강마한 친절한 가르침은 일상의 담화나 우스갯소리를 기록한 것이라도 오히려 증거할 만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아! 오늘날의 학자들은 七書大畧이 있는 줄만 알고, 十三經注疏가 있는 줄은 모릅니다. 《춘추》와 三禮의 천지에 빛나는 글일지라도 七書의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니, 그 글을 폐기하여 강론하지 않으며, 도외시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斯文의 큰 걱정거리며 世敎의 급무입니다. -중략- 신은 삼가 생각하건대, 십삼경은 모든 서책 중에 으뜸입니다. -중략- 그러므로 道統을 전수하여 洙泗의 참된 근원에 접속한 이도 반드시 이 十三經에 歸依하였고, 箋釋을 좌우에 두고서 學海의 要路를 건넌 이도 반드시 이

55) 崔錫起, 《星湖 李瀼의 학문정신과 시경학》, 중문출판사, 1994, 210~211쪽 참조.

56) 正祖, 《弘齋全書》 권50, 策問三, <十三經>-抄啓文臣課試-.

57) 丁若鏞, 《與猶堂全書》 《제1집시문집》 권8, 對策, <十三經策>.

십삼경에서 힘을 썼습니다. 십삼경은 참으로 德性の 풀무이며, 藝術의 府庫가 됩니다.<sup>58)</sup>

正祖의 질문은 ‘십삼경이 傳授된 源流와 箋註의 得失을 논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丁若鏞이 답변한 내용을 정리하면, ①傳聞과 師承과 意解의 세 가지 해석방법 및 주희의 해석태도, ②七書大全만 읽고 십삼경주소는 모르는 당대 학풍 및 십삼경의 가치와 의의이다. 정약용은 십삼경이 모든 서책의 으뜸이라고 하면서, 道統을 傳受하여 洙泗學의 근원에 접속한 도학자와 전인의 箋釋을 참고하여 학문의 길을 찾은 경학가들이 모두 십삼경을 통해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십삼경은 ‘德性の 풀무이고 藝術의 府庫’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는 사서대전과 오경대전만을 읽고 학습한 조선성리학자들과는 상당히 다른 시각으로, 십삼경주소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한 것이다.

丁若鏞은 이 글에서 십삼경의 전수내력을 언급한 뒤, 그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이 삼가 생각건대, 十三經의 全體와 大用은 깊고 빛나 천지에 참여하고 우주에까지 뻗었습니다. 그 문체는 별처럼 반짝거리고 태양처럼 찬란하며, 그 富裕함은 땅처럼 두텁고 바다처럼 넓어 정미한 뜻이 神의 경지에 들고 신묘하게 합한 의리가 道가 되었으니, 참으로 章句나 記誦하는 유자들이 그 한 쪽 면도 엿볼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秦나라 때 불타고 漢나라 때 일실되었으나 남은 簡編이 없어지지 않아 齊나라에서 읊조리고 魯나라에서 암송하여 남은 향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참으로 道를 품고 經을 궁구하는 학자들이 시대마다 나왔던 것입니다. 그중에 혹 순금 속에 쇠가 있고 쌀 속에 쪽정이가 있듯이 불순한 것이 있기도 하지만 그 공로가 허물을 덮을 수 있으니, 이는 군자들이 용서해야 할 일입니다.<sup>59)</sup>

조선시대 학자 중에 정약용처럼 십삼경의 중요성을 언급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는 송대 정주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이전의 십삼경주소에 대해 경학사적 의미를 매우 높게 인식하였다. 정약용은 사서오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六經四書라고 하였는데, 이는 육경을 유교경전의 源流로 인식한 것이다. 이런 인식은 조선경학이 사서삼경대전

58) 丁若鏞, 《與猶堂全書》 《제1집시문집》 권8, 對策, <十三經策>. “臣竊伏念 釋經之法有三 一曰傳聞 二曰師承 三曰意解 意解者 雖生於千百歲之下 而有能超據乎千百歲之上 如朱子之於大學 直斷之曰經一章孔子之言 而傳十章曾子之意 是截然不資乎傳聞師承之舊 而儼然以己意決之者 是固無與於時世之古今 而若夫傳聞與師承者 不得不以近古爲宗何者 風謠俗習之相近 雖得於街巷鄙俚之間 猶之有稽也 授受講劇之親切 雖記其游談警歎之末 猶之有徵也 -중략- 嗟乎 今之學者 徒知有七書大全 不知有十三經注疏 雖以春秋三禮之照耀天地 而不列乎七書之目 則廢之而不講 外之而不內 此誠斯文之大患 世教之急務也 -중략- 臣伏念經有十三 冠冕羣書 -중략- 是故傳道授統 接洙泗之眞源者 必於是歸依 左箋右釋 濟學海之津梁者 必於是用力 信爲德性之爐鞴 藝術之府庫也”

59) 上同. “臣竊伏惟 十三經之全體大用 淵灝輝赫 參之天地 亘諸宇宙 其文則星輝日燦 其富則地負海涵 精義入神 妙契爲道 信非記誦之儒 所得以窺其涯涘者也 火秦逸漢而爛簡不泯 絃齊誦魯而遺芬尙傳 誠以抱道窮經者 代有其人也 其或有金中之鐵 米中之糠者 功可掩過 而君子恕之”

위주로 진행되면서 正宗에 해당하는 육경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결국 정약용이 십삼경을 중시한 것은 사서 위주의 조선경학에 대해 반성하면서 육경의 정신을 회복하고자 한 것이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기 중앙 학계의 몇몇 학자들이 漢學의 訓詁와 宋學의 義理를 아울러 취하여 해석하고자 하였는데, 그중에 《五洲衍文長箋散稿》를 저술한 李圭景(1788~?)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天地, 人事, 經史, 萬物, 詩文에 대해 역대의 여러 설을 수집해 변증설을 지었는데, 經史篇 <經典總說>에 <十三經注疏及諸家經解五經四書大全辨證說>이 있다. 이 글에는 十三經注疏 및 四書五經大全에 대해 역대의 설을 변증해 놓았는데, 특히 십삼경주소에 대한 인식이 돋보인다.

이규경은 십삼경의 전수내력을 각 경전별로 언급하면서 諸家の 해석을 간추려 諸家經解, 補遺諸家經解, 續補, 東國諸家經解, 古文, 擬書, 緯書 등을 기록해 놓았다. 이는 한 마디로 十三經에 대한 개론이다. 이 뒤에 <總考>가 있는데, 구경 또는 十二經의 글자 수에 대해 기록해 놓은 글이다. 그리고 그 뒤의 <經傳總說>에서는 명나라 때 판각한 판본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십삼경 등에 脫誤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고<sup>60)</sup>, 명나라 永樂帝 때 만든 사서오경대전본이 송·원대 학자들이 만든 책을 거의 답습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 글 뒤에 <經傳總論>이 실려 있는데, 그중에는 朱彝尊의 <跋大戴禮記>를 인용하여 《대대례기》를 포함해 十四經으로 보는 설<sup>61)</sup>을 언급하였다.

또 邵長蘅이 “《맹자》는 諸子에 들어 있었고, 《대학》과 《중용》은 《戴記》 속에 있던 것을 宋儒들이 비로소 존송했는데 《대학》과 《중용》은 지금까지 오히려 《예기주소》 속에 묻혀 있으며 별도로 뽑아내어 經으로 삼지 않고 있다. 그러니 한 차례 수정하여 春秋三傳은 물리쳐 傳으로 돌리고, 《대학》과 《중용》을 十三經의 숫자에 채우는 것이 옳을 것이다.”<sup>62)</sup>라는 말을 인용하고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내가 상고하건대, 이 논리가 매우 타당하다. 《춘추》는 이미 三傳을 합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胡安國傳》까지 합쳐 春秋四傳이라 하면서 《중용》과 《대학》은 《논어》와 《맹자》에 합쳐 四書라 칭하는 것은 經을 존송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다. 또 十三經이란 명칭은 본래 성인이 정한 것이 아니고 명나라 때 十三經이라 하였으니, 三傳

60)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 經典總說, <十三經注疏及諸家經解五經四書大全辨證說-經傳總說>. “皇明南北國子監 俱有板刻 萬曆中 北監又刻十三經二十一史 其板視南稍工 而士夫遂家有其書 我東亦稍稍購來 今則藏書家 無不收集 考其板刻 校勘不精 訛舛彌甚 且有不知而妄改者 如十三經中儀禮脫誤尤多 -중략- 此則秦火之所未亡 而亡於監刻矣 且注疏中引書之誤 凡十九條”

61) 上同. “朱彝尊跋大戴禮記曰 -전략- 然由其說推之 則大戴記在宋日曾列之于經 故有十四經目 此亦學者所當知也”

62) 上同. “邵長蘅曰 -전략- 孟子 雜諸子中 大學中庸 雜戴記內 宋儒始知尊之 而大學中庸 至今猶汨沒禮記注疏 未嘗別出之爲經 似宜一加釐正 斥三傳從傳 而卽庸學備十三經之數 可乎”

을 강등시켜 傳註로 만들고, 《중용》과 《대학》을 높여 經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겠는가. 이는 바로 正名의 大義인 것이다.<sup>63)</sup>

蔣伯潛은 經과 傳과 記로 재분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규경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기실 조선시대에는 《대학》과 《중용》이 그 어떤 경전보다 중시되었고, 《소학》 역시 경전의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조선경학을 논할 적에는 종래의 十三經 또는 四書五經에 구애되지 말고 새롭게 분류할 필요가 있다.

李圭景은 五經大全과 四書大全이 나오고 十三經注疏가 폐지되자 古經이 없어졌다고 하여<sup>64)</sup>, 사서오경대전본이 통행된 이후의 학풍변화와 사서오경대전본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또 “나는 鄭康成은 漢儒의 주석을 집대성한 분이고, 朱夫子는 宋儒의 주석을 집대성한 분으로 후대 유자들의 표준과 모범이 되어 감히 異議할 수 없는 분은 이 두 선생뿐이라 생각한다. 注疏의 오류와 集註의 하자를 가지고 잘못이라 지적하여 全書를 폐하려 하는 자는 大義와 本領을 모두 알지 못하는 자이니, 어찌 말하겠는가.”<sup>65)</sup>라고 하여, 鄭玄과 朱熹를 경전주석을 집대성한 학자로 동등하게 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규경은 “우리나라에는 십삼경이 있는 줄 아는 사람도 드물다. 간혹 이를 아는 자가 있더라도 명목만을 취하여 수집해 소장하나 높은 시령에 묶어 두어 쥐와 종이 값아 먹을 따름이니,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sup>66)</sup>라고 하여, 주희의 주석밖에 모르는 당시의 학문폐단을 지적하였다.

## 4. 十三經注疏의 完譯과 向方

### 1) 번역의 현황과 계획

전통문화연구회에서는 동양고전역주사업으로 ‘十三經注疏 譯註 특별계획’을 마련하여 2011년부터 2039년까지 13종 117책으로 십삼경주소를 완역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조선 5백 년 동안 사서오경대전본만을 유교경전으로 알고 교과서로 삼아

63) 上同. “景按此論極是 春秋則已有三傳之合 我東合胡安國傳 名以四傳春秋 而庸學則並語孟稱四書者 有乖尊經之義 且十三經之名 初非聖人之所定者 皇明時 揭爲十三經云 則降三傳爲傳注 陸庸學爲正經 何所不可 此卽正名之大義也夫”

64) 上同. “五經四書大全出 而十三經注疏廢 古經亡矣”

65) 上同. “愚謹以爲 鄭康成 漢儒之集大成也 朱夫子 宋儒之集大成也 後儒之準의 模楷 不敢異議者 惟此二先生也 以注疏之訛謬集注之瑕類爲非 而欲廢全書者 竝不知大義本領者也 何足道哉”

66) 上同. “我東則能知有十三經者 亦幾希矣 不然則只取名目 收藏而束庋高閣 爲蠹鼠所侵蝕而已 可不惜哉”

읽어온 오래된 사회적 관습으로 볼 때, 이는 매우 획기적인 기획이 아닐 수 없다.

이 역주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 필요성으로, ①세계 최초의 십삼경주소 완역, ②宋代新註 연구에서 古注와의 비교 연구, ③한자문화권에서 동양학연구를 선도하여 문화적三國鼎立, ④원로학자 생존 시 난해고전인 십삼경주소의 초기 번역의 필요, ⑤십삼경주소 역주의 정보화를 통한 국학 및 동양학 연구의 초석 마련, ⑥우리고전 연구 및 번역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토대 마련, ⑦우리 선현들의 경학전통을 복원함으로써 우리의 학맥과 학풍을 이해하고 진작시킴 등을 거론하였다.

이 가운데 ①, ②, ③, ⑤, ⑥은 대단히 의미 있고 야심한 기획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다만 ④와 ⑦은 조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극소수의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십삼경주소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선현들의 경학전통을 복원한다.’는 말은 실정에 맞지 않으며, 현존하는 한학자들은 대부분 십삼경주소를 접하지 못하고 또 전문연구자도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들에게 기대할 수는 없다.

또 ①십삼경주소의 古注, 송대의 新注, 명청대 고증학의 성과, 현재까지 한·중·일의 연구 성과 반영, ②우리 선현들의 연구 성과 반영으로 한국학 연구의 자생력과 효율성 제고, ③원로한학자와 전공자로 구성된 협동연구번역팀 구성, ④원로한학자들이 원전에懸吐하여 우리의 한문독법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협동연구번역을 통해 현대성을 구현, ⑤난해고전인 십삼경주소의 연구번역을 위해 조사기획, 원고 집필(1년차), 교열·윤문·교정·출판(2년차), 정보화 및 평가(3년차)를 분리하여 진행, ⑥교감·교열·교정의 과정으로 번역의 신뢰성 확보, ⑦국고보조금 중복지급 방지와 번역료 조정 등 국고의 남용 방지, ⑧동양고전종합DB 구축 및 서비스, ⑨국역 평가 및 도서 배포 등 사업관리 평가 등 아홉 가지 추진 방침을 마련해 추진하였다.

그리고 추진 전략은 차별화 전략(협동연구번역)과 사업추진 전략(관리 및 운영)으로 나누어 추진하였는데, 추진방침 가운데 ①~⑤는 협동연구번역이라는 차별화 전략에 해당되고, 6과 8과 9는 관리 및 운영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전략에 해당한다.

이러한 추진 방침과 추진 전략에 기초하여 2012년부터 사업을 수행하여 지금까지 《論語注疏》 3책, 《孝經注疏》 1책, 《周易正義》 4책, 《尙書正義》 7책이 완역되어 간행되었다. 그리고 《毛詩正義》 2책, 《禮記正義》(<대학>·<중용>) 1책이 역주 간행되었으며, 2020년 《모시정의》 1책과 《周禮注疏》 1책이 역주 간행될 예정이다.

향후의 역주 간행 계획은 2024년까지 《맹자주소》 전 5책, 2034년까지 《주례주소》 전 15책, 2035년까지 《모시정의》 전 15책, 2036년까지 《의례주소》 전 12책, 2038년까지 《춘추좌전정의》 전 18책, 2039년까지 《예기정의》 전 20책, 《춘추공양전주소》 전 7책, 《춘추곡량전주소》 전 4책이 완역되어 간행될 계획이다. 《爾雅注疏》는 2004년 이충구, 임재완, 김병현, 성당제 등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 6책으로 완

역했기 때문에 별도로 번역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 2) 번역의 문제점과 향방

선행연구에서 십삼경주소 譯註를 위한 주의점으로, ①注疏 體例의 변별, ②漢學의 家法 확인과 疏不駁注 태도의 이해, ③음운론과 문자학 등 소학의 방법 활용, ④注疏와 新注의 비교를 거론했는데<sup>67)</sup>, 이는 모두 유의미한 제안이다. 그러나 십삼경주소를 역주하는 분들이 이를 다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이유는 십삼경주소에 대한 경학적 전통이 단절되었고, 원로한학자들은 사서오경대전의 신주에 따라 경전을 읽은 분들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도 정조, 정약용, 이규경 등 소수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십삼경주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정약용이 가졌던 문제의식마저도 단절되었다. 또 오늘날의 원로한학자들은 일제강점기 주자학적 전통만을 고수하던 한학자들에게 한문을 배우며 현대학문을 접하지 못한 분들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점을 모두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런 점을 반영하여 십삼경주소를 번역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협동연구번역을 하는 것이다. 이는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인정하면서 하나로 집성하여 품질이 높은 번역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 협동연구번역에는 완성된 번역물을 출판하고 DB화하는 일을 제외하더라도 네 분야의 협업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번역문을 작성하고 주석을 다는 일을 하는 전문번역자이다. 이 전문번역자는 기왕에 한문고전을 번역하고 있는 중견 번역자가 담당하는 것이 좋다. 이 전문번역자는 한문고전을 수학하고 검증할 만한 번역 실적물이 있어야 한다. 전문번역자는 懸吐하고 번역하고 주석하고 교감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담당한다.

두 번째는 한문문리가 뛰어나고 다년간 한문고전번역에 종사한 원로학자(漢學者)이다. 해당 자료를 강독을 할 때 난해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도록 지도하며, 懸吐를 검토하고 원문 및 번역문을 교열하며, 전문번역자 또는 윤문교정자의 자문에 응한다.

세 번째는 각 경전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전문연구자이다. 십삼경의 각 경전에 대한 전문연구자가 한국에 다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신진연구자라도 발굴하여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연구자는 해당 경전에 대한 성립과정, 전수 내력, 연구 현황, 역대의 문제점, 번역에 유의할 점 등을 파악하여 학술적인 측면에서 번역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미나, 해제, 조언 등을 담당한다.

네 번째는 가독성을 높이도록 윤문하고 교정하는 윤문교정자이다. 이 분야는 현대국어의 맞춤법을 정확히 알고 한문문장의 구조에도 충분한 상식이 있으며 문장의 논리적 구

67) 심경호, <十三經注疏 번역의 필요성과 방법-부:전통문화연구회의 사례 검토>, 《고전번역연구》 제 9집, 한국고전번역학회, 2018, 163~173쪽 참조.

조를 치밀하게 읽어내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번역은 한 순간 판단을 잘못하면 실수하기 십상이다. 또 번역자는 고정된 시각과 습관이 있기 때문에 상투적인 번역문을 작성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고정된 표현을 문세에 맞게 적절히 교정해야 가독성이 높은 번역문을 만들 수 있다. 모든 공정에 최고의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운문교정자의 역할은 그 누구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협동연구번역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에서 이런 협동연구번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한문고전번역은 전문번역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동번역 또는 강독번역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전통문화연구회의 십삼경주소 번역은 번역 경험이 많은 원로한학자가 중심이 되고, 한문고전을 수학한 젊은 전문번역자로 구성되어 있다. 번역회의를 통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겠지만, 번역상의 문제점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협동연구번역회의(가칭)라 할 수 있다. 이 협동연구번역회의는 ①경학사적 演變 및 번역 저본에 대한 이해를 위한 학술세미나, ②원문 강독회, ③검토자문화 등으로 구성하며,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문고전 번역은 아무리 한문문리가 뛰어나고 해당 경전에 대한 이해가 깊더라도 한 순간 생각을 잘못하면 오역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오역을 줄이는 방법은 전문번역자, 원로학자, 전문연구자, 운문교정자가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강독을 하고 토론을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공정을 소홀히 하고 어떤 특정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위해 협동연구번역회의의 규정과 메뉴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번역을 하는 경우, 예산과 결산을 1년 단위로 하여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여러 절차를 거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통문화연구회에서는 1년차에 원고를 집필하고, 2년차에 교열·운문·교정·출판을 하고, 3년차에 정보화 및 평가를 하는 것으로 분리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 별도로 이루어져 상호 유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소통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1년차와 2년차의 이견을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

현재 전통문화연구회의 동양고전역주사업의 번역평가는 공신력이 있는 전문기관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인다.

십삼경주소 역주사업은 이미 번역이 완료되어 출간된 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번역의 문제점과 향방을 논의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20년 가까운

여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래 몇 가지 사안을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번역문의 작성 수준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십삼경주소의 번역은 기본적으로 일반대중 독자를 위한 번역이 아니고, 학술적 용도로 번역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독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한문문장구조를 무너뜨리는 윤색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할 경우 오히려 원문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여 고문에 약한 현대 지식인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부사나 형용사 등은 문세에 맞도록 적절하게 윤문하는 것이 좋지만, 고문의 기본적인 문장구조인 주어+서술어+목적어(보어)의 틀은 가급적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서술어를 살리지 않고 의역하여 原意를 잃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종종 보인다.

둘째, 漢代의 注와 唐代의 疏를 충분히 이해한 바탕 위에서 번역해야 한다. 지금 이 책을 번역하는 전문번역자 또는 원로한학자들은 대부분 송·원대의 新註인 사서오경대전을 읽으며 한문을 익힌 사람들이다. 따라서 新註의 해석에 익숙하여 자신도 모르게 신주에 의거해 해석하기가 쉽다. 그러므로 舊注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한 뒤에 번역에 임해야 한다. 이점이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셋째, 字義 파악과 音韻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좋은 번역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익히 아는 글자도 字義를 살피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문장의 논리에 조금이라도 어색하면 오역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해야 한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문자학이나 음운학에 취약하여 주석을 따라 글자나 어휘를 익힐 뿐, 글자 자체의 形·音·義에 대해 깊이 궁리한 적이 별로 없다. 이른바 文理가 나면 모든 한문을 다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천 년 동안 서로 다른 생각을 표현한 글을 오늘날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경전을 해석할 적에 강조하던 독서법이 本旨를 탐구하고 義理를 발명하는 것이다. 대체로 경험이 많은 번역자들은 글자나 어휘를 관습적으로 동일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쓰일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넷째, 사서오경대전의 新註와 의미가 相異한 경우는 주석으로 밝혀주면 학술적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이 점은 이미 출간된 번역서를 보면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어떤 경우는 譯者註에 이점을 다수 밝혀 놓았지만, 어떤 경우는 아주 드물게 보이거나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 한 마디로 번역자에 따라 편차가 크다.

참고로 李瀾과 丁若鏞 등 우리나라 주석가의 설을 譯者註로 제시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컨대 예전에 《논어집주》를 번역하면서 정약용의 주와 상호 비교하거나, 조선시대 특정 한두 경학가의 설을 제시한 경우가 있다. 이는 전문연구자가 연구할 때 필요한 것이다. 번역자가 후대 여러 학자들의 설을 모두 모아 제시할 수는 없으니, 특정한 인물의 주석만을 대비하는 것은 경문의 이해에도 고정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다섯째,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번역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번역의 문제점을 한두 가지 지적해 보기로 한다. 사서를 읽을 적에 틀리기 쉬운 문구가 《논어》 <學而> 제1장 ‘學而時習之’와 《중용》 첫 문장의 ‘修道之謂教’와 《대학》 팔조목의 ‘誠意’이다. 오늘날에도 ‘時習’은 ‘때때로 익히다’ 또는 ‘때로 익히다’로, ‘修道’는 ‘도를 닦는 것’으로, ‘誠意’는 ‘뜻을 성실하게 하다’ 또는 ‘생각을 정성스럽게 하다’로 번역하고 있다. 이런 번역은 新註에 어긋날뿐더러, 십삼경주소의 舊註와도 맞지 않는 해석이다.

‘時習’은 《논어주소》에 身中の 時, 年中の 時, 日中の 時로 본 설이 있으니, 나이・一年・一日의 適宜한 때를 가리킨다. 이를 ‘때때로’ 또는 ‘때로’라고 번역하는 것은 本旨에 맞지 않는다. ‘修道’는 《예기주소》에 ‘修’를 ‘治’로 해석하였고, 주희는 ‘品節之’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여러 번역서에 ‘도는 닦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도를 닦는 것’이 아니고, ‘도를 닦은 성인의 말씀’을 의미한다. ‘誠意’는 주희의 설에 따르면 ‘남들은 모르고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마음속에 갇혀 있는 생각을 善으로 꽉 채우다’는 뜻이다. ‘誠’은 ‘채우다[實]’의 뜻이고, ‘意’는 ‘마음속에서 計較하거나 商量하는 생각’이다. 우리는 意, 義, 志, 旨 등을 모두 ‘뜻’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이 글자들은 의미가 각기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로 意, 念, 慮, 思, 惟 등을 모두 ‘생각’으로 번역하는 것은 정밀한 표현이 아니다.

여섯째, 출판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다. 한 章 또는 한 문단을 여러 節로 나누어 經文 아래에 譯者註가 있고, 注 밑에 역자주가 있고, 疏 밑에 역자주가 있다. 이처럼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장 또는 한 문단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고, 전체적인 文勢를 파악할 수 없다. 이는 대전본보다 더 심하게 느껴진다. 대전본 편집체제의 문제점 중 하나가 한 장을 여러 절로 나누고 그 밑에 註와 小註를 다수 인용하여 전체적인 문맥이 이어지지 않고 마디마디 단절되게 한 것이다. 현재의 십삼경주소의 편집은 注・疏를 위한 편집이지 經文을 위한 편집이 아니다. 이점은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역자의 주석은 장별 또는 단락별로 脚注나 尾註로 처리해도 될 것이다. 注는 저본에 間註로 되어 있고 疏는 단락별로 되어 있으니, 經文을 중심으로 편집한다면 注와 疏의 편집형태를 그에 맞추어 필요가 있다.

## 5. 맺음말

오늘날 한국에서 십삼경주소를 완역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조선 5백 년

동안 사장되다시피 한 고대의 경전주석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5백 년 동안 하나의 설만을 믿고 따르던 고정된 관념을 깨고 상호 대조해 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해석의 다양성을 열어 놓아 보다 자유롭고 풍부한 사유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의 십삼경주소의 역주사업은 학술사적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십삼경주소를 우리가 최초로 완역한다는 점은 사실 대외적으로 크게 선전할 사항은 아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교감하고 표점하여 학계에 널리 통용되는 整理本이 있으니, 현대적으로 번역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십삼경주소를 완역함으로써 우리 학계가 동양고전연구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있다. 예컨대 보다 더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 번역서를 번역자와 연구자들이 활용하게 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파급효과를 크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문연구자를 참여시켜 연구를 함께 촉진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우리에게 유교경전은 십삼경주소보다 사서오경대전이다. 사서오경대전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표절이 심하고 졸속으로 만든 책이지만,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완역되어야 하며, 번역자와 연구자가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번역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한문고전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교과서처럼 접하고 인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번역에 의존했는데, 이제는 衆智를 모아 표준번역을 할 필요가 있다. 전통문화연구회에서 사서오경대전을 새롭게 완역하여 표준번역서를 만든다면 경학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토대를 새로 마련하게 될 것이다.

전통문화연구회에서는 동양고전 역주사업을 지속하여 經部 외 史部, 子部, 集部도 총서를 출간하였다. 2001년부터 3종 3책을 출간하여 2019년까지 45종 142책을 출간하였다. 여기에는 십삼경주소에 들어 있는 《論語注疏》, 《孝經注疏》, 《毛詩正義》, 《尚書正義》, 《周易正義》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史부의 《國語》, 《戰國策》, 《通鑑節要》 등, 子부의 《孔子家語》, 《荀子集解》, 《近思錄集解》, 《心經附註》 등, 集부의 《古文眞寶》, 《唐詩三百首》, 《唐宋八代家文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동양고전의 이해와 연구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역주사업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이 말했듯이, 우리에게는 경제대국이나 군사강국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문화강국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듯이, 문화가 없는 나라는 멸시를 당하기 쉽다. 우리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건설하여 한류로 일컬어지는 한국문화를 창조해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를 생산하는 근원적인 힘은 고전을 현대화하는 데 있다. 기초가 없이는 높고 웅장한 건물을 세울 수 없듯이, 고전을 번역하여 현대화하는 일은 한국문화의 기초공사를 하는 일이다.

고전을 현대화하는 일에는 우리 것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동양고전은 물론 서양고전까지도 번역해야 한다. 그래야 폭넓고 다양한 사유를 할 수 있고, 보편적인 가치를 창

조할 수 있다. 미래의 한국학이 나아가야 할 길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자문화권의 동양 고전만 보더라도 주요 고전을 완역하여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미래의 한국문화를 創出하는 源流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동양고전의 역주사업은 한국문화가 도도하게 흘러가도록 하는 源泉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 <참고문헌>

#### 1. 원전 자료

顧炎武, 《日知錄》  
 金富軾, 《三國史記》  
 金宗瑞 등, 《高麗史》  
 實錄廳, 《世宗實錄》  
 實錄廳, 《肅宗實錄》  
 安鼎福, 《順菴集》  
 李 瀼, 《星湖先生文集》  
 李 瀼, 《星湖僊說》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丁若鏞, 《與猶堂全書》  
 正 祖, 《弘齋全書》

#### 2. 연구 논저

范文瀾, 《經學講演錄》(이종호 편, 《유교경전의 이해》, 중화당, 1994)  
 심경호, <十三經注疏 번역의 필요성과 방법-부:전통문화연구회의 사례 검토>, 《고전번역연구》 제9집, 한국고전번역학회, 2018.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周易正義》(十三經注疏整理本), 북경대학출판사, 2000.  
 吳雁南 外 主編, 《中國經學史》, 五南圖書出版股份有限公司, 2005.  
 이종호 편, 《유교경전의 이해》, 중화당, 1994.  
 蔣伯潛蔣祖怡 著, 최석기·강정화 譯, 《유교경전과 경학》(《經與經學》), 경인문화사, 2002.  
 전통문화연구회, <십삼경주소 역주 특별계획>.  
 전호근, <유가철학 원전전승의 문명사적 의의-십삼경주소의 성립과 전승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제26집,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5.  
 陳延傑, 《經學概論》, 商務印書館, 중화민국 19년(1930).  
 崔錫起, 《성호 이익의 학문정신과 시경학》, 중문출판사, 1994.  
 崔錫起, 《한국경학의 연구 시각》, 보고서, 2020.  
 皮錫瑞 著, 李鴻鎮 譯, 《中國經學史》, 동화출판공사, 198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